



BVLGARI
ROMA



BRIDAL
Wear it with Love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16
vol.136



티파니™ 세팅
130년을 이어 온 경이로운 전설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OMEGA



Globemaster

THE WORLD'S FIRST MASTER CHRONOMETER

Proven at the industry's highest level, the OMEGA Globemaster has been rigorously tested and officially certified by the Swiss Federal Institute of Metrology (METAS). Along with exquisite design, it combines superior precision with anti-magnetic resistance of 15,000 gauss, proudly setting a new standard in watchmaking. For OMEGA, this is just the beginning.

www.omegawatches.com/globemaster

Ω
OMEGA

신세계 강남점 · 롯데 잠실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목동점 · 현대 판교점 · 현대 대구점 · 현대 부산점 · 청담 부티크(리뉴얼 중)



BURBERRY.COM



BURBERRY

London, England



GUCCI



65

60

조선일보
Style
FEBRUARY 2016

TIFFANY & CO.
NEW YORK LONDON PARIS

1백7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전설적인 웨딩 링, 티파니® 세팅이 울려호 탄생 1백30주년을 맞이했다. 티파니® 세팅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딩 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진정한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 웨딩 링은 정교한 6개의 프롱 위에 다이아몬드가 떠 있는 것처럼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선사한다. 문의 02-547-9488



26



12

- 16 우주에서 아름다움을 찾다 아티스트들이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큰 이유.
- 18 GRACEFUL SUIT 실용적인 예복 수트.
- 20 YOUR BLOOMY DAY 신부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플로리스트 4인이 완성한 시그니처 부케.
- 22 BE MY PRECIOUS 프레스티지 라인 예복 백.
- 24 HIGH-END WAIST '최상의 럭셔리'를 자부하는 벨트.
- 26 PURENESS 2016 S/S 스페셜 웨딩 컬렉션.
- 32 ATIME FOR LOVE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40 ROMANTIC RUNWAY 웨딩드레스 키워드 여섯 가지.
- 41 WELCOME TO SEOUL! 지난 10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소개한 에르메스 2016 S/S 컬렉션을 서울에서 재현했다. FRENCHTWIST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쿄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 행사.
- 42 NEO CLASSIC (스타일 조선일보)가 벨기에 브랜드 델보의 CEO 마르코 프롤스트를 만나 진정한 '럭셔리'에 대해 들어봤다.
- 44 THE LEGENDARY RING 진정한 사랑의 증표로 통하는 티파니 세팅 링 스토리.
- 45 DIAMOND EXCELLENCE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탄생시킨 타사 카는 진정한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다.
- 46 DESIGN YOUR LOVE 주얼리의 명가로 자리매김해온 불가리아 2016년을 맞이해 맞춤 웨딩 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 47 MODERN & ARDENT 모던하고 혁신적이며 클래식한 주얼리 브랜드 프레드(FRED)의 스토리.
- 48 YOUTHFUL LIGHT 젊음의 광채를 선사하는 세일의 강력한 화이트닝 솔루션에서 궁극의 해법을 찾다.
- 49 WHITE BRIDE 맑고 환하게 빛나는 피부로 결혼식의 해로인을 꿈꾸는 신부의 수줍은 바람을 담은 사술사의 예단 세트.
- 50 GOLDEN TIME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티 W 컨셉트레이션 데이 & 나이트'는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 안티에이징 듀오다.
- 51 CORSET EFFECT 프레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르셋 탄력 세럼과 오버나이트 마스크가 만난 '블랙디 코르셋 듀오' 캐어.
- 52 MY OBSESSION 차가우면서도 클린한 향, 혹은 탐탐하고 무겁지만 호기심이 발동하는 중성적인 향.
- 53 SKINTINT 나스(NARS)의 새로운 베이스 메이크업.
- 54 HEALING HAIR 스페셜 헤어 트리트먼트 아이템.
- 55 SELECT BEAUTY SI BEAUTY에서 뽑은, 까다로운 뷰티 유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열 가지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공개한다.
- 56 EDITOR'S PICK 예비 신부의 비밀 병기가 되어줄 뷰티 아이템.
- 57 ICONIC BEAUTY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 3인이 제철한, 클라란스의 아이코닉 3종 세트를 소개한다.
- 58 SPECIAL GIFT FOR BRIDES 양가 어머니와 예비 신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8개 브랜드의 여덟 가지 다양한 구성을 모았다.
- 60 HEAVENLY PARADISE 웨딩 전문가들이 직접 다녀와 추천하는 피플루빌라의 매력을 살펴본다.
- 62 BLUE-HUED INSPIRATIONS 인도의 아름다운 도시 조드푸르에서 열린 프라이빗 행사 '브리티시 폴로 데이' 현장.
- 64 NAPLES MEETS THE WORLD 캄파니아(Campania)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폴리로 떠났다.
- 65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체험기.



Style 조선일보

Issue.136 February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티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컬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LV FIFTY FIVE The watch

LOUIS VUITTON



**Jewel
PURE
HEART**

순수하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마더오브펄과 진주의 향연.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마더오브 펄 소재의 매직 알렉산드라 브라운 컬러 7개 단단한 **반클리프 아펠**, 마더오브펄과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다운 아틀란티드 카르타에 롱 네크리스 1천원짜리 **카르타에**, 진주의 단단을 볼 수 있는 브라운 컬러 2백50원짜리 **타사키**, 매직 알렉산드라 브라운 네크리스 6백만원짜리 **반클리프 아펠**, 부채 모티브의 다바 네크리스 2백만원짜리 **볼가리**, 5개의 흑진주를 배치한 '벨로스 시그'저 남양흑진주 링 3백90만원짜리 **타사키**,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조화로운 아드리프 펄 브라운 컬러 2백50원짜리 **카르타에**, 부채 모티브의 다바 아이젠 2백만원짜리 **볼가리**, 에디터 **베이션**

포토그래피 박진주



**Fashion
MY LITTLE BAGS**

원래 봄에는 휴대폰과 립스틱만 겨우 들어갈, 미니 사이즈의 백이 한결 가볍고 예뻐 보이는 법이다. 게다가 신명한 컬러로 확실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미니 백이려니!

(왼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구조적인 세이프에 그린과 화이트 컬러 블로강이 돋보이는 미니 숄더백, 19x14.5cm, 2백40원짜리 **살비토레 페루기오**, 트루 레드와 핑크 컬러로 강렬한 포인트를 준 패들러백, 20x12.5cm, 1백840원짜리 **구찌**, 앙증맞은 컬러 스타트 장식이 매력적인 미니 바이너리백, 20x14cm, 2백50원짜리 **펜디**, 개구리를 연상케 하는 신명한 옐로 컬러의 비브 마이르로 백, 19x15cm, 2백30원짜리 로저 비비에 에디터 **이저전**

포토그래피 박진주



**Beauty
SENSUAL TOUCH**

로맨틱한 순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세심한 관제, 그리고 보드라고 매끄러운 보디 피아다. 이때 촉각을 자극하는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운 향까지 은연중에 풍기다면 게임 끝.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시슬리 오 드로페칼 모이스처라이징 파플드 바디로션**은 열대 과일과 증성하게 만발한 꽃이 가득한 아늑적인 여향기를 연상케 하는 플로럴 시트러스 계열의 보디 제품. 가볍고 신뜻하지만 크리미한 질감의 플루이드 텍스처는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기분 좋은 상쾌함을 남기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을 바른 후 바로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흡수된다. 단독으로 사용하면 은은한 상쾌함을, 오 드로페칼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강렬하고 관능적인 향을 즐길 수 있다(150ml 9950원). **볼가리 울트라 인디안 가넷 뷰티 오일 보디는** 인도에서 온 매혹적이고 신성한 오렌지 컬러의 보석, 만년전 가넷의 프레스한 향과 관능이 있는 인디안 튜베로스가 조화를 이뤄 아늑하면서 신비로운 향기가 풍긴다. 오일이지만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 수분 보충을 향상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은은한 향이 하루 종일 지속되기 때문에 향수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면 더욱 만족할 수 있을 것(100ml 6280원). 진정한 여성을 위한 향수라 불리는 No. 5의 성세한 향을 담은 **시슬리 No. 5 보디 크림**, 과거 최음제로 사용됐던 만큼 관능적인 향을 연상케, 그라스산 계산인, 5월의 장미 노트가 아우러진 파우더리한 향이 특징으로, 향수만큼이나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150g 12800원).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향수인 **피로즈 시그 나처의 우아한 로즈** 향을 대량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오르자오 이브이나 시로즈 시그 나처 보디로션**은 탄산수한 한숨이 장미처럼 로맨틱하고 편안한 향을 선사한다. 피부에 가볍고 신뜻하게 흡수되면서 보습력은 오래 지속되는 것 역시 특징이다(200ml 7280원). 라일, 진저, 우디, 베베르 등이 조화를 이뤄 그린 플로럴 계열의 향조를 완성한 **에비스 온 지르메 이브레 라 무쌍비다 사워** 겔은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감각적인 향을 만끽할 수 있는 러쉬인 보디 케어 제품으로, 풍성하고 부드러운 거품과 실기 한 사용감이 연연 돋보인다. 반신욕을 할 때 이 샤워 겔을 소량 물에 희석한 따뜻한 입욕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ml 6280원). **프레쉬 리프트 보디 오일**은 벨벳 베르가모, 그레이프 프루트, 라일과 일 등을 더해 푸른 하늘의 싱그러움, 달콤한 아랑의 향기, 반짝이는 태양의 기운, 그리고 벨벳처럼 부드러운 물의 느낌을 모두 담았다. 피부를 유연하게 하는 오일 성분을 블렌딩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동시에 최상의 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100ml 8280원). 에디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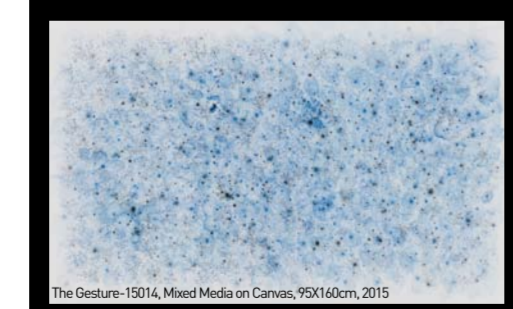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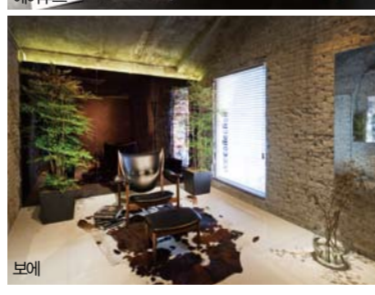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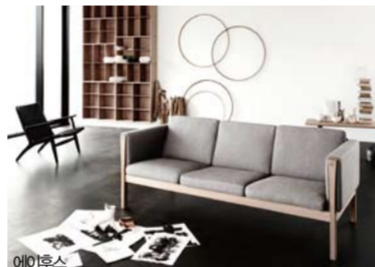
포토그래피 박진주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ing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면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미는 만큼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처음부터 모두 갖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포인트를 줄 만한 사이트 아이템에 집중하면서 둘만의 취향이 담긴 디자인 컬렉션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마다의 콘셉트에 채운 라이프스타일 속 내 곳을 소개한다. **에이투스(A/HUS)**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네들의 다양한 오리지널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다. 폴 해겐센의 작품을 기반으로 프라조 한센, 아르테, 베르란의 제품이 한데 모인 공간으로, 특히 상류층 인사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구매했던 만큼 하이엔드 셀렉션을 선보이는 곳이다. 조명부터 체어, 플로어 스탠드 등 제품을 하나하나가 집인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다. 문의 02-3785-0860 북유럽 특유의 모던함이 느껴지는 **노에(BO:É)**는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리빙 브랜드들 물론 에뮤, 매뉴, 아릭 요르겐센, 폴로 등 감각적인 제품과 신진 디자이너들의 아트 컬렉션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소용 내부와 테라스, 코지 코너, 층계까지 콘셉트별로 공간을 구성해, 소용을 둘러보는 재치가 쓸쓸한 데다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70-8890-1989 요즘 핫한 곳은 **쇼월길**이라 불리는 이곳에 다 모여 있다. 먼저 지난 12월, 남산 쇼월길에 아시아 최초의 **비카라(Baccarat)**가 오픈했다. 무려 2백50년 동안 상들리에, 테이블웨어, 화병, 테이블 램프까지 다채로운 제품으로 프랜차이즈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해온 브랜드다. 1층 매장은 브랜드의 헤리티지가 담긴 화려하고 거대한 상들리에를 중심으로 각종 리빙 소품과 크리스탈 글라스 등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이 즐비하다. 문의 02-3448-3778. 또 다른 쇼월길 핫 플레이스는 바로 **런패뉴(Lonpanew)**다. 런던과 파리, 뉴욕의 감성을 담아 아늑하게 선보인 리빙 스타일로 신선한 발상이 돋보이는 아이템이 주를 이룬다. 세리믹과 페브릭, 벽지,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을 갖추고 있는데, 이곳의 인기 아이템은 연인이나 카스하는 로맨틱한 장면이 담긴 멜로디 로즈 찻잔과 일리 밀러 작가의 영국 지도가 그려진 티포트 세트다. 문의 070-7529-9342 에디터 **이저전**



**Exhibition
(이강욱 개인전), 7년 만의 귀국전**

우리 몸의 세포를 연상케 하는 미시 세계와 광활한 우주 같은 거시 세계를 동시에 이루는 추상화로 일본, 싱가포르, 영국 등 다국적 팬층을 거느린 이강욱 작가가 7년 만에 귀국한 뒤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2009년 영국 윌리엄에 올랐던 이 작家的 귀국전 (역설적 공간: 신세계(Paradoxical Space: The New World))는 오는 3월 6일까지 서울 북촌로 이리리오갤러리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의 기존 작품인 '지오메트릭 폼(Geometric Form)' 시리즈와 더불어 신작 '제스처(Gesture)' 시리즈를 볼 수 있는 기회다. 대한민국회화대전 대상(2001), 동아미술회 동아미술상(2002), 중앙미술대전 대상(2003) 등 2000년대 권위 있는 국내 공모전을 휩쓴 이 작가는 런던 첼시 칼리지 석사 과정, 이스트 런던 유니버시티 박사 과정을 마친 뒤 런던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고대 힌두 철학의 텍스트인 (우파니샤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아와 세상에 대한 통찰을 꾸준히 해왔다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무엇이 많은 우주의 대립적 요소는 미와 거구를 포괄하는 '허'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번 귀국전에서는 힌두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온의 모티브를 이어가면서도 기온의 형상 등을 더해 달린 연묘를 엿볼 수 있다. 아리리오갤러리 주연하 데베다는 "관점에 따라 극도로 작기도 하고, 반대로 거대하기도 한 이강욱 작가의 작품 공간은 가상 세계에 대한 탐구이자 감각의 환영을 그려내고 볼 수 있다"라며 작가의 반복적인 제스처가 남긴 흔적이 빛어내는 최화적 매력이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02-541-5701



+82 3 443 2323 PRADA.COM

PR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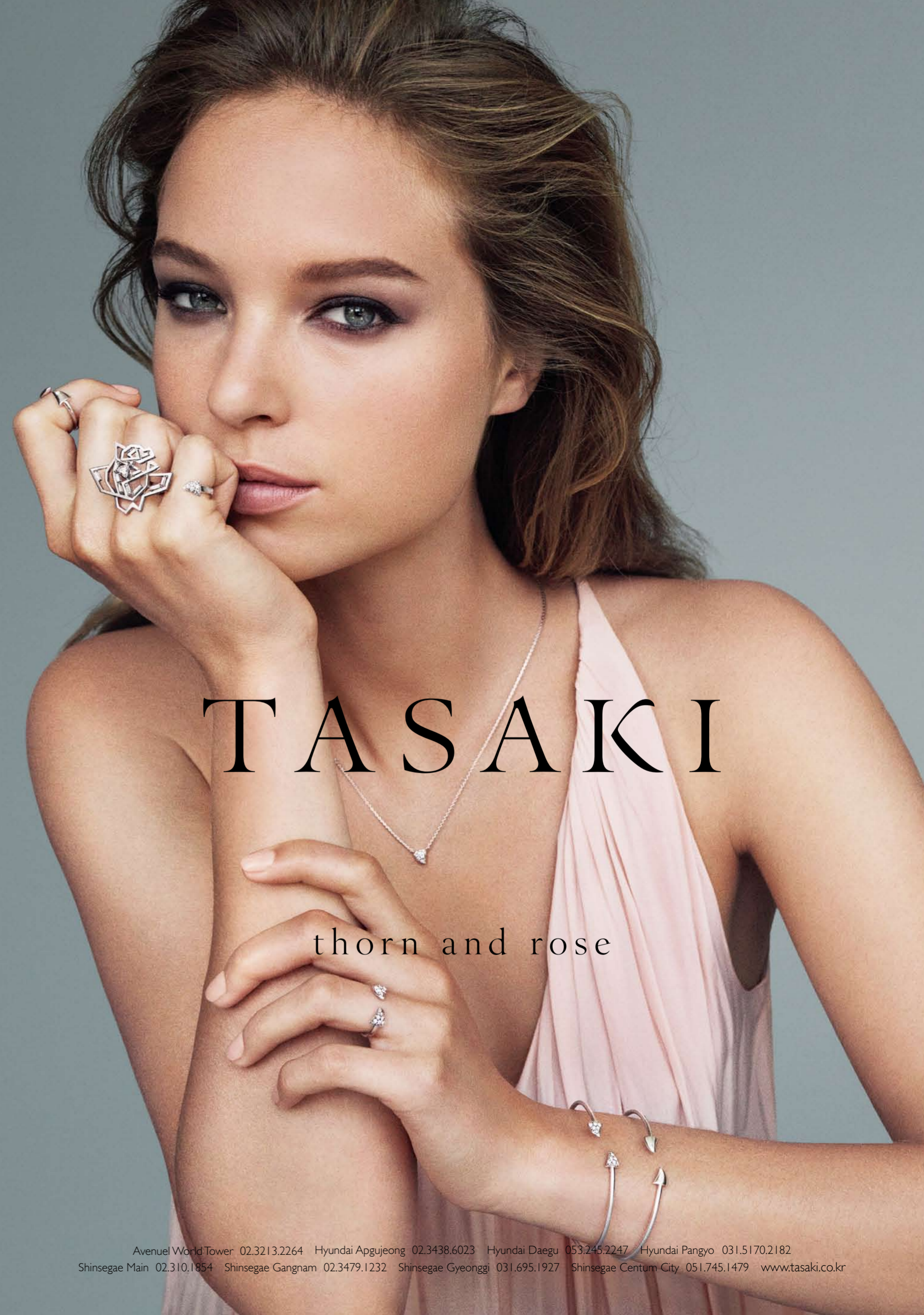
1 이븐데코 스타일의 화려하고 볼드한 크리스탈 벨류 89만원 **스외로보스키**, 2 허사한 파스텔 피커 컬러의 줄리아나 정지갑 29만원 **마이클 코어스**, 3 차개의 영롱한 반짝임을 담은 레드 무드 캐조 아이선 글라스 19만원 **립**, 4 유연한 크리스탈 볼 장식의 손을 움직일 때마다 아름답게 춤추는 브레이슬릿 2백50만원 **디올**, 5 은은한 핑크 톤 컬러와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플리워 자수 디테일이 우아한 웨딩드레스 1천만원 **대모니크** **탈리아에 by 소유 브라이덜**, 6 그 자체만으로 아트 파스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오브제인 쿠퍼 컬러의 루이스 폴센의 폴 해상엔 라미에트 에디션 조명 2백90만원 **보에**, 7 반짝이는 은하수가 헤아려 내려온 듯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을 완성해줄 별 모티브의 골드 헤어밴드 1백만원 **재.피.베어 by 소유 브라이덜**, 8 매끈한 도자기를 연상케 할 만큼 사랑스러운 브라운 백, 29x23cm, 7백40만원 **델보**, 9 바진 로드를 밟을 때 눈부신 반짝임을 더해줄 크리스탈 장식의 스텔레토 힐 가격 미정 **지미우**, 10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주얼리 박스 1백50만원 **스미아스**, 11 크기가 각기 다른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배젤과 라그, 플리워 모티브를 다룬 화이트 자개 다이얼, 화이트 스트랩의 조화가 화려하고 로맨틱한 레이디 메릭 럭셔리 에디션 5천만원 **오메가**, 12 반짝이는 상들리에를 모티브로 한 크리스탈 스타 2백75만원 **바카라**, 13 볼드하고 유니크한 밴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쿼트르 레디언트 옐로 골드 스텔링 9백만원 **부쉐론**.

델보 02-3449-5916 디올 02-513-0300 마이클 코어스 02-546-6090 바카라 02-3448-3778 보에 02-517-6326 부쉐론 02-6905-3322 스미아스 02-3479-6257 스텔로보스키 1661-9060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오메가 02-2143-7266 지미우 02-3443-9469 립 070-8692-8452

for her Selection

궁극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가치, 여기에 세심한 품격을 더한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스타일링: 유정훈, 이혜영, 김수진, 예타리, 권유진, 양정민, 최경림, 이소민, 이혜영, 김수진, 예타리, 권유진, 양정민, 최경림



TASAKI

thorn and rose



1 투명한 블루 크리스탈이 포인트인 커 프스 링크 66만원 **바카라**, 2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소 가죽 소재의 콘테고 브리프케이스, 38X29cm, 75만원 **히트 만**, 3 스마트한 인상을 더해줄 반짝데 인경 38만5천원 **598스테릭**, 4 블루 컬러의 플라워 모티브 부토니에 25만원 **황방 울트**, 5 울 소재의 블랙 슈트 3백40만원대, 턱시도 코트 셔츠 76만원대, 실크 보타이와 카라밴드는 세트로 41만원대, 코트 포켓 스웨어 15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집도 재나**, 6 로즈 골드 컬러의 클래식한 숫자 인덱스, 심플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의 조화가 멋스러운 카레라 칼라버 1887 크로노그래프 워치 59만원대 **태그홀이어**, 7 오래된 가죽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샌슈얼 우디 레더리 계열의, 검은 가죽 끈 장식이 돋보이는 다크 레벌 오드 투앙렛 75ml 8만2천원, **존 바비토스**, 8 베벌 부분을 정교하게 만져 두드러 독특한 텍스처를 표현해 몰스토티의 철학을 담은 레오 몰스토티 에디션 맨브릴 1백21만원 **황방울**, 9 매끈한 페이퍼트 가죽과 사틴 소재가 어우러진 우아한 디자인의 이브닝 슈즈 1백20만원 **루이 비통**, 10 블랙 & 화이트 가죽 코양이 유니크한 보타이 38만원 **코르시네 라베도리 by 10 코르소 코모**, 11 가죽형, 벽걸이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스피커링 기술인 뮤직캐스트 시스템을 탑재한 오디오 ISX-80 69만8천원 **아이하**, 12 아이코닉한 나선형 패턴에 링크·화이트·옐로 골드의 독특한 대담한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비, 제로원 링 2백만원대 **불가리**, 13 은은한 파인톤 패턴이 고급스러운 가시용 블랙 캐리어, 35X55cm, 69만8천원 **켄소니트**.

황방 울트 02-6905-3496 루이 비통 02-3432-1854 황방울 02-2118-6053 바카라 02-3448-3778 불가리 02-2056-0171 켈소니트 02-3288-3770 에르메네집도 재나 02-2240-6524 존 바비토스 02-3443-1805 태그홀이어 02-776-9018 히트만 02-514-9006 10 코르소 코모 02-3018-1010 598스테릭 070-8692-8452

for him
Selection

믿음직스러운 블랙 턱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매력적인 액세서리, 웨딩의 가치를 높여줄 리빙 아이템까지 한자리에 모았다.
photographed by kim do hyun

MAXMARA.COM

스타일링: 유영정, 헤어: 김민정, 메이크업: 김민정



MaxMara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가이드

〈그래비타〉, 〈인티스텔라〉, 〈마천〉 등 최근 우주를 다룬 영화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우주가 영화에만 좋은 소재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우주는 고대에서부터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거장 이성자와 오경환 화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성자 화백은 아틀리에 이름을 이에 '은하수'로 명명할 정도로 우주를 사랑했다. 1951년 프랑스로 떠난 이성자 화백은 초기에는 대지의 강한 생명력을 한국적인 색조로 표현했다. 그러다 1969년 마천루의 도시 뉴욕을 방문하면서 점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와 한국을 수없이 오가면서 바라본 하늘과 우주가 아마도 그녀에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길'이라는 테마를 선사했을 것이다. 이성자 화백은 1992년 프랑스 투르테에 있던 자신의 아틀리에 옆에 '은하수(Rivière Argent)'라는 이름의 화실을 신축했다. 음양을 상징하는 반원 2개를 약간 어긋나게 배치한 모양의 스튜디오 두 채로 이루어진 화실 사이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징검다리가 놓여 있다. 이 화백은 은하수 아틀리에를 두고 '내 인생의 완성을 시도한 작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다.

1995년 이후 발표한 작가의 작품 '은하수의 도시 3월(A City of Mercury March)', '우주의 축제 11월 3(Festive Cosmos November No.3)', '북극곰자리에 있는 나의 오두막 12월(My Cottage of Pole Star December)'은 낭만적이며, 화풍과 컬러 또한 대단히 부드럽다. 대형 캔버스에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은 실제 우주에서 바라본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비롭고 섬세하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1970년대부터 추구해온 음과 양의 조화가 후반기 우주 시대에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녀는 음과 양이 기계와 자연, 삶과 죽음, 동양과 서양 같은 상반된 요소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주 역시 지상과 천상의 조화라고 해석한다. 이성자 화백의 작품은 압구정역 부근 이성자기념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큐레이터들이 항상 작품은 직접 봐야 그 진가를 안다고 말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www.seundjarhee.com).

“인간은 별의 일부분이며 이 공간 속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간과 같다. 그러나 필시 시간이란 애초에 없는 것이니 우리의 존재란 공허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공간의 일부를 점거하다 사라지며, 없어진 후 어디에도 머무르리라는 가설은 근거 있다.”우주의 작가로 불리는 오경환 화백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해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 인류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회고했고, 이 사건은 그의 작품 세계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작가는 우주를 표현하고 있고, 칠순이 넘는 현재에도 그의 환한 에너지는 지속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낭만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死) 즉 생(生)이요, 실(實)은 허(虛)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 동양의 우주관이 느껴지기도 한다(http://damma.daejeon.go.kr).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하여

우연히도 아라리오갤러리에서는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에 40여 년간 관심을 가져온 일본 미술가 케이지

우주에서 아름다움을 찾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2020년에는 달 착륙선이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성공적인 우주 탐사를 응원하며, 우주에서 영감을 받은 미술가들의 환상적인 작품을 소개한다.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아름답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아티스트들이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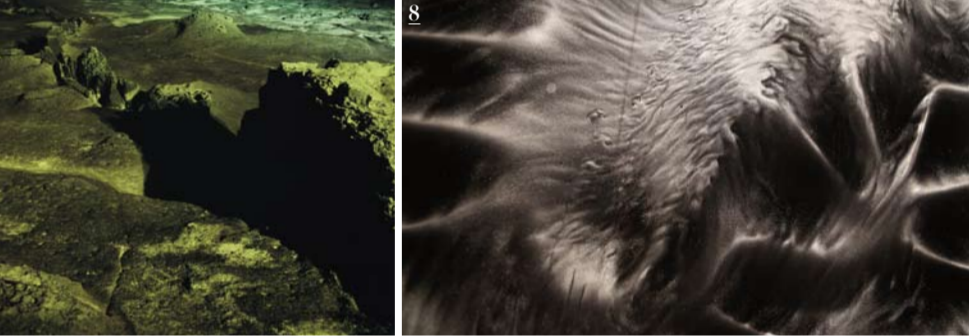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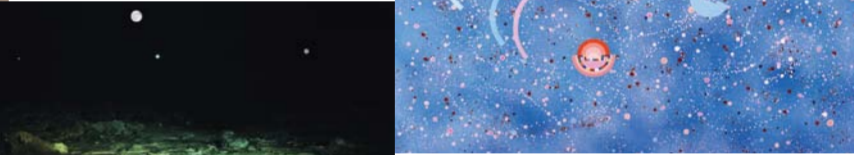
우에마쓰의 개인전 〈인비저블 포스(Invisible Force)〉가 열렸다. 어린 시절부터 피라미드, 스톤헨지, 나스카 유적 등 형이상학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돌맹이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중력을 평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1970년대부터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중력, 장력, 압력 등을 소재로 물질과 물질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사진과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이게 된 이유다. 1970년대에는 주로 사진을 통해 위트 있게 만유인력과 중력을 표현했다. 예를 들어 '수평 자세', '수직 자세'에서는 작가가 미술관 문에 수평이나 수직으로 포즈를 취하며 위트 있게 공간과 물질의 관계를 보여준다. 11개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간격-다섯 개의 돌에서는 돌 5개를 양손에 든 작가가 돌과 중력의 관계를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오래전부터 원초적인 것, 우주의 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런 관심은 자연과 지구, 우주같이 거대한 물질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물질의 구조와 인간의 존재에 중력이라는 보편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의 법칙이 작용하고, 나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이거나 비시각적 언어로 드러나게 만들고 싶었다.” 전시 공간에 자신만의 소우주를 창조해 물리적 힘의 질서를 보여주는 케이지 우에마쓰의 작품은 태양과 지구, 우주의 관계가 바로 예술이며, 예술은 철학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어서 오는 3월 6일까지 개인전을 여는 이강욱 작가의 연작 제목은 '비가시적 공간(Invisible Space)'이다. 그의 작품은 세포나 미립자를 통해서 본 거시 세계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신경세포와 뉴런 같은 미세 입자의 세계에 우주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작은 세계와 무한한 세계의 연결성과 유사성을 탐구하는데, 그리고 보니 그의 작품에서 단위성 물질의 미세 입자와 태양의 흑점 폭발이나 카오스, 은하계의 움직임이 동시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는 유기적 구조로 이루어진 생명체지만, 나라는 존재는 무한한 우주에서는 단지 작은 생명의 단위 입자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공간이나 상황에 내가 속해 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작가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분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미시 세계의 상상 범위라고 지칭한다. 반대로 거시 세계로 가보면 지구의 지름은 12,760km이며, 태양계의 거리는 10의 15승 센티미터로,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는 무한한 거리의 공간이다. 이처럼 거대한 공간과 미세한 공간의 이미지에 대한 상상은 새로운 세계로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며, 결국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은 같다. 인도 철학의 근간이 되는 고대 힌두 철학의 원전 〈우파니샤드(Upanisad)〉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의 내면, 자아는 우주의 원리, 근간과 평행하게 연결된다고 하니, 작가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www.arariogallery.com).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그리아 머리곰 비취오시라

우주는 끝을 알 수 없이 광활하지만, 고대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우주는 달이었다. 달의 공전과 자전에 따라 사시사철 달라지는 달의 아름다운 모습은 현대의 미술가들에게도 진과 같은 영감을 선사한다.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최근 〈실재와 가상의 틈: 한국 러시아 미디어 아트 의 오늘〉전을 연 러시아 미술가 레오니드 티쉬코프의 작품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자아나게 할 만큼 사랑스럽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레오니드 티쉬코프의 '사적인 달(Private Moon)' 연작은 2003년 현대미술 축제인 아트 클라즈마(Art Klazma)에서 조



1 일민미술관 (우주생황)전에 전시되었던 NASA의 우주 기록 사진. 아폴로 17호의 우주인이 달 표면을 걷고 있다. ©NASA 2 '우주의 작가'로 불리는 오경환 화백의 작품에서는 동양의 우주관이 느껴진다. 'C-2014-00', 캔버스 위에 이크릴 채색, 2013~2014년. 3 보이지 않는 힘을 40년 동안 탐구하고 있는 케이지 우에마쓰의 설치 작품 'Floating from-Invisible Axis'. 4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 〈역상적 공간을 열고 있는 이강욱 작가의 작품〉(detail). 5 은하수를 사랑한 이성자 화백의 '은하수의 도시 3월Une ville de Mercure Mars', 146X114, 1998년. 6 우순욱 작가에게 달은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그곳 'The Moon', 2006~2011년, video projection ©국제갤러리. 7 달에서 받은 에너지를 받는 박형근 작가의 'The Third Moon'. 8 우주 감파기와 일렉트로 마그네틱필드 발생기를 이용한 김윤철 작가의 최근작 '이물질(EFFULGE)'(detail).



명 설치 작품을 만든 뒤 시작되었다. 작가는 이 조명 작품을 모스크바에 있는 자신의 아틀리에 옥상에서부터 파리, 남극, 북극, 뉴질랜드, 대만, 러시아 우랄 지역으로 이동하며 설치해 동화처럼 따뜻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9월 16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으로, 사람과 우주의 상호작용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달 모양 조명 설치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흥미롭다. 마치 요정이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작품은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더니,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촬영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www.wooyangmuseum.org).

우순욱 작가의 '그곳'은 NASA에서 찍은 달의 모습을 느리게 반복해 보여주는 영상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달의 모습은 한순간도 가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동경을 상기시킨다. 작가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달'의 존재는 작가에게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영혼이 사는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하며 어떤 깨달음의 의미로 작용한다. 작가의 이전 작품인 달-산책에서 이러한 의미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추운 겨울 한밤중에 자신을 따라오는 밤하늘의 달을 비디오로 찍은 것이다. 변화무쌍한 달을 보며 덧없이 흘러가 부서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그 삶의 자편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본질은 불변하는 영원과 같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한 작가의 성찰은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루나 오아시스' 역시 달에 우주 온실을 개발한다는 뉴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 잃어버린 낙원을 상상하며 만든 작품이다(www.kukje.org).

우주의 진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박형근 작가 역시 달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A Voyage와 'Tenseless' 연작 등에 달이 자주 등장한다. 재미있는 것은 작품 'An Known Object'와 'No Where'에서 의도적으로 노출된 둥근 반사판과 안테나 접시까지도 달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 달은 구멍이자 빛, 얼굴, 눈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작가가 연출한 상황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초월적 기호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작가가 생각하는 우주란 과연 무엇일까?

'Cosmos'는 사실 숲을 촬영한 사진인데, 작품 제목 그대로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처럼 보인다. 작가는 사진 장르의 특성을 살려 수평선에 비친 3개의 빛(The Third Moon)과 숲 속의 햇살(Cosmos)을 또 하나의 우주로 연출한 것이다. 박형근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

린, 박병 지드래곤에게 영감을 받은 전시 〈피스마이너스원〉에서 신작 '중력파곡' 시리즈를 선보이기도 했다. KDK 작가 역시 'b' 시리즈로 우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전시가 열렸을 당시, 작가가 갤러리에 온 사람들에게 단 한 작품만 빼고는 모두 별이 아니라고 설명해 대환란이 벌어졌다. 그중 한 작품은 프랑스에서 촬영한 북극성 주변 별들의 형형색색 흔적을 담은 것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 가족 의자의 재질, 고장 난 모니터, 프라이팬 바닥 등을 각각 촬영한 것이었다. 설명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우주의 신비로운 광경으로 생각했을 텐데, 실제와 허구의 경계를 작품으로 보여준 작가의 감각이 유쾌하다(www.kdkkdk.com).

반면에 중국 미술가 니요위는 실제 우주 사진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Dust' 연작은 2010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찾은 우주 사진을 기반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독일 미술가 토마스 루프가 실제 별을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우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예술의 본질에도 의문을 던진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름 모를 사진과 유명한 예술가의 사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예술관 말이다.

이렇듯 예술가들이 과학의 영역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새로우면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과학자도 예술가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지도 궁금해진다. 정답은 'Yes'다. 김윤철 작가가 그 영예의 주인공인데, 실제로 그의 전시를 보고 국내외의 많은 과학 연구소에서 심포지엄을 요청해왔고, 천체물리학자 제이미 포레로로메로, 미술사학자 루치아 아일랄타 박사와 예술 과학 프로젝트 그룹 '플로이드 스키이스'를 결성하기까지 했다. 사실 김윤철 작가의 관심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출렁이는 용액을 담은 커다랗고 투명한 통으로 상상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리하여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와 인공적 환경 변화가 액체 금속질에 영향을 주어 불확정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특히 우주 감파기와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발생기를 이용한 최근작 '이물질'는 그 신기한 움직임에 관객들의 발길이 한참 동안 머무르게 한 작품이다. 이렇듯 과학자와 예술가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한다는 것이다. 예술가의 상상력은 과학자를 리드할 것이며, 과학자의 도전 정신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준다. 2020년, 우리나라에서 달 착륙선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게 되면 일어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우주의 시작과 끝은 과연 어디인지, 우리는 언제쯤 알게 될까? **스타일** (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사물, 그니까 좋더라) 저자



통 포드에서는 MTO와 MTM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두 서비스 모두 고객이 직접 통 포드 컬렉션에서 원단을 고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라이닝, 버튼, 이니셜 인브로이더리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송받는 데 8주가 걸리지만, 이틀리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4주까지 배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스키니츠 수트 6백50만원, 화이트 셔츠 70만원대, 타이 32만원 모두 **통 포드**, 문의 02-6905-3534 부토니아 **꽃밭**



브리오에는 앞의 채형과 취향,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예복을 만들어주는 MTM(수미주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향에 따른 사이즈 수정은 물론 개인 취향에 맞춰 라펠과 인감, 버튼 등 포켓 등 1천가지가 넘는 세세한 디자인 수정도 가능하다. 이틀리에 최고 장인들의 손을 거쳐 6주 만에 수트가 완성된다. 체크 패턴 수트 7백90만원, 화이트 셔츠 98만원, 42만원 모두 **브리오**, 문의 02-516-9686 부토니아 **기든하다**

graceful Suit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당신을 위해 최적화된 테일러링 수트는 당신을 가장 돋보이게 할 것이다. 데일리 비즈니스 웨어로도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예복 수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키톤은 이틀리에의 수석 테일러가 반영해 고객의 사이즈 측정부터 원단, 버튼, 라이닝, 이니셜 같은 세밀한 부분을 직접 체크한다. 완성된 수트를 받기까진 약 4~6주 소요되며, 한번 기록된 고객 사이즈 정보는 본사에 등록돼, 언제 어디서든 원도만 고르면 스페셜 오더를 할 수 있다. 그레이 수트 8백 80만원, 화이트 셔츠 73만원, 타이 43만원 모두 **키톤**, 문의 02-6905-3787 부토니아 **니플라이 비그만 플러워 & 디자인**



에르메네제오 제니의 수미주라 서비스는 정제된 신세 차수의 측정에서 시작된다. 숙련된 테일러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이즈를 측정하고 4백50여 가지 소재, 1백여 가지 모델과 디테일 중 원하는 모든 조건을 선택, 제작할 수 있다. 기간은 3~4주 소요되며, 옷 안쪽에는 고객의 이름이 새겨져 더욱 특별하다. 핀스트라이프 수트 4백30만원대, 셔츠 47만원대, 타이 26만원대 모두 **에르메네제오 제니**, 문의 02-2240-6524 부토니아 **엘루나 플러워**

이탈리아의 유명 테일러
이탈리아의 유명 테일러

Daniel Henney
DANIEL HENNEY



VENTURA ELVIS⁸⁰
AUTOMATIC SWISS MADE

ICON
LEGEND
THIS IS VENTURA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New Store Opening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BOUTIQUE 현대백화점 천호점
HOUR PASSION 롯데월드몰점 코엑스몰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텀시티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라자 구로본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디큐브시티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충무점 충청점 김택스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청량리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JEJU SHILLA DFS SEOUL HDC JEJU
SHINSEGAE DFS INCHEON AIRPORT WALKERHILL DFS ENTAS DFS



Romantic Rose

봄에 어울리는 싱그러움 피치 컬러의 줄라엿 로즈가 중심이 감싸며 내려오는 요술봉 형태의 부케로, 동글게 말린 호접란을 더해 맛을 살렸다. 한두 가지 꽃만 신부와 드레스가 모두 돋보인다. 아외 웨딩은 물론, 클래식하거나 엔틱리한 공간 그 어느 곳에도 잘 어울린다. 요즘 웨딩 트렌드인 피치 컬러 웨딩드레스와 매치하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극대화해줄 것이다. 40만원대
플라워 블러워, 문의 02-542-6644



Natural Green

원빈, 아너컴 커몰의 스몰 웨딩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소박한 부케 스타일. 광택과 모양이 예쁜 동백잎과 주목 등을 메인으로 삼고 크리마스 로즈라 불리는 엘레보루스와 제니스타로 포인트를 주었다. 꽃이 메인인 아너스만 꽃송이 하나하나가 잘 보이도록 리듬감 있게 배치해 색다른 부케를 연출한 것이 특징. 헤어스타일과 드레스가 내추럴한 신부에게 잘 어울린다. 35만원대 꽃날.
 문의 02-794-0993

your bloomy Day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아름다운 부케일 것이다. 신부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플로리스트 4인이 완성한 시그너처 부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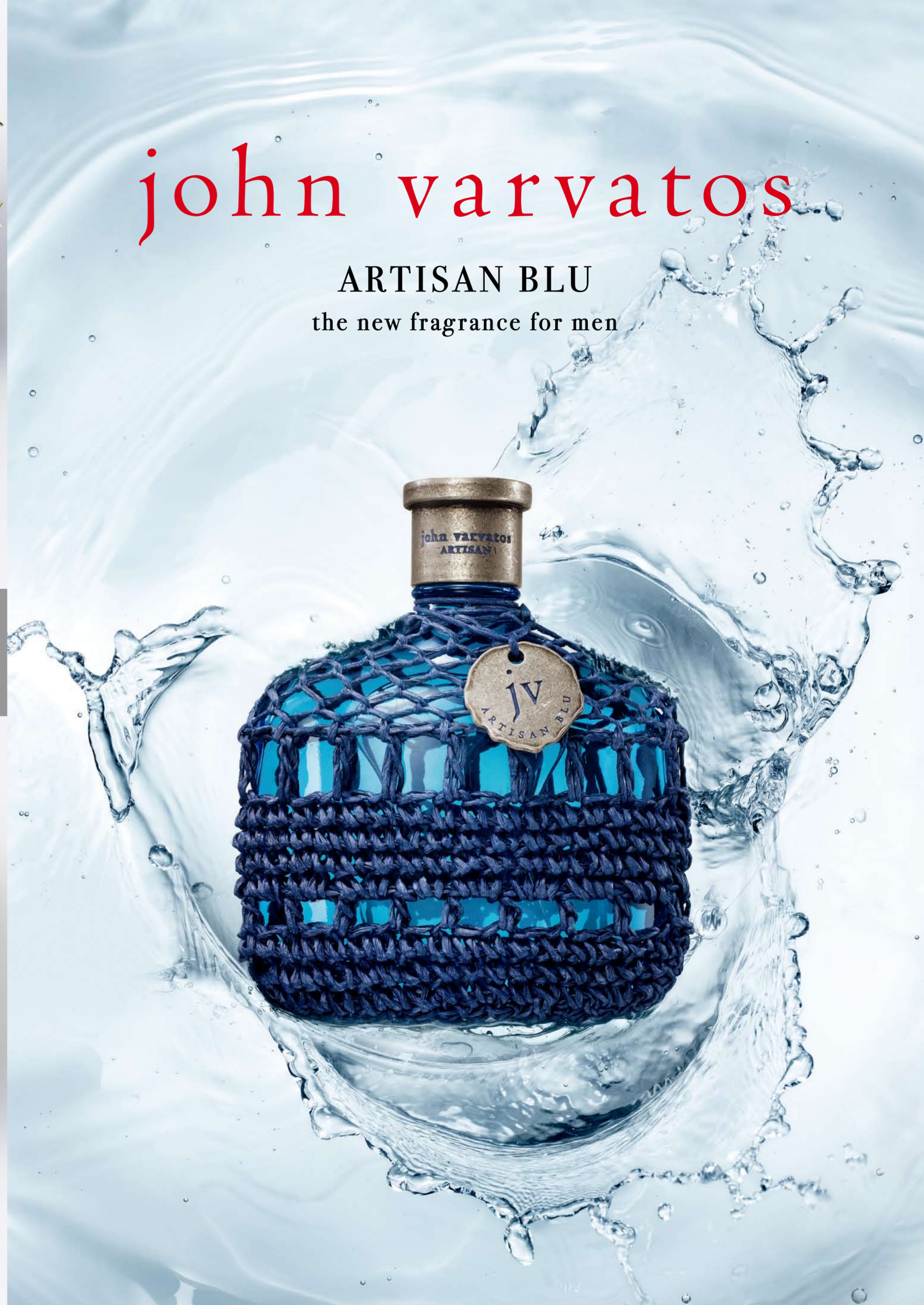
Simple White

화려하지 않은 들꽃 같은 느낌의 수선화, 하이신스, 라그라스, 바터 튜립, 코와리로 만든 부케다. 웨딩드레스를 담은 새하얀 꽃으로만 구성했으며, 블루 컬러의 스타파매-타로 포인트를 주어 신비스러운 느낌을 표현했다. 롱 & 린 실루엣의 드레스를 입은 경건한 교회 웨딩과 잘 어울릴만한 수수한 매력의 특징이다. 17만원대 거든하다.
 문의 02-736-0926



Flawless Organic

아래 개의 꽃양이 감쳐 있는 라봉글루스, 리시안서스, 장미, 부버르다아, 스키타비오사, 옥시메틸럼 등을 사용해 마치 봄날의 유아하고 산뜻한 정원처럼 꾸렸다. 화이트에서 그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컬러 그레이데이션이 특징인 이 부케는 포시즌스 호텔에 입점된 플라워 숍에서 제작한 것으로, 호텔 예약에 어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이다. 50만원대
 니콜라이 바그만 플라워 & 디자인
 문의 02-6388-5000 에디터 이지연



john varvatos

ARTISAN BLU
 the new fragrance for men



be my Precious

진정한 명품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와 만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세심한 안목으로 까다롭게 고른 각 브랜드의 프레스티지 라인 에물 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플스투스** 굽다더기 없이 간결한 라인으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절제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어깨에 걸칠 수 있을 만큼 깊이가 넉넉한 체인 스트랩을 더해 활용도를 높였다. 트윈드라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에비 시아메나와 마느리에게 추천한다. 28X22cm 1천만원대, 문의 02-542-6622

펜디 파카부 MTO 서비스로 주문 제작 가능한 파카부 백, 요즘 인기 있는 색상은 대가자 명단이 길어질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에물 백으로서 특별함을 원한다면, 백 안쪽에 레오르드 패턴의 송치 소재로 포인트를 준 이 제품을 추천한다. 코리아 익스클루시브로 선보이며 한정판이라 소장 가치가 높다. 24X32cm 5백65만원, 문의 02-2056-9023

델보 타메트 플럼 부분의 메탈 장식이 포인트인 델보의 시그니처 백,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프라시안 블루 색상으로, 플럼은 약이가죽을, 전체적인 보드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의 누백 사이언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에비 신부는 물론, 취향이 세련된 에비 시아메나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백. 27X20cm 2천1백만원대, 문의 02-3449-5916

필프 로렌 컬렉션 엘리게이터 리키 백 고객의 요청에 따라 네 가지 사이즈와 스무 가지 컬러의 엘리게이터, 여섯 가지 인감 가죽을 선택할 수 있는 MTO 서비스가 가능하다. 세상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이즈트릭 리키 백을 소장할 수 있어 특별하다. 32X24cm 2천만원대, 문의 02-545-8200

플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라스칼라 에비 시아메나들의 영원한 로망, 약이 백의 대표 주자 플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의 신제품 라인이다.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서 영감을 받은 이 제품은 기방 양옆의 구조적인 볼륨감이 특징이며, 브랜드에서 처음 선보이는 빈티지

크로커다일 가죽으로 만들어 멋스러운 컬러감이 돋보인다. 28X26cm 2천만원대, 070-7130-9200

루이 비통 카푸신 최근 루이 비통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물 7형은 1864년 브랜드가 최초로 탄생한 노브 데 카푸신 가문에서 이름을 딴 카푸신(Capucine)이다. 에비 시아메나와 신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우아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피아톤 가죽을 덧입혀 한층 세련되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켰다. 28X26cm 2천만원대, 문의 02-3432-1854

구찌 벨부 데일리 이영애, 김남주 백으로 불리는 벨부 데일리 백의 프레스티지 버전이다. 약이가죽 특유의 광택감에 대나무 모양의 짐금장치가 어우러져 클래식하게 변모했다. 비즈니스 우먼에게 알맞은 넉넉한 사이즈와 깊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을 함께 구성해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38X29cm 5천만원대, 문의 1577-1921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SAISONALISTE 우한칭 **이시영, 김수빈** **백지향, 에르메스**



CAMPAIGN WITH **LEE JIN UK**
samsonite.co.kr



Sams^onite

B U S I N E S S

NEW OLVIDO
BACKPACK_NAVY

(상단 왼쪽부터 차례대로) 스테파노 팔라티 꾸뛰르 컬렉션의 상징인 'X' 자 스틱 장식 벨트 보이는 송아지 가죽 벨트, 표명한 수트에도, 캐주얼한 데님에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다. 52만원대 **에르메네제오 제나 꾸뛰르 컬렉션 by 스테파노 팔라티**, 디크한 브라운 컬러가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스웨이드 벨트 1백5만원 **키튼**, 시그니처 로고 펜던트를 다한 비글 장식의 블랙 컬러 송아지 가죽 벨트,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버클 디자인이 단연 눈에 띈다. 1백만원대 **에르메스**.

(아랫단 왼쪽 윗부터 차례대로) 그레이팅이 감도는, 흔치 않은 고급스러운 컬러의 악아 가죽 벨트 2백50만원 **로로피아나**, 세련된 내이비 컬러의 악아 가죽 벨트, 브랜드를 상징하는 'LV'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다. 1백58만원 **브리오니**, LV 이니셜 로고가 포인트인 악아 가죽 벨트 4백70만원대 **루이 비통**, 바깥도 컬러 악아 가죽 벨트, 선명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감이 목에 포인트가 되어줄 것. 68만4천원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원하는 가죽과 버클을 선택해 오더 메이드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벨트. 버클 30만원대, 가죽 1백20만원대 **페라가모**,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네제오 제나 02-518-0285 **키튼** 02-6905-3787 **에르메스** 02-544-7722 **로로피아나** 02-546-0615 **브리오니** 02-6905-3760 **루이 비통** 02-3432-1854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070-7130-9200 **페라가모** 02-2140-9666

high-end Waist

남자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스타일의 중심이 되는 벨트다. 최고급 소재에 럭셔리 브랜드의 DNA를 느낄 수 있는 버클 장식과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인 스틱치는 오로지 하이엔드 벨트에서만 엿볼 수 있는 섬세한 디테일이다. 여기, '최상의 럭셔리'를 자부하는 벨트를 모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어스틴트 이세영



ABOVE & BEYOND

NEW DISCOVERY SPORT ADVENTURE. IT'S IN OUR DNA.

랜드로버만의 특허 기술인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이 선사하는 완벽한 주행능력과 1,698리터의 여유로운 적재공간, 그리고 모던한 인테리어까지. 꿈꿔왔던 모험을 실현시켜 줄 역사상 가장 실용적이고 다재다능한 SUV가 탄생하다. 랜드로버가 완성한 프리미엄 컴팩트 SUV, NEW DISCOVERY SPORT.

landroverkorea.co.kr



전시장 서초 02)6965-6000 강남 02)539-7777 송파 02)3012-0077 대치 080)007-1001 동대문 02)2213-2500 목동 02)2646-0588 한남 02)749-0588 일산 031)932-9489 분당 080)738-6900 수원 031)235-1001 인천 032)437-0588 평촌 031)423-8810 부산 051)623-7700 대구 053)742-2500 대전 042)620-7000 광주 062)971-8899 전주 063)246-8899 원주 033)813-2020 창원 055)293-5001 제주 064)805-0300

• 장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차용량: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Td4 SE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995kg, 자동변속기, 복합연비: 12.0km/도상연비: 10.9km/도상연비: 13.8km/도, 등급: 3등급, 복합 CO₂ 배출량: 159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차량 이미지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부의 늘씬한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는 메이드 라인 드레스.
사랑스러운 주얼 장식 컵 소매와
깊고 대담하게 파인 V백 라인이
포인트다. 등 아래 라인의 단추
장식이 세시함을 강조한다.
드레스 **Atelier Pronovias.**

가장 심플하면서도 세시하게
귀족적인 분위기와 단순한 라인이
포인트인 롱 슬리브 드레스.
고급스러운 소재가 포인트이기도
하다. 소매 끝의 금속 단추와 반전
V라인의 주얼 장식이 우아한
화려함을 표현한다. 드레스
Alessandra Rinaudo.

Pureness

이번 시즌의 웨딩드레스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소재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2016 S/S 스페셜 웨딩 컬렉션.
photographed by nicola de rosa



클래식한 분위기의 애플어 라인 드레스. 섬세한 자수 장식의들과 빈티지한 맛을 풍기는 여성스러운 레이스커파트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드레스 Lillian West.

순백의 화이트 드레스에서 살짝 벗어나고 싶은 신부에게 추천할 만한 드레스. 올 레이스 소재의 심플한 드레스에 톤 다운 핑크 컬러의 새틴 벨트를 매치해 악센트를 주었다. 약혼복으로도 잘 어울린다. 드레스 Atelier Emé.



시스루의 시폰 소재 퍼프 슬리브와 리본 장식, 그리고 섬세한 레이스 소재가 탄성을 자아내는 귀여운 드레스. 오프숄더 디자인으로 사랑스러운 신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 드레스 **Simone Marulli**.

임브로이더리 장식과 매끈한 새틴 소재가 어우러져 페이닌한 매력을 강조하는 슬리브리스 드레스. 키가 큰 신부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뒷면의 시스루 디자인이 포인트. 드레스 **Carlo Pignatelli**.

헤어 **Giuseppe Lorusso**(Closeup Milano)
메이크업 **Karin Borromeo**(WM Management)
스타일리스트 **Alessandrini**



a time for Love

서로 맞잡은 두 손,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이는 사랑의 서약. 그 속에서 빛나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결혼의 증표,
웨딩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포스터링, 인태리(komban)
스타일링, 유현정



Heavenly Gemmed Skins

(왼쪽 아래 핑크 컬러 트레이 오른쪽 윗부터 아래로) 4개의 동중 팔메트와 와이어 보드로 이루어진 마운트, 서브 다이아몬드를 패아비드 세팅한 밴드가 메인 스톤을 더욱 크게 돋보이게 하는 솔리테어 1895 파베 링 1.38캐럿 기준 가격 미정, 매달을 감추고 다이아몬드로 수놓는 마이크로 파베 세팅 기술을 적용해 마치 불꽃하게 솟은 메인 스톤을 중심으로 별들이 반짝이는 듯 극적인 효과를 선사하는 가르피에 테스티네 솔리테어 링 1.03캐럿 기준 4천만원대, 시그니처 컬렉션인 러브 링에서 모티브를 얻어 스크루 드라이버 부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러브 솔리테어 링 1.06캐럿 기준 5천만원대 모두 **가르피에**, 소용돌이치는 러브 디테일이 1.5캐럿 다이아몬드를 감싸고 있는 듯한 오픈워크 방식의 밴드가 매력적인 비운드 솔리테어 링 1.5캐럿 기준 5천만원대, 상위 1%의 다이아몬드 컷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타사키의 다이아몬드를 가장 우아하게 돋보일 수 있게 세팅한 피아제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반으로 나누어진 최상급 이국야 진주 시어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아름다운 기쁨을 선사하는 인블름 링 0.5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가지 끝에 핀 한 송이 장미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센터 스톤의 옆 라인을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 아슬아슬 표현한 브랑슈 인게이지 링 1캐럿 2천만원대,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피어나갈 많은 꽃봉오리들을 맡겨진 기쁨의 금속 불로 표현한 밴드 디자인의 브루주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 모두 **루시에**.

(오른쪽 위 화이트 대리석 위 왼쪽 윗부터 오른쪽으로) 센터 스톤을 중심으로 점점 좁아지는 밴드 디자인이 다이아몬드를 더욱 크고 아름답게 강조해주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보네르 링 0.3캐럿 기준 6백만원대, 핑크 골드 원형 비즈로 이루어진 밴드가 유니크한 패턴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1천4백만원대, 플라티넘 밴드의 양쪽을 섬세하게 장식한 플라티넘 비즈 세팅의 정교함이 돋보이는 에스텔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6백만원대,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로인테란 밴드 디자인의 쿠튀르 링 0.3캐럿 기준 1천1백만원대, 플라티넘 밴드 양쪽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중앙에는 투명한 다이아몬드 스톤을 세팅해 깨끗하고 순수한 빛을 발산하는 로망스 링 0.3캐럿 기준 6백만원대 모두 **반젤리프 아케**, 왕관과 꽃에서 영감을 받은 심플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밴드 디자인이 매력적인 코르나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1천만원대, 밴드의 양면은 물론 옆 선까지 작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 베네치아 웨딩 링 1캐럿 기준 4천만원대, 무한함과 영원의 의미를 지닌 말 이사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패턴 밴드의 스피가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5백만원대, 심플하지만 기쁨이 느껴지는 밴드 위 4개의 프롱으로 감싼 메인 다이아몬드가 클래식하고 우아한 그래픽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5백만원대 모두 **라키**.

(오른쪽 패이지 육각형 화이트 대리석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작인의 수줍은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볼륨감 있게 세로 얹혀 있는 듯한 꽃잎을 표현한 아바 파브린 링 0.43캐럿 기준 1천만원대, 쿼트로 브라이덜 컬렉션으로 0.2캐럿 메인 다이아몬드와 24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쿼트로 쿼터 로얄 & 화이트 골드 솔리테어 링 0.2캐럿 기준 9백만원대, 독특한 형태의 마크 컷 다이아몬드와 서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우아한 라인의 밴드가 돋보이는 이타넬 그레이스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2천만원대 모두 **부세**, 모던하고 유니크한 스퀘어 세이프의 다이아몬드로 특별함을 더한 티파니 프린세스 링 1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밴드의 양 끝이 하나로 모이듯 연인 간의 로맨틱한 조화를 표현한 티파니 하모니 링 1.14캐럿 기준 3천5백만원대, 단독으로 착용해도 포인트가 될 만큼 화려한 광채를 자랑하는 워터 세팅 밴드 링 1천1백만원대, 6개의 프롱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림으로써 광채를 더욱 극대화한 티파니 세팅 링 1.15캐럿 기준 2천5백만원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우아한 물결을 모으는 패어 세이프 솔리테어 링 1.7캐럿 기준 6천5백만원대, 두 줄의 밴드 세팅 다이아몬드가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감싸 메인 스톤을 더욱 크고 돋보이게 하는 티파니 솔리테어 링 1.07캐럿 기준 5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동백꽃의 우아한 꽃잎을 형상화한 밴드 디자인이 아름다운 가멜리아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섬세하게 세공한 것털 모티브의 링 끝에 패어 컷 다이아몬드를 더한 플롬 드 사블 링 0.5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마치 거대한 공기가 오뎨 컷 다이아몬드를 에워싸고 있는 듯 표현한 기하학적인 형태 에어 링 1.01캐럿 기준 6천2백만원대 모두 **시벨 화인 주얼리**, 부드러운 곡선의 밴드가 특징인 라벨로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피아제 간헐처럼 디자인된 시투라 골드 밴드 디자인을 심플하게 세팅한 피아제 솔리테어 링 0.3캐럿 기준 6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오른쪽 패이지 자갈 트레이 위 네크리스) 꽃잎을 이루는 마크 컷 다이아몬드와 라운드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아름다운 빅토리아 알파타네인 그레이에이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타사키**.



골드 커티지 세트 에르메스.

Wedding Jewelry for Brides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0.52캐럿 다이아몬드를 브랜드 로고 'C' 모양으로 세팅한 심플한 디자인의 C드 캐르파에 네크리스 0.52캐럿 기준 1천2백만원대 **가르다에**, 장미꽃 모티브의 입체적인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로즈 클라시크 컬렉션의 파피에 라인 네크리스 0.03캐럿 기준 70만원대 **루시에**, 지름 8mm의 이크아 진주로 얹어 만든 롱 비드 네크리스 1천1백만원대 **타사키**,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16개의 알함브라 펜던트 이루어진 롱 네크리스 3천7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왼쪽부터 아펠 네크리스 인, 가운데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유성 모티브를 23개의 브랜디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0.24캐럿 코페드 네크리스 5백만원대, 화이트 세라믹 소재가 돋보이는 뉴 울트라 펜던트 네크리스 3백만원대 모두 **사벨 화인 주얼리**, 정교한 비즈 장식으로 이루어진 바블리 브레이슬릿 6백10만원 **반클리프 아펠**, 카리움 악기를 형상화한 클로세 링 3백만원대, 장미꽃을 투각 기법으로 성상한 페달 링 2백30만원대, 알레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이는 은하수를 표현한 말파워 링 2백30만원대 모두 **루시에**, 옐로 골드 소재의 타이더를 펜던트에 8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새봄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5백만원대, 라트리가 비어로 나뉜진 형태로 제작한 코트르 화이트 워딩 밴드 2백만원대, 핑크 골드 강철을 사이에 두고 66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트널 그레이스 링 1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행운의 상징인 알함브라 모티브의 다이아몬드 링 4백30만원 **반클리프 아펠**, 풍요와 지혜, 불멸을 상징하는 벨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네 링 2백만원대 **블라귀리**, 골드 패턴 마블라세(Marlasse)를 응용한 코코 크루쉬 밴드 링 2백만원대 **사벨 화인 주얼리**, (아래부터) 화이트 골드 비에 알렐로 배열한 5개의 진주 장식이 특징인 밸런스 파베 링 1천7백만원대 **타사키**, (맨 오른쪽 상단 네크리스 2개 사랑하는 이미 마음을 연다는 로맨틱한 의미를 지닌 인텐트 허트 핀 펜던트 1천9백만원대(세팅 별도) **타사키**, 꽃잎 하나 하나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네크리스 2천만원대 **블라귀리**, (맨 오른쪽 아래) 팬자꽃을 형상화한 핑세 드 다이얼 펜던트 2천만원대(세팅 별도) **부세론**.

Brilliant Jewel Watche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벨 화인 주얼리 가르다에** 브로데 워치 시계 베젤 위에 아름답게 피어난 한 송이 동백꽃을 표현한 여성 주얼리 워치, 신비로운 파스텔컬러의 영롱한 자개 다이얼과 총 2.33캐럿에 달하는 1백94개의 브랜디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동백꽃 모티브 베젤이 조화를 이뤄 여성스럽고 드로이테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5천만원대. **부세론 새봄 옐로 골드 링크 브레이슬릿 워치** 앤 티크한 하이 주얼리 파스텔 연상케 하는 이 아름다운 브레이슬릿 워치에는 주얼리 하우스의 오랜 전통과 노하우가 여실히 느껴지는 디테일이 가득하다. 특히 행운을 상징하는 벨 모티브 2개의 울반을 모양 라그로 재해석한 것과 벨의 파부를 표현한 체인 브레이슬릿 디테일은 단연 돋보인다. 4천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가르다에** 워치 1930년대에 처음 선보인 반클리프 아펠 베젤의 상징적인 워치인 가르다에를 재해석한 뉴 가르다에 워치, 손목에 착용하면 시계가 아니라 화려한 브레이슬릿처럼 보이는데, 이는 당시 여성이 시계를 착용하는 것은 우아하지 못하다고 여겨져 착용한 사람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다이얼을 옆면에 배치했기 때문. 아랑기브르드한 직선 케이스와 고리 모양을 형성한 워치, 스키드 재질의 대담하고 완벽한 조화가 돋보인다. 4천백만원대. **블라귀리 디바 주얼리 워치** 영화 <글로오프트> 속 기하학적인 패턴과 클레오프트의 강렬한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받은 주얼리 워치, 브랜드 고유의 정교한 세공 기술과 워치메이킹의 정수가 만났던 나이트 파스를 받들게 한다. 총 1백1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얼과 신비로운 블루 컬러의 유색석을 다룬 베젤 장식의 극도의 화려함을 자랑한다. 7천만원대. **가르다에 뉴 베누아 주얼리 워치** 프랑스로 유명한 베누아, 4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향테의 타원형 케이스, 독특한 곡선으로 커링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라운은 이 워치를 더욱 특별하게 하는 요소다. 5천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파베 워치** 사랑, 행운, 건강, 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알함브라 모티브를 다이얼에 정교한 다이아몬드 파베 워치, 손목을 따라 부드럽게 감기는 알함브라 모티브에 네 가지 각기 다른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고 빠르게 파베 세팅해 주얼리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 4천백만원대. **타사키 카리움 워치** 미국 재즈 시대의 화려한 이브닝 시계를 연상시키며 화려한 우아함의 정수를 보여주는 여성 주얼리 워치,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타원형 케이스와 1개의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크라운, 고급스러운 울기가 흐르는 블랙 세틴 스트랩, 19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바늘이 세로로 다한다. 파티 룩에 어울리는 화려한 주얼리 워치로도, 품격 있는 하이엔드 예를 워치로도 인기 있는 디자인이다. 1천5백만원대.





Romantic Couple Bands

(맨 왼쪽 윗부터 아래로) 반올림된 아메리칸 시그니처 컬렉션 장인이 직접 만든 원형 비즈 정사마로고 시그니처를 새긴 카를 링, 화이트 골드 링 2백90만 원, 핑크 골드 링 2백70만 원, 불가리 비.제오원 컬렉션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나선 모티브가 특징이다. 각 1백만원대, 가문파에 자스트 영 공주 컬렉션 꽃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부드러운 타원형의 절제된 카를 링, 다이아몬드 세팅 더블 링 1천 백만원대, 골드 링 2백70만원대, 타파니 T 컬렉션 브랜드 아이슬란드 T를 모티브로 해 수직적 디자인도 강렬하다. 다이아몬드 와이어 링 2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스케어 링 1백만원대, 사일 화인 주얼리 홀트와 컬렉션 세파리 소재로 제작해 호화적인 분위기가 물씬 배어난다. 화이트 세라미 링 4백만원대, 블랙 세라미 링 3백만원대, 부쉐본 퀴르 레디언트 컬렉션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네 가지 모티브를 영문 골드 소재로 완성한 카를 에디션, 스물 링 9백만원대, 라지 링 1천만원대, (오른쪽 윗부터 아래로) 타파니 T 컬렉션 플라티넘과 옐로 골드를 사용해 2mm부터 6mm까지 다양한 두께로 선보인다. 각 1백만원대, 타사키 피아노 컬렉션 피아노 2천차렘 디자인 카를 링, 남성 밴드 링 1백20만원대, 여성 밴드 링 90만원대, 루시에 비터플라이 컬렉션 행운의 상징인 나비가 날갯짓하는 모습을 담은 V 모양으로 완성했다. 여성 밴드 링 1백90만원대, 남성 밴드 링 1백80만원대, 루시에 빌레 컬렉션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플라티넘 소재 카를 링, 여성 밴드 링 2백만원대, 남성 밴드 링 1백30만원대, 사일 화인 주얼리 프리미어 컬렉션 파리 빙동 광장의 팔각형 형태가 매력적인 카를 링, 다이아몬드 링 4백만원대, 옐로 골드 링 1백만원대.



Men's Dress Watches

(왼쪽 윗부터 오른쪽으로) 브리예 클라시 레저브 드 미르세 5277 직경 38mm의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메인 스프링을 탑재한 칼리버 515DR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배럴 중성부의 직경을 87%적으로 줄여, 메인 스프링의 길이를 코일 갭을 맞추는 횟수를 늘릴 수 있어 최대 96시간까지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2천5백만원대, 블랑랑 빌바에 컬렉션의 대표작인 모델 빌바에를 새롭게 해석한 뉴 버전이다. 12시 방향과 로마 인리스 안쪽에 요양과 날짜를 알려주는 컴플리트 칼리버가 위치하며, 6시 방향에는 문패이즈가 자리 잡고 있다. 3천만원대, 위 블로 클라시 퓨전 크로노그래프 타이틀링 킹 골드 타이틀링 케이스와 킹 골드 베젤로 구성되어 퓨전 디자인의 장수를 보여주며, 킹 골드의 부드러운 골드 색상과 견고한 타이틀링의 조화미가 돋보인다. 직경 45mm의 케이스 사이즈에 셀프윈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521, NO. 1180, L.F.를 탑재했다. 1천만원대, 파르미자니 톨다 1950 7.8mm의 슬림한 케이스 두께를 자랑하는 톨다 1950은 무브먼트 부품의 표면은 모래 알갱이 크기로 미세하게 분사시켜 만들었다. 시, 분, 초, 스몰 세컨즈 등 최소한의 기능만 탑재해 심플함의 미학을 보여주는 시계다. 2천2백만원대, 비제론 콘스탄틴 하모니 듀얼 타임 9시 방향 곡선형 케이스, 네모난 베젤, 그리고 라운드형 워치 글러시가 특징이다. 핑크 골드 소재의 베젤과 오프컷팅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얼 컬러가 잘 어울리며, 브라운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하면서도 중후한 매력을 풍긴다. 5천만원대, 파르미자니 루미노르 마린 8 데이즈 오토 로스 낙낙한 44mm 사이즈의 케이스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패러미이 고유의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크라운 보호 장치,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가 인상적이다. 2천5백만원대.



투명한 크리스탈 글라스 바카라, 그린, 페를, 블루 등 컬러 크리스탈 심어진 잔 오메가스.

Steady Couple Watche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오메가 드빌 커플 워치 드빌 컬렉션이 예뻐 워치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 때문이다. 드빌 아워바인 오메가코-엑스립 마스터 크로노미터 남성 워치는 세련된 외관과 더불어 메타스 인증을 받은 오메가코-엑스립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3을 탑재해 진보된 기술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디자인 스펙트럼에는 드빌 프레스티지 듀드롭을 추천하는데, 화이트 자개 디자인, 아침 이슬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라그나르 로만틱한 디자인이 가득하다. 41mm 남성 오토매틱 워치 9백만 원대, 27mm 여성 쿼츠 워치 9백만 원대, **카르띠에 글래드 드 카르띠에 커플 워치** 남녀 모두에게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과 열쇠를 상징하는 사파이어 세팅의 크라운이 특징인 컬렉션으로, 작년에 출시된 이후 까르띠에 발롱 블루, 산토스 등을 잇는 새로운 예뻐 워치의 정석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라운을 돌리면 열쇠를 돌릴 때 '탁' 하고 느껴지는 걸음이 손목에 전해지는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40mm 남성 워치 2천2백만 원대, 35mm 여성 워치 5천2백만 원대, **블랑팡 발루레 울트라 슬림 & 우먼 울트라 슬림 커플 워치** 아이코닉한 빗살무늬 디자인이 돋보이는 울트라 슬림 커플 워치, 발루레 울트라 슬림 워치는 개런티 베젤, 빗살무늬의 오픈된 디자인이 솔직한 로즈 골드 케이스와 어우러져 우아하고 정제된 세련미를 발산한다. 더불어 여성 시계는 남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는 에거르르르의 대표 시계다. 마스터 울트라 슬림 남성 워치는 브랜드의 엔드러 라인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로, 칼리버 925를 탑재했으며 8시 방향에 문패지 창을 배치했다. 아이코닉한 로열블루 숫자 인덱스의 왕데부 나잇 앤 데이 여성 워치는 다이얼 중앙에 낮/밤 인디케이터를 장착해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태를 발산한다. 39mm 남성 워치 2천2백만 원대, 34mm 여성 워치 2천3백50만 원대.

Best Couple Watche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몽블랑 스타 클래식 컬렉션**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커플에게 제한다. 레드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자개 디자인, 특유의 광택이 돋보이는 브라운 옐로가이터 스트랩을 장착한 여성 워치는 화려한 디자인의 우아한 매력에 돋보인다. 스틸 케이스에 레드 골드 베젤을 갖춘 스타 클래식 오토매틱 남성 워치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스타 앵클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39mm 남성 워치 9백만 원대, 34mm 여성 워치 1천1백만 원대, **타고로어 아쿠아 레이서 컬렉션** 약간 각진 베젤 디자인으로 강인한 남성스러움이 돋보인다. 6시와 12시 방향엔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9시 방향엔 라그나르 세컨드 카운터가 위치하며 무브먼트 칼리버 16을 장착한 남성 워치, 이와 함께 제안하는 여성 컬렉션은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한 비주 에디션으로 선보인다. 머더모빌 다이얼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매치해 스포티브 매력이 여성스러움을 함께 갖춰 멋진 특이점이 돋보인다. 43mm 남성 워치 9백만 원대, 27mm 여성 워치 2백만 원대, **타르니 CT 60 크로노그래프 & 3 행 조 타르니** 브랜드 창립자인 찰스 루이스 타르니의 이니셜에서 따온 CT60 컬렉션.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남성 스틸 워치는 블루 슬레이 디에 없애 블루 아가죽 스트랩을 매치해 모던하면서도 강렬함을 표현했다. 여성을 위한 CT60 컬렉션은 1시간을 구성하는 60분에 맞춰 60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베젤을 따라 정교하게 세팅했다. 42mm 남성 워치 2천3백만 원대, 34mm 여성 워치 2천2백만 원대, **블가리 블가리 컬렉션** 클래식한 가죽 스트랩과 캐주얼한 스틸 브레이슬릿 사이에서 고민이라면, 골라 브레이슬릿을 눈여겨보자. 베젤을 따라 블가리의 더블 로고를 장식한 남성용 버전은 스틸 케이스에 핑크 골드 크라운을 매치, 스틸 & 핑크 골드 콤비 브레이슬릿과 통일감을 주었다. 레디 바진 컬렉션은 특별하게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에 카보숑 컷 루빌라이트 크라운을 장착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39mm 남성 워치 1천3백만 원대, 33mm 여성 워치 1천1백만 원대, 에디터 **베미진, 권유진, 이자진**

까르띠에 1566-7277 루시에 02-512-6914 몽블랑 02-2118-6053 비블론 콘스탄틴 02-3446-0088 바카라 02-3448-3778 반블리프 아델 00798-852-16123 부쉐론 070-7500-7282 본디남 02-2056-1234 블가리 02-2056-0171 브레게 02-3438-6218 블랑팡 02-6905-3367 사펠 환인 주영리 02-342-0962 에르메스 02-542-6622 에거르르 르 02-3213-2236 오메가 02-2143-7266 위블로 02-2118-6208 타르니 02-3461-5558 타고로어 02-776-9018 타르니 02-547-9488 10 코르스 코요 02-3018-1010 파베리 02-3449-5922 파르미자니 02-310-1737 S.T 듀롱 02-2016-3577 몬테그리파 02-584-3456



비스킷 티 케이스와 밀크 팬톤 딕슨 by 10 코르스 코요, 펜을 보관하는 스테이시-리 딕슨 by 본디남.



romantic Runway

섬세한 레이스 위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잎,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비즈 장식, 그리고 살결이 은은하게 비치는 시어한 소재까지. 럭셔리 웨딩 하우스의 2016 S/S 웨딩 드레스 컬렉션을 통해 살펴본 키워드 여섯 가지.

Trend 1. 3D APLIQUE_Jenny Packham 이번 시즌에는 레이스, 플라워 자수, 비즈 등 웨딩드레스에 가장 흔히 사용하는 로맨틱한 디테일이 보다 입체적인 방법으로 더욱 드라마틱한 면모를 과시한다. 부드러운 실크 오감자에 칼라나 크기가 다른 레이스를 레이어링한 후, 그 위에 다시 자수와 비즈를 겹겹이 쌓아 3D 입체 디테일을 연출한 것으로, 특히 이번 시즌 세인스피아의 낭만 희극 〈한여름밤의 꿈〉의 몽환적인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제니 팩햄의 스프링 컬렉션에서는 이 기법을 백분 활용했다. 부드러운 실크와 시폰이 물에 사뭇히 내려앉은 듯 실루엣이 유려한 드레스에 플라워 자수와 비즈 장식을 섬세하게 더해 디테드레스 위에 꽃잎이 실재로 피어난 듯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 것. 이번 극적인 효과는 맨발로 숲 속을 거니는 보헤미안 신부를 연상케 해 신비롭고 환상적인 컬렉션의 꽃 역할을 했다.

Trend 2. OVER SKIRT_Mira Zwillinger 이번 시즌 가장 주목해야 할 드레스는, 아름다운 보디라인을 살린 슬림한 드레스 위에 가벼운 스커트를 따로 겹쳐 입는 오버 스커트 디자인이다. 이는 캐롤리나 헤라라, 모니크 켈리에, 미라 조윙링거 등의 브랜드에서 대거 등장했는데, 자칫 지루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벨 리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가볍고 풍성한 볼륨감을 더해 스타일리시한 웨딩 룩을 완성한다. 소우 브라이덜의 아성미 대표는 "하녀의 드레스로 두 가지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몸매 감싸는 레이스 드레스에 신부의 베일처럼 가볍고 시어한 시폰 소재의 오버 스커트를 덧댄 미라 조윙링거의 드레스를 참고할 것. 걸을 때마다 가볍게 휘날리는 오버 스커트의 실루엣이 아름다운 신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Trend 3. PLUNGING NECKLINE_Inbal Dror 네크라인을 가슴 아래 혹은 허리선까지 V라인으로 디자인한 드레스가 거의 모든 브랜드의 컬렉션에 등장했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스크라피 디자이너 인발 드로어 역시 허리 라인까지 이뻐하게 파인 V라인 네크라인 드레스를 키 룩으로 여러 벌 등장시켜 주목 받았다. 그는 자신의 주특기인 쿠튀르적인 디테일과 살결이 비칠 정도로 시어한 레이스 소재를 사용해 몸의 곡선을 아름답게 표현한 관능적인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이는 다소 과할 수 있는 노출까지 우아하고 아름다운 보이게 할 만큼 매력적이다.

Trend 4. LONG SLEEVES_Reem Acra 웨딩드레스 하면 마치 정답처럼 떠오르는 튜브 롱 드레스가 식상하다면 팔목 혹은 손등까지 내려오는 롱 슬리브의 드레스를 눈여겨볼 때다. 영국 왕세손비인 케이트 미들턴이 입어 주목받은 롱 슬리브 드레스는 비록 소회하기 쉽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팔이 길고 어깨선이 가벼운 신부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길. 어깨선과 팔을 감싼 롱 슬리브 특유의 디자인이 답답해 보이지 않을지 걱정이라면? 마치 피부 위에 부분적으로 레이스를 얹은 듯 아주 시어한 소재로 만든 림 아크라의 로맨틱한 드레스라면 그런 걱정은 잡아두어도 좋다.

Trend 5. COLOR DRESS_Amsale 순백의 컬러가 웨딩드레스의 정석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형적인 것에서 벗어나 컬러를 선택한 미스드레도 감각적이고 특별한 웨딩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질은 나야미 · 오렌지 · 그레이 컬러의 대담한 드레스를 선보인 잭 로빈슨의 쿠튀르 드레스가 컬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사용한 컬렉션이라면, 좀 더 웨어러블하게 풀어낸 컬러 드레스는 골드 비즈를 눈부신 은하수처럼 은은하게 데한 실금빛의 앙살라 드레스가 대표적. 이는 피부 톤과 자 연스럽게 어울리는 피치 컬러가 화이트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아하고 단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성이 증명할 것이다.

Trend 6. GEOMETRIC PATTERN_Kenneth Pool 패션 트렌드의 영향일까, 플라워와 레이스 모티브가 주를 이뤘던 웨딩드레스의 포인트 디테일이 기하학 패턴으로 확장되었다. 마름모, 부채꼴, 물방울무늬, 직선이 모여 완성한 그래픽 패턴 등 단순하면서도 현대적인 프린트를 웨딩드레스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웨딩드레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시점이라는 뜻. 영화부터 공중, 과일, 카툰 캐릭터 등 두드러진 소재가 발랄한 패턴이 무수히 쏟아지는 패션 월드처럼 웨딩 룩에서도 재미난 패턴을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에디트 권유진



도움말 소우 브라이덜(미라 조윙링거 · 림 아크라 · 제니 팩햄), 이베리엔(쿠튀르 디테일) 사진 제공 PFIF (Jenny Packham)

LONG SLEEVES_Reem Acra

Welcome to Seoul!

지난 10월 파리 패션 위크에서 소개된 에르메스 2016 S/S 컬렉션이 서울에서 고스란히 재현됐다. 새로운수장 나테주 바니-시블스키가 전하는 프렌치 클래식과 에르메스 하우스의 장인 정신, 모던함이 잘 버무려진 컬렉션 현장을 담았다.

서울에서 만난 에르메스의 2016 S/S 컬렉션

에르메스는 하이 소사이어트의 에티튜드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트렌드에도 휩쓸리지 않는 그들만의 고고한 자세로 '모더니즘을 해석해왔다. 1990년대 후반에는 마틴 마르 지엘라와 함께 이방기르드와 해체주의를 논했고, 2003년에는 클래식과는 거리가 멀 것 같았던 패션계의 약동 장 폴 고티에를 영입,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스카프를 활용한 다양한 룩을 선보이며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이후로는 크리스토프 르메르와 함께 뉴 에이지 클래식을 소개해, 한층 실용적인 RTW 컬렉션을 선보여왔다. 그런 만큼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이번엔 어떤 모더니즘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 디렉터로 새롭게 임명된 프랑스 태생의 나테주 바니-시블스키는 매종 마르티엘라, 셸린느, 더 로우 등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활약하는 등 다양한 인터내셔널 브랜드에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이다. 그녀는 이미 작년 3월 2015 F/W 파리 컬렉션에서 첫 번째 컬렉션을 공개했고, 서울에서 선보인 이번 컬렉션은 그녀가 준비한 두 번째 컬렉션이다. 이번 쇼는 디자이너가 직접 방한해 소개하는 컬렉션이라 더욱 의미 있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2016 S/S 여성 컬렉션은 파리에서 미리 선보인 무대와 애프터 쇼까지 완벽히 재현해 갈채를 받았다. 그녀가 소개한 에르메스의 컬렉션은 우아함과 클래식의 재해석을 기본으로 스포츠 정신과 강한 여성미를 강조한 디

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몬드리안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실용적인 의상, 라인과 실루엣을 강조하는 룩, 활동적이면서 여름에 어울리는 가벼운 느낌 등 세 가지 테마로 선보였으며, 하우스의 장인 정신과 최고급 소재 또한 빼놓지 않았다.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과감한 가죽과 실크 소재의 믹스 매치를 통해 새로운 우아함을 정의하기도. 블랙과 블루, 카널리언과 밤색, 그리고 오프 화이트로 마무리한 파날레까지,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 그리고 절제된 실루엣으로 그녀가 생각하는 에르메스의 이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이보영 · 지성 부부를 포함한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542-6622 에디트 이지현

1 에르메스의 2016 S/S 컬렉션 무대본 원본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2 쇼가 끝나자 무대 뒤편이 열리며, 애프터 파티 존이 생겼다. 3, 4 이날 행사장을 찾은 유자태 · 김효진 부부와 고소영. 5, 6 에르메스 2016 S/S 컬렉션 의상을 입고 런웨이 무대를 누빈 모델.



French Twist

'역시' 생 로랑이다. 이 표현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쿄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링 행사에서 이번 시즌도 실망시키지 않은 생 로랑의 2016 S/S 컬렉션을 미리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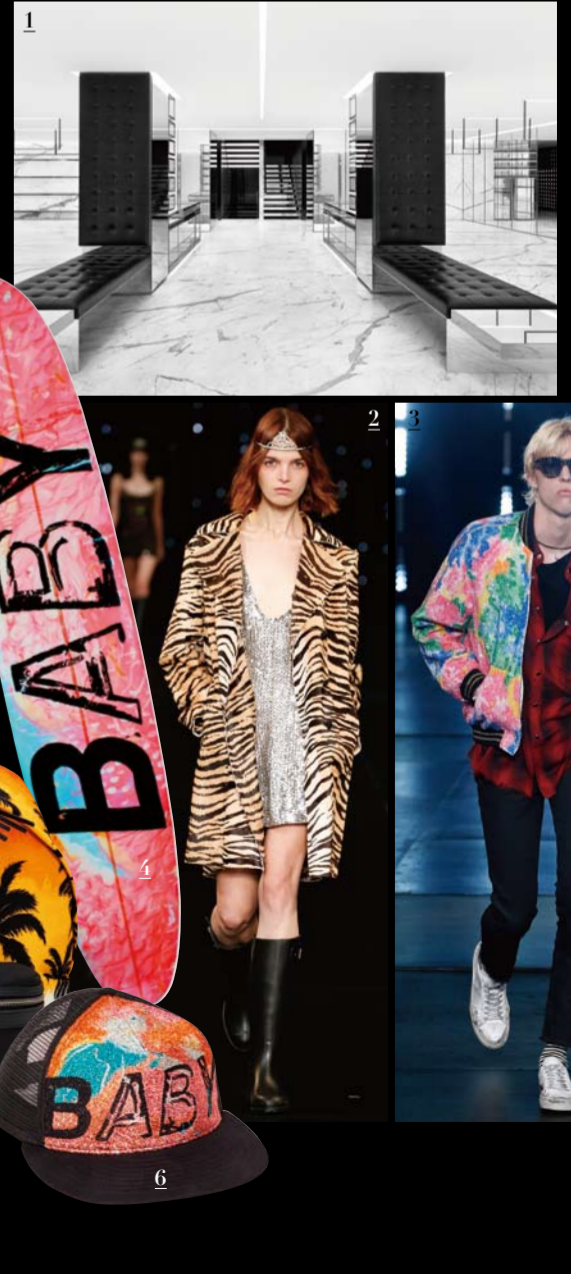
생 로랑 오모테산도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장식이라고는 골드 메탈의 로고가 전부인 투명 유리 외관의 건축물. 하지 만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어느 브랜드의 매장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시크한 오라를 뽐내는 이곳은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에 위치한 생 로랑 플래그십 스토어다. 미니멀한 공간이 이렇게 놀라우리만큼 임팩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생 로랑 스토어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듯 빈틈하고 직선적인 구조가 시선을 압도했다. 여기에 유광 블랙 대리석과 매트한 화이트 대리석, 차가운 브라스 메탈, 블랙 가죽만으로 구성된 인테리어는 직선적인 구조가 주는 특유의 모던함을 더욱 극대화한다. 이번 절제된 시크함 속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의 젊은 감각과 자유분방한 룩 스타일을 담은 컬렉션 룩이 공존한다는 것은 세련된 감각과 위트를 지닌 생 로랑만의 특별한 에티튜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층에는 가방을 포함한 액세서리 존이, 2층에는 슈즈, 액세서리 및 RTW 컬렉션 존이 꾸며졌는데, 곳곳에는 슬리먼의 그린 디자인 생 로랑의 실제 기법과 신발이 들어 있는 거대한 슬롯 머신(고객이 직접 작동해볼 수 있다)과 2016 S/S 서브 사이트 컬렉션의 키 아이템인 사탕 보드를 디스플레이에 볼거리로 재미를 더했다. 2층에는 또 하나의 스페셜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VIP 고객의 프라이빗하고 스페셜한 쇼핑을 위한 직자만 특별한 라운지로, 비밀의 방처럼 설계된 이곳에는 실제 금을 입혀 만든 카디안 골드 아저수와 유명 작가들의 빈티지 가구를 배치해 품격 있고 럭셔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테이블에 놓인 작은 오브제까지 하나의 작품처럼 완성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의 손길을 거쳐 완성되었다.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방문해보길 추천하는 멋진 공간, 그리고 생 로랑 매니아라면 탄성을 지를 만큼 시크하고 아름다운 생 로랑 오모테산도 플래그십 스토어, 아시아 최초, 최대 규모의 매장이라고 하니,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오모테산도 힐스의 투명 유리 건물 속 생 로랑이 선사하는 미니멀리즘의 아름다움을 꼭 즐겨볼 것.

생 로랑 2016 S/S 컬렉션

앞의 글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이번 시즌 생 로랑의 키워드는 '서프 사운드다. 에디 슬리먼이 현재 가장 중언 캘리포니아의 감각을 담아 서프, 음악, 젊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컬렉션은 1990년대 뮤지션들을 보는 듯한 빈티지한 의상으로 채워졌는데 과거에 유행했던 스타일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세련되게 믹스 매칭한 스타일링이 돋보인다. 마치 빈티지 숄더에서 찾을 수 있을법한 아저수, 플라워 프린트 등의 저수 디테일이 다채로운 오버사이즈 카디건이나 열댓 번은 신은 듯 빈티지한 화이트 운동화, 그리고 낡은 듯 연출한 체크 셔츠와 티셔츠의 디테일 역시 매일 입는 편안한 옷처럼 친숙하면서도 새롭다. 남성 컬렉션이 경쾌하고 신나는 룩 무드를 연상케 한다면, 스킨 컬렉션이라는 컨셉 하에 진행된 여성 컬렉션은 1990년대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보다 클래식하고 화려한 쿠튀르적인 느낌이 강하다. 스킨 컬렉션은 사람의 피부 색과 실루엣, 동물의 가죽 등 모든 종류의 스킨을 뜻하는데, 여성이 아름다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런처리 드레스들은 파이톤 소재의 테디 재킷, 혹은 타이거 프린트의 오버사이즈 카디건 등과 함께 매치되어 유닉스 무드를 완성했다. 더불어 타이타늄을 쓰고 등장한 모델들은 1990년대 친분했던 스타의 모습을 연상케 해 1990년대 스타일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문의 02-3438-7628 에디트 권유진(도쿄 현지 취재)

1 블랙 & 화이트의 미니멀한 공간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임팩트 있는 생 로랑 플래그십 스토어 내부. 2 스킨 컬렉션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된 2016 S/S 여성 컬렉션. 3 1990년대 뮤지션들을 연상케 하는 2016 S/S '서프' 컬렉션. 4-6 당장이라도 사탕 보드에 올라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서프' 컬렉션의 액세서리 라인.



Neo classic

럭셔리 모습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고급스러움, 희소성, 장인 정신, 그리고 이러한 목적함에 '유틸리티'를 아우를 수 있는 여유까지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럭셔리'일 테다. <스타일 조선타일>가 벨기에 가죽 브랜드 델보의 CEO 마르코 프로스트를 만나 진정한 '럭셔리'에 대해 들어봤다. *photographed by gu eun mi*



델보 하우스의 과거와 현재

1829년 브뤼셀에서 샤를 델보(Charles Delvaux)가 설립한 델보는 벨기에 왕실에 최고급 가죽 제품을 공급하는 하우스의 명성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와 풍부한 유산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브랜드가 추구하는 환상적이고 우아하고 재치 가득하며 무엇보다 시대에 맞는 고전미를 지속적으로 창조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15일 델보의 2016 S/S 프레젠테이션 현장에서는 1892년, 브랜드가 출발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하우스 아카이브 전시회인 <델보 매종 판타스틱: 전통과 현대 사이에 위치한 역설적 세계>가 함께 개최되었다. 마치 벨기에에 온 듯한 착각이 들 만큼 행사장에는 브뤼셀의 광장 그랑 플라스(Grand Place)와 그곳에 있는 유명한 동상인 오줌싸개 소년 동상 등 브뤼셀의 상징적인 전시물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전시 공간 벽면은 관객들의 몰입을 위해 온통 블랙으로 통일했으며, 조명은 브랜드의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널찍한 테이블 위에는 타초, 갈루사, 리자드, 악어 등 이그조틱 레더와 장인들이 사용하는 여러 도구가 함께 놓인 하우스 공방을 완벽히 재현해 전시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한국을 방문한 귀한 손님이 있었으니, 바로 3천 개가 넘는 델보의 아카이브 디자인 스케치를 담은 골든 북(Livre d'Or)이다. 이 책은 1938년부터 방대한 양의 가방 스케치를 등록한 책인데, 그림과 묘사, 설명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모두 문서화해오고 있다고. 특별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최초로 벨기에를 떠나 한국에서 전시되었다. 이뿐만 아니다. 벨기에 본사 아카이브에서 공수한 브리앙과 탕페트, 마담, 그리고 지브리 등 아이코닉 핸드백의 최초 모델은 물론, 델보의 오랜 창의적 유산을 반영한 이름 가지 버전의 브리앙 유머 컬렉션(Les Humeurs de Brillant)을 함께 공개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쾌한 트위스트, 2016 S/S 컬렉션

델보는 헤리티지에 기반을 두면서도 우아함과 유틸리티를 가미한 모던 클래식을 지향한다.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와 폴 델보(Paul Delvaux) 같은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상상력에서 영향을 받은 브랜드 특유의 기발함이 바로 델보 하우스 디자인의 중요한 유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해석을 꾸준히 디자인에 접목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시

즌에는 프랑스 유명 화가인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와 세르주 폴리야코프(Serge Poliakoff)에게 영감을 받아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과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 라인을 컬렉션에 녹여냈다. 환상과 착시를 테마로 한 이번 2016 S/S 컬렉션은 새빨간 파프리카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피망(Piment)과 봄을 알리는 파우더 리안 톤의 아망드(Amande), 탕(Lin) 같은 새로운 시즌 컬러와 기존 베이식 라인인 누드, 베지탈, 누아 컬러가 함께 어우러진다. 특히 가방을 여닫는 브리앙 백의 플랩 부분에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백 본체와 뒷개 안쪽의 컬러가 대조를 이루게 한 미라쥬(Mirage) 애니메이션은 이번 시즌 차음 선보인 기법으로, 단연 주목할 만하다. 컬러 사용이 작은 변화였다면, 좀 더 과감한 도전은 바로 가방 테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컬렉션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톱 스티칭(top-stitching) 기법은 브리앙과 팡(Pin) 가방의 곡선 면에 따라 100% 수공예 핸드 스티치를 이어 완성했으며, 흑백 대조가 뚜렷한 일루전(Illusion) 애니메이션은 블랙 백에는 아이보리를 포인트로(또는 그 반대로 대조시켜) 프렌치 바인딩 기법을 통해 가방의 모든 커브를 강조한 기법이다. 착시 효과를 주는 일루전 라인은 브리앙과 탕페트, 마담 등 세 가지 모델로 출시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클래식 대명사라는 수식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스포티한 변화를 추구했다. 기존 브리앙에서 가로 사이즈만 더 길어진 '브리앙 이스트/웨스트(Brillant East/West)' 백을 선보였으며, 브리앙과 탕페트 라인을 위한 캔버스 소재 스트랩을 출시했다. 이처럼 델보는 브랜드의 클래식한 시그니처 제품을 재탄생시키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예를 백을 고르는 기준, 변치 않는 가치

예를 백을 고를 때는 서른 번째 결혼기념일에 들어도 좋을 만큼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백으로 골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델보의 '브리앙(Brillant)' 백은 로고 하나 없이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아한 품격이 배어 있는 델보의 아이코닉한 핸드백인 브리앙 백은 1958년에 열린 브뤼셀 월드 페어에서 폴 고에탈(Paul Goethals)이 디자인한 것으로, 간결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광택이 흐르는 가죽, 브랜드의 이름을 상징하는 'D' 버클 장식이 어우러져 견고한 맛을 발하는 제품이다. 깊은 역사를 담은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모델은 이뿐만이 아니다. '탕페트(Tempete)'는 고급스러운 실루엣에 금속 장식을 더한 디자인으로, 매 시즌 다양한 사이즈와 컬러로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양중맞은 박스 형태의 '마담(Madame)' 백은 1977년에 처음 소개한 '마로니에(Marronnier)' 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로, 델보를 가장 경제학계 즐길 수 있는 백이기도 하다.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백을 고르거나 하면 된다. 문의 02-3449-5916 **에디터 이지연**



1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할 일루전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했다. 블랙과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 가방의 모든 커브를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 2 브랜드의 상징인 아카이브를 통해 델보의 자취를 보여준 <델보 매종 판타스틱> 전시장. 3 브리앙 백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스페셜 피스 중 하나. 4, 5 피플을 위해 준비한 델보의 시그니처 백 이름을 딴 커피숍. 6 벨기에 왕실 공식 가죽 제품 납품 허가 문서 등 브랜드의 역사적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7 델보 하우스의 공방을 완벽하게 표현한 코너. 8 1938년부터 기록된 3천 개가 넘는 델보의 아카이브 디자인이 담긴 골든 북(Livre d'Or). 9 델보의 2016 S/S 시즌 컬러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소용 박과 포디움에 보이게 했다. 10 플랩을 열린 가방 내부의 미팅 컬러가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브리앙 미라쥬 링-팡 GM 사이즈.



interview **마르코 프로스트**(Marco Probst, 델보 CEO)

"우리는 결코 패션 트렌드를 좇지 않습니다. 1백80년 동안 축적된 델보의 아카이브에서 아이디어를 얻죠."

자. 현재 이어 새로운 컬렉션을 소개할 때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한국을 찾았다.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프레젠테이션에 모두 참석하진 못할 테.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 사실 한국은 1년에 두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마켓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한국을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고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델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오늘날처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으면, 행사에 참여해 직접 컬렉션을 설명하며 유대감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저의 이미지와 바로 델보의 이미지일 테니까요. **자. 이번 S/S 시즌에는 미모사 컬러의 서클 에디션이 선보였다. 올해도 한국을 위한 익스클루시브를 만들 수 있-?** 아직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번 해 말씀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델보의 모든 컬렉션은 1백 개에서 2백 개 사이만 만들기 때문에(최대 5백 개까지), 컬렉션 자체가 익스클루시브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예비 신부들 결혼 전 선물을 주고받는 '예물'이 문화가 있다. 그리고 예비 신부들이 예물 백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델보의 브리앙 백이라고 들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매출에 많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예물 문화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 사실 워밍 예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델보가 리스트에 올랐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매출 기여도는 밝힐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예비 신부들이 예물 '브리앙' 백을 구입한다는 것인 겁니다. 이후에도 브리앙의 타임리스한 디자인 때문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델보 하면 '헤드 인 벨기에'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궁금하다. 델보는 이미 벨기에 그 자체입니다. 벨기에를 뛰어넘어 아티스트와 흥미롭고 새로운 것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방(이탈)을 존경하는 전통이 한때 어우러진 나라죠. 이런 대비되는 모습 사이에서의 균형이 바로 벨기에를 만듭니다. 클래식함과 유틸리티가 공존하는 벨기에의 이미지를 델보의 컬렉션을 통해 대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델보가 추구하는 여성상은 무엇인가? 어떠한 여성들이 델보를 사랑하고 백을 들었으면 하는지, 우리는 단 한 명의 유즈에 델보를 가꾸어주기보다 그 기회를 누구에게나 열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델보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 우리가 정형화한 이미지로 브랜드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또 델보는 남성 컬렉션을 함께 소개하. 남성들에게도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해주고 싶군요. 이번 시즌 역시 유명 아티스트에게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티스트와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유는?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이 깃든 델보 제품은 이미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잘 아우르는 비결이 바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델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크리스티나 젤라가 이젠 페어나 뮤지엄에서 본, 혹은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우리는 그걸 당장 새로운 컬렉션에 접목하기 보단, 오랫동안 천천히 가장 델보스러운 게 무엇인지 함께 고민합니다. **정통 가죽 브랜드에서 캔버스 소재 스트랩을 출시해 의외였다. 몇 시즌째 패션계에 이어지는 '럭셔리 스포티브' 트렌드를 반영한 건지, 델보는 패션 브랜드가 아-기 때문에 결코 트렌드를 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델보의 아카이브나 헤리티지와 함께 일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델보가 추구하는 아이디어들은 이미 골든 북에 저장되어 있어, 사때에 따라 새로운 소재나 디자인을 정독해 조금씩 변형시킵니다. 아카이브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재탄생한다고 할 수 있죠.******



1 모든 여성의 소망이자 웨딩 링의 상징인 티파니 세팅 링.
 2 오직 티파니 다이아몬드에에서만 발행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
 3, 4 독창적인 연마 기술과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적용해 세팅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의 기법은 영원하다. 5 티파니의 광고 비주얼은 아름다운 웨딩의 상징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치 진주가 다이아몬드를 물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의 인클루젼 링, 최상급 옐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화려한 브릴리언트 가드 링, 최상급 12mm 남양진주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타사키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밸런스 클래스 링, 4개의 프롬이 1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쳐줘 반짝임을 극대화한 쇼노 슬러터 링, 심플하지만 최고의 세팅력으로 소중가치가 높은 피아피에 1캐럿 다이아몬드 슬러터 링, 화려하게 세팅한 밴드에 1.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바운드 슬러터 링, 최상급 옐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화려한 피아피에 가드 링 모두 타사키.

diamond Excellence

진주의 명가로 잘 알려진 타사키가 다이아몬드에 있어서도 최고라는 사실을 아는지. 동아시아 유일의 '사이트홀더' 자격으로 상위 1% 다이아몬드를 만들며 '엑셀런트(excellent)' 등급을 탄생시킨 타사키는 진정한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란 그 본연의 자태가 숨겨지기보다는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던 티파니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 그 정신을 이어온 지 올해로 1백30년. 켈리타와 디자인에서 다이아몬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온 동시에, 숭고하고 진정한 사랑의 증표로 통하는 티파니 세팅 링 스토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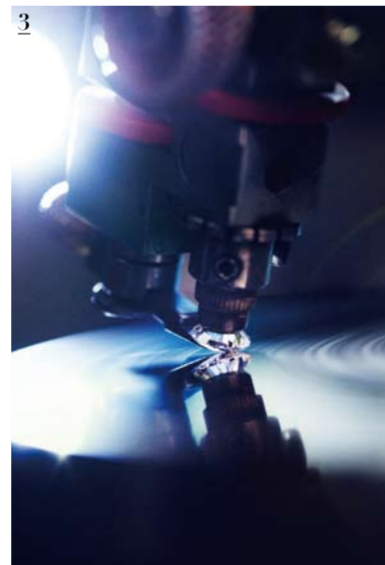
티파니 세팅, 1백30년의 경이로운 전설

티파니가 2009년 4월 (뉴욕 타임스)에 게재한 티파니 세팅 링 제품 광고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일생 동안 당신의 그녀는 이 반지를 1백만 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웨딩 링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1837년, 지금으로부터 1백79년 전 뉴욕에서 시작되어 웨딩 링의 대명사이자 세계 최고의 주얼리 브랜드가 된 티파니의 웨딩 반지는 원석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세공되어 하나의 링으로 탄생되기까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원석뿐만이 아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디자인을 만나 비로소 진정한 티파니 웨딩 링으로 완성된다. 이미 1886년, 원석 고유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살리지 못한 초보적 수준의 세팅을 적용하던 기존 다이아몬드 링 디자인에 혁신을 가져온 브랜드가 바로 티파니다. 6개의 플래티넘 프롬 세팅으로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분리시킴으로써 빛의 투과율과 광채를 극대화한 새로운 개념의 다이아몬드 웨딩 링을 선보인 것. 오늘날 '티파니 세팅' 링으로 불리는 이 반지는 획기적인 디자인과 남달리 눈부신 광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웨딩 링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프러포즈의 전통을 대중화했다. 티파니 창립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탄생시킨 이 매혹적인 반지는 하나의 전설로 남아,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변함없이 사랑받으며 전 세계 수많은 커플들의 특별한 러브 스토리와 함께했다. 티파니의 정신은 현재 창립자의 숭고한 신념을 이어가는 장인들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술적인 주얼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온 그들은 반지를 착용할, 행복한 꿈으로 가득 찬 신부를 떠올리며 최상의 결과물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 창시자 티파니가 의도했던 티파니 세팅 링의 역사가 1백30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바로 그러한 장인 정신일 것이다.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이 결합된 마스터피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가운데 오직 0.04%만이 티파니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선별한 극소수의 다이아몬드 링이라면 평생의 삶을 약속한 피앙세에게 헌정하기에 최고의 반지가 아닐까. 티파니는 다이아몬드에 흔히 적용되는 네 가지 기준인 컷(cut), 컬러(color), 캐럿(carat), 투명도(clarity)를 의미하는 4C와 함께 외관(presence)에 대한 개별 등급도 측정한다. 외관이라 함은 완벽에 가까운 외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다이아몬드를 위한 조건을 뜻한다. 커팅의 정확성과 대칭성, 연마 상태까지 평가하지만 다이아몬드를 고

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채.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연마사들은 캐럿을 증시해 커팅하는 다른 다이아몬드 연마사들과 달리 원석의 절반 이상이 손실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최고의 광채를 우선시해 커팅한다. 바로 이 커팅의 차이가 전설을 만드는 셈이다. 동시에, 티파니는 주얼리 브랜드 중 유일하게 ISO9001 인증을 받은 최첨단 시설과 전문 지식 갖춘 보석학자로 구성된 자체 감청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곳에서 오랜 시간 수 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탄생한 티파니 다이아몬드에는 완벽한 품질을 보증하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증서'가 주어진다. 이 증서는 타 감청서와는 달리 완벽함에 대한 티파니의 자부심인 동시에 고객을 위한 평생 보증의 약속이다.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 타사키

땅속 깊은 곳에서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영겁의 시간을 거쳐 완성되는 다이아몬드. 그 기적의 빛을 최상의 모습으로 담아내려는 타사키의 집념은 커다란 사명감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평생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랑을 약속하며 나누는 결혼반지의 소재로서 부족함이 없다. 1954년 일본에서 탄생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는 동아시아 유일의 '사이트홀더'다. 사이트홀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SS(De Beers Global Sightholder Sales)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마케팅과 가격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원석 평가 능력과 연마 기술이 뛰어난지도 심사 대상이기에, 오직 전 세계 82개 사만이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홀더로서의 타사키를 대표해 DBGSS에서 직접 원석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은 디안타르(프랑스어로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에스타티나 마스노부 씨. 심리 면접과 필적 감정, 거짓말 탐지기 등 4~5년간의 정식 검사를 거쳐 디안타르의 자격을 얻은 그는 지난 30여 년간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컬렉션 전체를 책임져온 다이아몬드 스페셜리스트다. 5주에 한 번 고베 본사를 떠나 런던의 DBGSS에서 수십억 엔짜리 원석을 거래한다. 지금까지 60만 개의 원석을 살펴보고 구입을 결정했었는데, DBGSS의 CEO조차 그에게 다이아몬드를 구입할 정도로 최고의 인목을 자랑한다. 이처럼 다이아몬드를 자체 감청해온 타사키는 자체 연마도 고집한다. 아무리 좋은 원석이라도 정교한 커팅을 거쳐야만 비로소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태어나는 법. 타사키는 'very good'이라는 기준을 넘어 'excellent'라는 커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다이아몬드의 세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킨 주역이다. 'excellent'은 완벽한 비율과 대칭, 마무리 등 다이아몬드 품질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기준 중 최고로 높은 단계를 칭하는 용어로, 타사키가 최초로 만든 등급. 그럼에도 인주하지 않고 한층 기술을 높여 3EX(트리를 엑셀런트) 컷을 실현했으며, 그들의 피땀 어린 장인 정신에 허를 내두를 수밖에. 오직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는 치열한 자제를 고수했기에, 원석 준비부터 보석 세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두 담당하며 진주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업계에서도 세계적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름다운 피앙세를 위한 타사키 다이아몬드

사랑하는 피앙세를 위해 고른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세상 어느 것보다 특별하고 반짝이는 사랑이 영원히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특별하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특히 이 소중한 순간에 어울리는 다이아몬드로 타사키의 제품이 제격인 이유는 품질, 창의성, 장인 정신이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이다. 4C(컬러, 컷, 투명도, 캐럿)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품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타쿠키의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 그리고 0.01mm

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바로 그것. 이처럼 다이아몬드의 명가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기에 타사키에서 제안하는 브라이덜 컬렉션은 충분한 믿음을 선사하는 데다 독창적인 디자인 덕에 미학적으로도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전한다. 순백의 신부를 위한 슬러터 링 '피아피에', 바운드,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스 솔로 링' 외에 실용적인 밴드 링도 다채롭게 갖추고 있다. '리블로' 컬렉션은 꽃잎을 연상시키는 구불구불한 곡선 라인이 특징이며, '피아노' 컬렉션은 피아노 건반에서 모티브를 얻은 중성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커를 링으로 반응이 좋다. '인피니타' 컬렉션은 여러모로 쉽게 알고 우아한 곡선으로 완성한 라인. 타사키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은한 빛깔 테마의 SAKURAGOLD™ 컬렉션은 세계 특허를 받은 기술로, 타사키의 주얼리에 특별함을 더하는 요소다.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브라이덜 컬렉션을 마련한 타사키에서는 웨딩 시즌을 맞이해 특별한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간과 가격에 상관없이 2세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타사키에서 특별 제작한 고급스럽고 심플한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 2인함을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진주 장식 프린세스 타이타를 대어준다. 리본 모양 디테일에 진주를 세팅한 타사키의 프린세스 타이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한 신부를 더욱 환하게 빛낼 것이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이지연

1 사이트홀더 자격의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타사키의 세공 과정. 2 18K 화이트 골드 6mm 아보와 진주와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스 솔로 링. 3 주얼리를 2세트 이상 구매할 고객에게 리본 디테일의 진주를 세팅한 1억원 상당의 타이타를 무료로 대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가격, 기간과 상관없이 2세트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는 타사키에서 특별 제작한 화이트 컬러의 2인함.



Design your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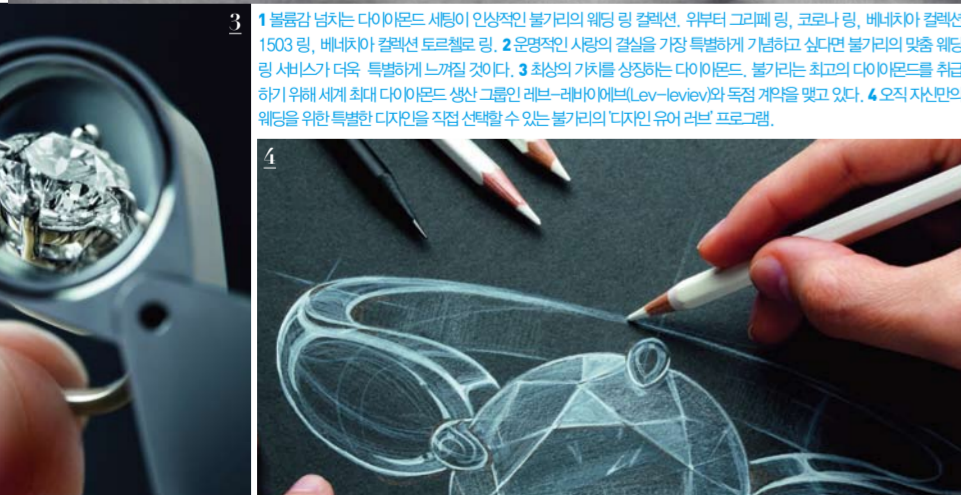
어떤 신부가 완벽하고 독창적인 웨딩 링의 송고한 아름다움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세월 동안 주얼리의 명가로 자리매김해온 불가리아 2016년을 맞이해 맞춤 웨딩 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별한 웨딩을 위한 현명한 선택, 맞춤 웨딩 링

첫눈에 반해 운명을 예감한 아주 특별한 만남처럼, 단 한 번의 눈길로 맺어져 영원한 배필이 되는 솔 메이트와의 운명적 만남처럼 열렬한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 불가리아 맞춤형 웨딩 링 제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바로 2016년부터 시작하는 '디자인 유어 러브(Design Your Love)' 서비스. 매장에 준비된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웨딩 반지를 완성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가치 소비가 자리 잡으면서,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그 아이템 고유의 가치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 반지라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속도와 변화만이 현대사회의 미덕이라 여겨지는 쓸쓸한 현실 속에서 불가리아 여전히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과 열정, 대를 잇는 헤리티지로 'timeless'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가치를 품은 브랜드가 아닌가. 우선 '토르첼로', '1503', '스피가', '그리페' 컬렉션 중에서 자신의 취향에 맞춰 디자인과 사이즈를 고른다. 다음으로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 가운데 0.2캐럿에서 1캐럿까지 크기를 선택하고 캐럿, 컷, 투명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엄선한 다이아몬드를 결정하면 다이아몬드의 GIA 보증서를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만의 은밀하고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담은 인그레이빙도 추가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선택한 웨딩 반지를 3D를 통해 가상으로 착용해볼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 이메일이나 SNS로 전송해 기다림의 설렘을 만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된 디자인은 불가리아 이탈리아의 세팅 작업을 거쳐 오롯이 나를 위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다이아몬드 링으로 탄생한다. 동시에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스토리가 담긴 웨딩 반지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시간이라는 변수로도 퇴색되지 않는 그 가치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로맨틱시즘을 극대화한 베네치아 컬렉션

이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다이아몬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빛을 사방으로 반사하는 특별한,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보석, 영원한 아름다움. 다이아몬드를 수식하는 수많은 단어가 말해주듯 다이아몬드 링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자리에 가장 잘 맞는 보석으로 여겨진다. 불가리아는 2000년 다이아몬드 웨딩 주얼리 '브릴리언트 드림' 컬렉션을 선보인 이래, 결혼을 앞둔 신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5년부터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그룹인 레브-레비에브(Lev-leviev)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최상 등급의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선보임으로써 신뢰를 배가했다. 현대적인 장비와 시설을 갖춘 불가리아 보석 센터의 감정사들은 브랜드의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등급을 매기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같은 불가리아의 세심한 배려와 주의 깊은 관리를 통해 완성된 결혼반지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증하는 GIA 다이아몬드 감정서, 불가리아의 보증서와 함께한다. '베네치아'는 이런 엄격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불가리아 대표 웨딩 컬렉션이다. 16세기 초반 베네치아에서 시작된, 다이아몬드 약혼반지를 선물하며 결혼을 약속하는 전통을 기념하는 컬렉션이다. 베네치아 컬렉션의 '토르첼로' 링은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 느껴지는 솔리테어 링으로, 다이아몬드 고유의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반지다. 결혼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웨딩 링이 1503년 베네치아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통임을 의미하는 '1503' 반지는 솔리테어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옆 라인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이탈리아 특유의 로맨틱시즘을 한껏 발산한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밀 이삭에서 영감을 받은 '스피가' 컬렉션은 유니크한 밴드가 매력 포인트. '그리페' 컬렉션은 라운드, 에메랄드, 오벌, 하트 등 다양한 컷으로 선보여 선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토르첼로', '1503', '스피가', '그리페'로 구성된 베네치아 컬렉션은 새로운 맞춤 서비스 'Design Your Love'를 통해 자신의 손 모양과 사이즈, 취향에 딱 맞는 웨딩 반지로 재탄생할 것이다. 불꽃 같은 사랑을 기리기 위해 불가리아 창조한 특별한 사랑의 서약.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와 함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순간을 기념해보길, 문의 02-2056-0171 에디터 배미진



1 불꽃같은 다이아몬드 세팅이 인상적인 불가리아 웨딩 링 컬렉션. 윗부터 그리페 링, 코로나 링, 베네치아 컬렉션 1503 링, 베네치아 컬렉션 토르첼로 링. 2 운명적인 사랑의 결실을 기념 특별하게 기념하고 싶다면 불가리아의 맞춤 웨딩 링 서비스도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다. 3 최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불가리아는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취급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 그룹인 레브-레비에브(Lev-leviev)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다. 4 오직 자신만의 웨딩을 위한 특별한 디자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불가리아 '디자인 유어 러브' 프로그램.

modern & Ar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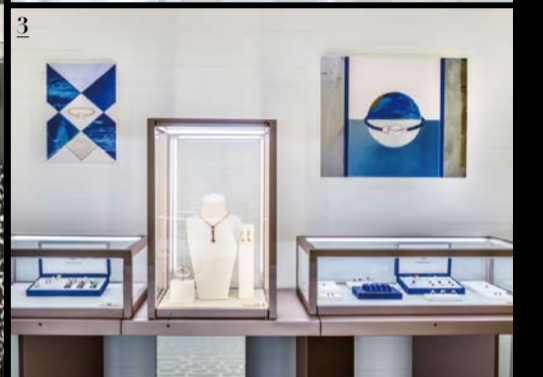
모던하고 웨어러블한 프레드 주얼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현대 여성의 마음을 흔치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주얼리 가문에서 성장한 프레드 사무엘의 빛, 바다, 그리고 삶의 기쁨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모던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 사무엘

1908년에 태어난 프레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컬러 스톤을 분류하는 아버지, 보석이 반사하는 다채로운 빛을 즐기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그 후 보석 달러인 사무엘 & 르네 워름스(Samuel & Rene Worms)사에서 견습생으로 경험을 쌓았고, 사미키토(Samikito)의 인조 진주를 취급하는 워름스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얼리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졌다. 1936년, 프레드 사무엘은 드디어 모던 주얼리 -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새긴 첫 컬렉션을 만들고 미래 지향적인 보석을 디자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화려하고 정교한 스타일보다는 곡선과 비대칭 형태가 돋보이는 그래픽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통해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모던한 아름다움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했던 그 시절, 프레드 사무엘은 장 콕토, 후지타, 키키 드 파파르나스 등과 교류하며 선구적인 아티스트들과의 창의적 협업을 즐겼다. 1960년대에는 브라크, 샤갈, 그리고 뷔페 같은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공동 작업을 했는데, 덕분에 톱 셀러브리티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모나코 왕가의 주얼리 이기도 했던 그는 금부상한 영화 산업을 위해 수많은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주얼리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1970년대에는 '프레드 스타일'이 확립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주얼리를 일상생활에서 스타일리하게 즐기길 원했고, 추상적이고 그래픽적인 프레드의 주얼리는 당연히 주목받았다. 유색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프레드 사무엘은 네덜 왕족 중 한 커플이 의뢰한 왕궁 의상, 사리에 어울리는 주얼리를 디자인해 명성을 얻었다. 아른아른하게 비치는 밀터컬러 실크에서 영감을 받아, 다양한 컬러의 사파이어를 활용한 디자인이었다. 이후 '진정한 다이아몬드 전문가'로 칭송받게 된 프레드는 1977년 펜시엘로 컬러의 솔리테어 도르르 선보였는데, 이는 총 중량이 105.54캐럿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다이아몬드 중 하나였다. 10년 후, 프레드의 아들 앙리가 프레드 하우스의 명성을 계승했다. 그는 갤러리 라파예트(Galleries Lafayette) 백화점의 오픈을 기념하는 프레드 주얼리 전시회를 통해 현대적이고 매력적인 주얼리 매종의 성공적 대물림을 입증했다.

빛과 바다, 그리고 강인함

프레드 사무엘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들의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길 원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지만 인생의 반을 프랑스 서부 프렌치 리비에라에서 보낸 그가 소중히 여겼던 바다와 빛은 삶의 원동력이자 디자인의 바탕이 되었다. 그는 "전 물고기로 태어났어야 했어요! 미려한 리비에라 해변과 몬테카를로는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그림 같은 곳들은 각 보석의 경이롭고 매혹적인 빛을 끌어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강한 스포츠맨이었던 그의 광활한 바다에 대한 동경은 유럽 요트 챔피언이 된 그의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프레드의 시그니처 컬렉션 '포스텐(Force 10)'의 탄생은 1966년, 프레드 사무엘의 맏아들이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세상에 하나뿐인 브레이슬릿을 디자인하면서 비롯되었다. 섬세하게 꼬아 만든 세일링 케이블과 닳고리 형태의 골드 버클 디자인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이 상징적 브레이슬릿은 우아하면서도 현대적이다. 이름 자체로 강인함을 상징하는 포스텐은 다채로운 컬러 베리에이션과 함께 놀이와 같은 즐거움을 준다. 다양한 버클과 수많은 컬러 케이블의 조합을 통해 완성되는 1천 가지 이상의 브레이슬릿 중 남녀 누구든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나만의 브레이슬릿을 소유할 수 있다. 모던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FRED)는 루이 비통 모에 헤네시(LVMH)의 일원으로 갤리아 명품관 이스트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2F 럭셔리 부티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F 럭셔리 부티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514-3721, www.fred.com



1 지난 12월 10일,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던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FRED)가 창시자이자 총괄 책임자 부티크를 오픈했다. 2 1976년 모나코의 프레드 부티크 오픈 파티에 참석한 그레이스 켈리와 케롤라인 공주. 3 모던 프레드 매장의 상징인 내부는 빛과 향의 의미를 상징시킨다. 내부의 쇼케이스들은 핑크 골드 빛의 독특한하고 고상한 광택을 띠며,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벽면의 프레스코화는 장미의 인생과 압착을 되새겨 준다. 4 프레드의 포스텐(Force 10) 링과 캄베인, 1968년. 5 프레드의 전 세계적 베스트 셀러 포스텐(Force 10) 컬렉션은 섬세하게 꼬아 만든 세일링 케이블과 닳고리 형태의 골드 버클 디자인이 멋진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브레이슬릿. 포스텐은 매 시즌 화려한 컬러와 다양한 소재의 획기적인 재료를 선보인다. 6 스톤을 바꿀 수 있는 팄 드 슈크르(Pain de Sucre) 컬렉션은 태양을 떠났던 영혼 빛의 아름다움이 특징이다. 리우데자네이루 민의 다채로운 태양빛을 표현했다.

The New Maison Fred

파리 방문 광장에 인접한, 파리 14구의 심장 루드 라 페거리 14번지(14, Rue de la Paix)에 뉴 매존 프레드(The New Maison Fred)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프레드 보석의 아이덴티티인 빛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가 위베르 드 말레브르(Hubert de Malherbe)는 "사육을 바라보고 있는 매를 통해 살면서 들어오는 은은한 빛은 프레드의 유려한 주얼리들과 너무 잘 어울리며 보석의 광택을 한 단계 상승시켜준다"라고 말했다. 지하에 미술의 광장과 넓은 아치형 창식의 외관, 천문 너머로 보이는 금속 질감의 커튼, 은은한 금빛이 조화를 이루는 하얀 벽면 등은 남부 특유의 분위기를 선사한다. 매장에 걸린 추상화는 지중해의 깊고 찬란한 파란색으로 채색한 바다를 표현하는 동시에 프레드 사무엘의 열정을 대변한다. 진주 거울, 금 목걸이, 나석 등 귀중한 프레드 사무엘의 개인 소장품과 생전 그가 수집했던 진귀한 사적으로 가득한 서재도 둘러볼 수 있다. 뉴 매존 프레드의 따뜻하고 유쾌한 분위기, 오래 머물고 싶은 인형들과 친근함 속에서 프레드의 모든 주얼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에센스 명가, 코스메 데코르테

처음으로 에센스 개념을 탄생시킨 '에센스 명가'이자, '보라색 에센스'로 뷰티업계에서 퍼스트 에센스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주인공, 그리고 1백58만원 상당의 초호화 안티에이징 럭셔리 크림을 선보여 센세이션을 불러오고, 독보적인 재생 안티에이징 라인으로 상류층 고객들에게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 이는 바로 하이엔드 코스메틱 브랜드, 코스메 데코르테(이하 '데코르테')에 대한 이야기다. '코스메 데코르테' 하면 떠오르는 보라색 보틀의 '모이스처 리포솜'은 2002년 등장 당시, 세안 후 가장 첫 단계에 바르는 부스팅 수분 세럼이라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수많은 미투(me too) 상품을 탄생시킨 데코르테의 대표 에센스다.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단 한 번의 업그레이드 없이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데코르테만의 독보적인 달리버리 시스템 때문. 피부 유효 성분을 안전하게 캡슐화해 피부 속 깊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비단 모이스처 리포솜뿐만 아니라 데코르테의 럭셔리 안티에이징 라인인 AQ 밀리오리테, 재생 라인인 AQMM 등 각 라인의 특징에 맞는 캡슐을 개발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데코르테의 차별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모이스처 리포솜이 대중적인 아이코노미라면, 알 만한 사람만 쓰고 진정한 VIP만이 경험할 수 있는 데코르테의 진수는 바로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 'AQ 밀리오리테'다. 정자수가 아닌 1년 중 단 몇 주만 추출할 수 있는 귀한 자작나무 수액을 사용하고,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두 가지 펩티드를 결합한 다들 펩티드를 비롯해 항노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풍부하게 함유한 흑대두 추출물 등 21가지 엄선한 프라스티지 유효 성분을 담았다. 더불어 모호시안 고세의 오렌 노히유와 가솔릭, 데코르테만의 피부 과학을 응집해 최상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니, 모든 면에서 신비할 만한 코스메틱 라인이다.

골든 타임을 공략해 피부의 운명을 결정하다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피부에도 타이밍, 즉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피부가 28일을 주기로 턴오버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정설이지만, 이 중 단 7일간의 골든 타임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다. 데코르테가 주목한, 과립층에서 각질층으로 향하는 7일간의 피부 생체 리듬은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피부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럼 이 시기에 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데코르테는 24시간 동안 시간별로 달라지는 피부 환경에 주목해 낮과 밤의 피부 상태에 따른 맞춤 케어 제품인 'AQ 밀리오리테 W 컨센트레이션 데이 & 나이트'를 선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부 건강은 점점 더 약순화해 빠지는데, 이를 차단하고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골든 보틀의 낮 전용 세럼과 블랙 보틀의 밤 전용 세럼, 이 두 가지를 한 세트로 구성한 AQ 밀리오리테 W 컨센트레이션은 낮과 밤의 차별화된 케어를 신비해 하루 종일 피부에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준다. 낮에 사용하는 데이 세럼은 방어와 보습 기능을 강화한 피부 유효 성분인 데이 액션 CX를 배합해 피부가 가장 많이 손상되는 낮에 피부를 철저히 방어함으로써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 또 보습 활성 효과가 높은 엄선한 미용 성분과 식

물성 에몰리언트 성분 등 피부에 필요한 요소를 아낌없이 배합해 칙칙하고 건조한 피부를 맑고 기품 있는 귀족 피부로 가꿔준다. 골든 타임을 위한 또 하나의 비밀 병기, 나이트 세럼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나이트 액션 CX 성분을 담아 낮에 자극받은 지친 피부의 피로를 풀어주고,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피자과과 유사한 성분인 올리브 스펀젠과 식물성 오일 등 침투가 빠르고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난 성분들 농축해 하룻밤 사이에 숙면을 취한 듯 맑고 탱탱한 피부로 가꿔준다. 들쭉날쭉한 몸의 컨디션처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피부 컨디션. 이를 바로잡고 24시간 내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데코르테의 AQ 밀리오리테 안티에이징 듀오로 피부의 골든 타임을 꼭 잡아보도록. 30ml X 2 68만원대. 문의 02-3466-3600 에디터 권유진

바르는 즉시 피부를 탄력 있게 조여주는 효과 "데이 세럼과 나이트 세럼 둘 다 텍스처가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끈적이지 않고 피부에 싹 쓰여드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자기 전에 나이트 세럼을 얼굴, 목, 데콜레까지 듬뿍 발랐는데 자는 동안 베개에 묻어지지 않아 만족스러웠죠. 데이 세럼이 좀 더 싹뜻한 마무리감으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화장이 밀리거나 뭉치지 않는다면, 나이트 세럼은 보다 깊이 있고 풍부한 질감으로 피부에 막을 씌워 피부가 편안하게 릴랙스 되는 느낌이예요. 더불어 두 가지 세럼 모두 바르는 즉시 피부를 탄력 있게 조여주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장점 중 하나죠. 사용 후 일주일이지나니 피부에 유통기가 아닌 진정한 윤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평소 건조하면 뷰티 루틴을 선호해 토너 후 데이 & 나이트 세럼만 발라도 충분했지만, 보다 강력하고 빠른 시너지 효과를 원한다면 클렌징 크림부터 로션, 크림, 아이크림 등 다양하게 구성된 AQ 밀리오리테 라인을 함께 사용해보는 것을 추천해요."_by (스타일 조선큐노) 에디터 권유진

과학적인 접근과 안정적 인슐루션이 돋보이는 세럼 "죽은 세포가 썩어 피부 각질층이 두꺼워지다가 떨어져 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면서 피부가 유지되는 것을 피부 재생 주기라고 해요. 보통 4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각질의 양도 증가하고 이 각질층이 탈락되는 속도가 더디지면서 새로운 세포의 생성이 저하되죠. 결과적으로 피부 재생 주기가 흐트러지면서 피부가 노화되고 항가지는 것이죠. 이런 피부의 턴오버 주기에 착안해 일부 피부 레이저들은 각질 탈락과 재생 촉진은 인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피부 재생 주기를 원활히 하도록 도움을 줘요. 이런 원리처럼 AQ 밀리오리테 W 컨센트레이션 세럼 역시 피부 주기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킨으로써, 피부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피부 임상 상황에서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다들 펩티드 성분부터 귀한 자작 나무 수액 등 피부에 유효한 성분을 담았다는 점에서 신뢰가 갑니다. 피부 자체의 노화 원인을 피부 재생 주기에서 찾아내고, 그 안에서 방어하는 약순화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과학적인 접근과 안정적 인슐루션이 돋보이는 제품이에요."_by 린 클리너 원장 김세현



golden Time

피부를 위한 골든 타임, 7일, 피부 턴오버 주기인 28일 중 단 7일간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운명이 달라진다. 데코르테 AQ 밀리오리테 W 컨센트레이션 데이 & 나이트는 피부 주기에 맞춘 24시간 집중 트리트먼트 효과로 피부의 근본을 다스리는, 또 다른 센세이션을 일으킬 코스메 데코르테의 안티에이징 듀오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orset effect

이제 걸 탄력이 아닌, 속부터 차오르는 볼륨이 만들어내는 탄력이 젊고 건강한 얼굴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 피부 속 탄력을 잡는 비법을 찾고 있다면 프레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르셋 탄력 세럼과 오버나이트 마스크가 만난 '블랙티 코르셋 듀오' 케어를 주목할 것. 피부를 코르셋처럼 꼭 조이고 당기고 촘촘히 매우는 과정에서 진정한 시너지 효과가 구현될 테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코르셋처럼 당기고 조이는 탄력 솔루션

진정한 안티에이징 케어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겨울이라는 환경은 피부에 너무나 가혹하기에 이를 적절하게 방어해줄 요소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급격히 떨어진 온도와 매서운 칼바람은 물론 건조한 환경과 실내·외의 극명한 온도 차이로 피부는 탄력 없이 늘어지고 쉽게 건조해지며 안색은 칙칙해지고 피부결은 날로 거칠어져간다. 블랙티 컬렉션으로 효과적인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안해온 프레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중대한 연구 결과를 담아 '블랙티 에이지 딜레이 퍼밍 세럼'을 만들었다. 첫 번째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랙티 콤플렉스 성분을 담은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차를 즐겨온 동양의 문화 중에서도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곰부차에 주목했고, 블랙티 발효물, 블랙베리 잎 추출물, 리치 시드 추출물 등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성분으로 완성한 블랙티 콤플렉스를 통해 드라마틱한 탄력 효과를 전한다.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세럼을 위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작용하는 허니 서클 잎 추출물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섬세하고 가벼우면서도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플루이드 제형이 피부에 닿는 순간 녹아들듯 부드럽게 스며든다.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을 바른 피부는 마치 코르셋을 입은 것처럼 속부터 촘촘하게 조여지고 주름이 매끄럽게 개선되어 아침이면 한층 어리고 탄력 있게 되살아난다. 안티에이징의 중요한 척도는 날렵한 얼굴선이 아닌 탄탄한 피부 밀도로 볼륨이 느껴지는 얼굴이다. 주름처럼 수직적인 라인이 있거나 볼륨이 사라져 피부가 빛을 받지 못하면 피부 톤은 전반적으로 칙칙해 보이고 노화의 징후가 예전보다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결국 수많은 노화의 신호 중 탄력과 볼륨, 주름만 케어해도 한결 젊고 아름다운 얼굴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코르셋 세럼이라는

별명답게 바르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꽉 채워주고, 탱탱한 볼륨감과 얼굴이 당겨 올라간 듯한 탄력을 통해 겨울철 지친 피부를 확실하게 조여주는 블랙티 에이지 딜레이 퍼밍 세럼, 주름 개선 가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잔주름 고민까지 동시에 해결해 궁극적으로 탄탄한 피부와 매끄럽고 아름다운 얼굴선을 기대할 수 있다.

세럼과 마스크의 탱탱한 만남이 이뤄낸 시너지

보다 빠르고 강력한 탄력 케어를 원한다면 '블랙티 코르셋 듀오'가 해답이다. 스킨케어 단계 중간에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퍼밍 세럼을 발라 영양과 수분을 채우면서 유연하게 만들어진 후 '블랙티 퍼밍 오버나이트 마스크'를 바르고 잠을 청한다면 어느 리프팅 아이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벨 드 뉘(Belle de Nuit)는 늦은 오후 피어나 밤새도록 아름답게 피어나는 아침이 먼 지는 꽃. 프레쉬는 밤마다 활짝 피어나는 벨 드 뉘의 재미있는 특성에 집중했고, 벨 드 뉘 추출물을 밤 동안 피부에 작용할 혁신적인 트리트먼트 제품에 적용했다. 피부 자체의 건강한 힘을 길러주는 블랙티 콤플렉스에 밤 동안 피부 재생을 활성화할 벨 드 뉘 추출물까지 더해 코르셋 효과가 밤새 지속된다. 워시오프 마스크처럼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번거로움이나 시트 마스크처럼 팩을 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할 필요도 없다. 이제 겨울철 안티에이징은 깨끗하게 세안한 후 제품을 도포하게 바르고 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볼륨이 필요한 부위는 밀도를 높이고, 매끄러운 라인이 필요한 부위는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는 진정한 리프팅이 구현된 피부, 블랙티 코르셋 듀오라면 가능하다. 문의 080-822-9500 에디터 권유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큐노〉와 프레쉬가 함께하는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가지고 프레쉬 매장을 방문하는 〈스타일 조선큐노〉독자분들에게 블랙티 코르셋 탄력 케어 3종 (블랙티 인퓨전 15ml, 블랙티 코르셋 세럼 7ml, 블랙티 코르셋 마스크 4ml) 체험 키트를 증정합니다.

◆ 기간 2016년 2월 3일(수) ~ 14일(일) ◆ 중점품 블랙티 코르셋 탄력 케어 3종 체험 키트(블랙티 인퓨전 15ml, 블랙티 코르셋 세럼 7ml, 블랙티 코르셋 마스크 4ml)
◆ 중점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02-3479-6202)·경기점(031-695-2278)·부산 센텀시티점(051-745-1249),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02-3438-6026)·무명센터점(02-3467-8414), 대구점(053-245-2133), 롯데백화점 본점(02-726-4038)·잠실점(02-2143-1930)·부산점(051-810-4108)·대구점(053-660-3064)

※ 1일 한정수량 증정, 소진 시 추가 증정 불가. 1인 1회 사용으로, 중복 증정 불가합니다.

(왼쪽부터) 르 블랑 엑스트라이트 인텐시브 유스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20ml 39만6천원, 르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스팟 트리트먼트 데이 앤 나이트 듀오 7mlx2, 11만6천원 모두 **사설**.

노화의 징후를 컨트롤하는 화이트닝

기존의 화이트닝 테크놀로지란으로 더 이상 '미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균일한 얼굴 톤과 은은하게 빛나는 광채, 결집 없는 탄력있는 피부 톤과 매끄러운 피부를 얻기 어려워져야 한다고 밝힌 피부가 완성되기 때문. 화이트닝으로 어려워지고 싶어 하는 현대 여성들의 강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곁들여진 사설 연구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화이트닝 공식을 찾아냈다. 과잉 생성된 멜라닌 케어라는 고전적인 화이트닝 룰을 버리고 색소침착의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안티에이징 케어를 접목한 것. 그 결과 노화가 진행 중인 다양한 피부 장후에 적용해, 단 28일 만에 젊음의 광채를 되돌려주는 '르 블랑 엑스트라이트 인텐시브 유스 화이트닝 트리트먼트'를 탄생시켰다. 사설 연구소의 새로운 화이트닝 솔루션은 다크 스팟의 원인이 과도한 멜라닌 합성뿐만 아니라 사실 밝혀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스트레스와 외부 유해 환경에 따른 자극 또한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곧 색소 불균형과 침착하고 생기를 잃은 피부로 이어진다는 것. 화이트 스팟은 오히려 멜라닌 부족으로 생성될 수 있으며, 노폐물의 축적으로 피부 톤이 고유의 광채를 잃어간다는 것 또한 밝혀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이트닝과 진정 기능을 동시에 갖춘 활성 성분 TXC™, 그리고 비타민 C 에틸과 로즈 힌 오일을 함유한 완전히 새로운 포뮬러를 개발했는데, 이 고농축의 화이트닝 활성 성분들은 멜라닌 분해 과정과 세포 노화 과정에서 노화를 초래하는 모든 요인에 정확하게 작용해 더욱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각기 다른 산성 진주 추출물은 피부에 탁월한 광채와 투명함을 선사해 피부를 밝게 가꿔주고 뛰어난 보습력으로 촉촉하게 마무리해준다. 28일 동안 매일 저녁 세럼 대신 사용하면 매끄럽고 탭 탭하게 빛나는 투명한 피부로 되돌아갈 수 있다.

24시간 피부 리듬에 반응하는 화이트닝

화이트닝을 저해하는 색소침착은 자외선만 잘 막는다면 해결될까. 정답은 'No'. 색소침착의 결정적 원인은 생물학적 주기에 있다는 사실 즉 24시간 피부 리듬에 따라 이뤄지는 피부 본연의 생물학적인 활동에 따라 색소침착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낮 동안 피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고, 이는 그대로 피부 손상으로 이어진다. 밤이 되면 손상 부위가 점차 확산되고, 멜라닌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사설의 신제품 '르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스팟 트리트먼트 데이 앤 나이트 듀오'는 이러한 피부 메커니즘에 맞춰 다크 스팟에 대응하는 스팟 코렉터다. 색소침착 예방을 위한 낮 전용과 교정을 위한 밤 전용으로 나누어 있는데 사설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활성 성분 TXC™가 멜라닌의 생성을 조절해, 이미 생성된 다크 스팟을 교정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스팟의 생성을 예방하고 차단한다는 점이 새롭다. 낮 전용 코렉터인 인텐시브 스팟 트리트먼트 데이에는 함유된 제라늄 추출물은 낮 동안의 외부 자극에 의해 생기는 색소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콜라겐의 생성을 저해시키고, 밤 전용 제품에 함유된 알파아미 추출물은 과도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낮에 받은 피부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다크 스팟을 교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애플리케이션이 달린 펜 타입 듀오 제품을 사용한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가 전반적으로 환해 보인다는 것. 사용 8주 후 다크 스팟의 색과 크기가 각각 25%, 29% 정도 줄어들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보고될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선사한다. 얼굴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컬러, 화이트. '밝은 빛과 광화물'을 발산하는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한 미드모어젤 사설의 말처럼, 더할수록 밝아지는 듀오 제품으로 최고의 화이트닝 사치 효과와 행복감을 동시에 만끽해보도록.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youthful Light

화이트닝이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 중이다. 잡티를 개선해 피부 톤을 맑게 가꾸는 전통적인 의미의 화이트닝이 퇴색하고 얼굴 전체의 톤과 질, 색을 개선해 어린 피부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화이트닝 공식으로 떠올랐다. 사설 역시 발 빠르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담아 화이트닝 그 이상의 화이트닝을 실현하는 아이템을 선보인다. 젊음의 광채를 선사하는 사설의 강력한 화이트닝 솔루션에서 궁극의 해법을 찾아보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white Bride

사랑의 소네트와 축복의 말이 오가는 순백의 이벤트, 웨딩. 맑고 환하게 빛나는 피부로 결혼식의 헤로인을 꾸짖는 신부의 수줍은 바람을 담은 시슬리의 예단 세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수프리미아 보모 50ml 80만원, 시슬리아 아이엔 리프 콘투어 크림 15ml 30만원, 휘도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세럼 30g 37만원, 에펠싸용 애플로지피 125ml 23만원, 블랙 로즈 프리셔스 페이스 오일 25ml 25만원,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 60ml 16만5천원, 휘도 블랑 화이트닝 토닝 로션 200ml 15만5천원 모두 **시슬리**.

신부를 위한 일곱 가지 맞춤 솔루션

고귀하고 성스러운 결혼식에서 아가씨처럼 맑고 환하게 빛나는 신부의 피부는 웨딩 뷰티의 하이포인트다. 그러나 결혼 준비에 쫓기다 보면 불규칙한 스케줄과 뜻하지 않은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스킨케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법.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으로 결혼식 두 달 전부터 꾸준히 선택 케어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신부들이 꿈의 웨딩 세트라 부르는 시슬리의 예단 세트는 신부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구성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피부를 깊게 정돈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휘도 블랑 화이트닝 토닝 로션', 제품 하나로 에센스와 로션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에펠싸용 애플로지피', 피부 세포의 수명을 2배 연장시키는 특허 성분 덕에 뷰티 마니아들 사이에서 궁극의 나이트 트리트먼트 크림으로 통하는 '수프리미아 보모', 연약하고 상쾌한 눈가와 입가에 젊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시슬리아 아이엔 리프 콘투어 크림', 색소침착과 다크 스팟의 징후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휘도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세럼', 미량원소와 비타민, 안티에이징 활성 성분이 15분 만에 피부 톤을 회복시키는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 실카틴 텍스처로 신부의 얼굴에 생기와 영감을 부여하는 '블랙 로즈 프리셔스 페이스 오일' 등 일곱 가지 제품이 바로 그것으로, 믿고 쓰는 시슬리의 제품 중에서도 예비 신부에게 적합한 베스트셀러만 엄선했다. 화이트닝 케어에 집중하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 2주 전부터는 화이트닝 케어와 더불어 피부에 지속적인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시슬리의 예단 세트가 화이트닝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양, 보습, 안티에이징 등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고르게 구성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보다 강력한 선택 케어를 원한다면 영양, 리프팅, 딥 클렌징, 수분 라인 등 다양한 마스크 제품을 번갈아가며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혼식 전후 백백한 일정으로 스트레스받은 피부에 특유의 식물성 활성 성분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시슬리의 예단 세트라면 자극 없이 피부 본연의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아머니를 위한 맞춤 예단

시슬리는 예비 시아머니가 먼저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뷰티 브랜드로도 유명하다. 머니의 빛나는 피부를 위해 최상의 제품을 추천해준 시아머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동일한 시슬리 제품으로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것을 추천하는 기쁨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같은 만족감을 공유하고자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시아머니라면, 이 같은 머니의 선택은 선택에 몇 배 더 감동받을 것이 분명하다. 마치 밀피유처럼 활성 성분을 쉼 없이 담아주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케어 '시슬리아 에센셜 스킨케어 로션', 피부 재생을 도와 젊은 피부로 만들어주는 '수프리미아', 얼굴에 드러나는 모든 미세 라인을 자연스럽게 매워주는 주름 에센스 '시슬리아 데일리 라인 리프팅', 나이트 안티에이징 아이 세럼 '수프리미아 아이' 등 신부를 위한 패키지는 전혀 다른, 오직 시아머니만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로 구성해 주는 이나 받는 이 모두를 만족시킨다. 예단을 위해 50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면 시슬리의 트러블 키트를, 1백만원 이상은 트러블 키트와 함께 매장 내 미사지 케어에서 시슬리 페이스 트리트먼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머니와 시아머니가 함께 누워 페이스 트리트먼트를 받는 호사를 누리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080-549-0216 에디터 권유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시슬리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시슬리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이상적인 피부 밸런스를 찾아주는 '시슬리 에펠싸용 애플로지피'와 플로럴 성분이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줄 토닝 로션 '로사용 토니오 플리르'를 체험할 기회를 드립니다.

◆ **중정품** 시슬리 에펠싸용 애플로지피 체험 샘플 4ml, 시슬리 로사용 토니오 플리르 체험 샘플 30ml ◆ **기간** 2016년 2월 5일(금)~18일(목)

◆ **중정품** 전국 백화점 시슬리 매장 ◆ **문의** 080-549-0216

* 중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 사정에 따라 샘플 제품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My obsession

깨끗한 피부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스커트보다는 미니멀한 화이트 셔츠와 매니시한 슈트가 잘 어울리는 그녀에게서는 바로 이런 향이 풍길 듯하다. 카리스마 있는 남성을 연상케 하는 차가우면서도 클린한 향, 혹은 텅텅하고 무겁지만 호기심이 발동하는 중성적인 향.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다 인뮤전 디 아이라리스 오 데 토일렛** 미우치아 프라다의 취향이 반영된 빈티지한 디아린의 보틀이 매력적이다. 아이라리스꽃과 은방울꽃에서 추출한 우아하고 부드러운 플로럴 향 시아로 베타베르의 우디한 향이 배어 나온다. 미치 진한 머스크 향의 비누로 씻고 난 후, 보디에 잔잔하게 남은 파우더리한 향처럼 말이다. 화려하거나 요란스럽진 않지만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굳이 설명을 구별하고 싶지 않은 향수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입은 날 뿌리면 그 잔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100ml 16만5천원. 문의 02-3443-1805

조 말론 런던 미모사 앤 카디엄 탄노 산맥에서 자생하며 자유로운 보헤미안을 연상케 하는 노란 꽃 미모사를 메인 노트로 사용한 오리엔탈 향수. 스파이시한 향의 카디엄을 더해 전형적인 플로럴 계열의 향에서 벗어나 남작적인 느낌에 가깝다. 그렇지만 디아크 로즈, 파우더리한 헬리오트로프, 부드럽고 따스한 플라밍, 선들우드 등을 믹스해 관능적인 여성이 또한 자니고 있는 유니섹스 향수다. 특히 포근하고 따스하게 남는 진향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100ml 17만8천원. 문의 02-3440-2750

앤디슨 24 올드 본드 스트리트 오 드 코롱 영국 왕실 향수로 잘 알려진 앤디슨은 2백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니치 향수 브랜드다. 브랜드 대표 시그니처 향수인 이 제품의 베이스 노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꽃인 타카시 로즈 인솔루 향이다. 로즈 향이 중심인 만큼 여성 향수에 가깝다고 생각하겠지만, 싱글 노트와스카의 스모카한 보디감과 블랙티, 시더 향이 혼재된 중성적인 향이다. 첫 향은 톱 샷트 거칠지만, 진행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빈티지이다. 어디에서도 알리지 못한 독보적인 향으로 유니크한 향을 찾는 여성에게 제격이다. 100ml 17만5천원. 문의 080-800-8809

다들 제비 달마시오즈 미국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이로운 향으로 시작된다. 무겁고 깊이 있는 향이 색다른 수트를

를 입은 남성을 연상케 한다. 이 향수의 관능적인 느낌 대부분은 톱거 빈에서 비롯되는데, 따뜻한 느낌과 스모카한 향을 지닌 마디카스카로신 바닐라를 더해 이러한 이로운 향을 더욱 부각했다. 또 캐리비안 건초, 프랄린을 믹스한 달콤한 향을 동시에 지니 보다 매력적인 향으로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미묘하게 중독성 있는 파우더리한 향으로 마무리한다. 125ml 35만2천원. 문의 080-342-9500

세로주 루엔 렌스 드 베르 향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차가운 금속이다. 그만큼 날카롭고 차갑지만 한편으로는 비누 향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풍겨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을 발휘한다. 첫 향이 뽀얗게 다린 클린한 화이트 셔츠를 연상케 한다면, 진행은 포근한 니트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아주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 빈티지의 묘미를 지닌 향수다. 50ml 13만2천원. 문의 02-514-5167

펜할리곤스 유니퍼 슬링 1920년대 자유분방한 런던의 분위기와 런던 드라이 진의 풍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로마틱 계열의 향수. 남자 향수지만 여자들에게 더 인기가 많을 정도로 청량하고 세련된 향이다. 차가운 메밀과도 같은 톱 샷트 첫 향을 시작으로,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남자를 대변해줄 블랙페퍼와 카디엄, 부드러운 가죽 향을 지나 브라운 슈거, 블랙 체리, 앰버 향이 결합된 따뜻한 진행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 무겁지 않고 유니크한 향을 찾는 여자에게 추천한다. 50ml 22만2천원. 문의 02-555-5152

프라다 카리스마 신발 오 드 파퓸 여성이 남성에게 베푸는 그 힘의 느낌을 향으로 표현했다. 메인 노트는 야성적이고 도발적인 캐시비안 파슬리, 로즈로 관능적인 남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마무리 향은 깊고 잔잔한 조롱피와 베르베르, 마늘과 머스크가 조화를 이룬다. 코끝을 톱 샷트 강렬한 향에 중독되어 향수가 도포된 부위에 자꾸만 코를 대고 맡고 싶어진다. 남성향 아로마 포뮬러 느낌의 우디 오리엔탈 향을 좋아하는 여성들에게도 추천한다. 30ml 7만2천원. 문의 080-822-9500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skin Tint

나스(NARS)에서 새로운 베이스메이크업 아이템을 출시했다. 뷰티 마니아들의 마음을 흔들고, 보다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원하는 여성들이 열광할 만한 소식이다. 간편하고 산뜻하게 파우더리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스킨 틴트, 우리가 기다리던 특별한 피부 표현을 위한 매력적인 제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킨 틴트, 베일을 벗다

나스에서 새로운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이 나왔다. 이 소식만으로도 수많은 브랜드가 긴장할 것이다. 오는 2월 선보이는 새로운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은 바로 나스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다. 활용도 높은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인 만큼 주목도가 높다. 이번 신제품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번들거리는 피부 대신 가볍고 산뜻하고 말끔하게 피부 표현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역시 동시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진두지휘하는 브랜드답다.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베이스메이크업이 어렵다는 것은 단지 선입견일 뿐이라는 것. 쉽게 수습 바르는 것만으로도 보충보충하지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완성된다. 제품 이름처럼, 말 그대로 스킨 틴트다.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들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보충하게 마무리하는 피부 표현을 위해서 두꺼운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얼굴 전체에 바르고 잡티를 가리고 싶은 부위에는 컨실러를 살짝 더해주면 그뿐이다. 붉은 기를 잡는 데 굉장한 효과적이고 컬러도 다양해 어떤 피부에나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나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스킨 틴트의 컬러를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작고 어려 보이는 얼굴을 연출할 수 있다.

쉽고 가볍게, 말끔한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는 신개념 텍스처

그렇다면 이 제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나스의 제품 중 대부분이 화장품 마니아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극찬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랑수아 나스의 이름을 단 브랜드인 만큼 완성도와 정교한 컬러 선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에 나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놀라운 과학적 아이디어다. 단순히 피부 톤을 아름다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화사한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피부 표현을 위해 벨벳 일루전 콤플렉스를 결합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눈으로 보자마자 난반사를 일으켜 얼굴이 화사해 보인다는 뜻이다. 넓은 벌판에 크기와 투명도가 다양한 눈꽃이 모여 있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반사판을 대어놓은 듯 반짝이는 것처럼, 투명도가 다른 독특한 구 모양 입자가 모여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피부를 완성한다. 탄력이 뛰어난 벨벳 같은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편안한 사용감까지 선사한다. 텍스처 자체는 촉촉하지만 마무리감은 벨벳 느낌으로 파우더리하다. 건조함이나 갈라짐은 전혀 느낄 수 없다. 지저분한 유분기 없이, 여배우처럼 하루 종일 번들거리지 않는 말끔한 피부를 연출하고 싶다면 나스의 스킨 틴트가 제격이다.

이 제품은 굉장히 바쁜 시간에 더욱 요긴하다. 쓱쓱 펴 바르는 간단한 사용법만으로 완성도 높은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피부 안에서부터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사용하기 쉽고, 피부가 편안하고, 지속력이 뛰어난 것은 역시 나스의 베이스메이크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나스는 이 스킨 틴트의 텍스처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파운데이션과 같은 베이스메이크업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래 피부처럼 보이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스킨 틴트는 매력적인 제품이죠.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사용해 보면 정교하지만 자연스러운 매력을 느낄 수 있고, 피부 표현이 두껍거나 둔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단 한 번의 터치만으로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면, 급한 약속에도 보충보충하고 산뜻한 얼굴로 품격을 드러내고 싶다면 나스의 신제품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가 좋은 해결책이 되어줄 것이다. 50ml 6만3천원. 문의 02-6905-3747 에디터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나스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저장하고 나스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베이스메이크업의 새로운 기준, '나스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 증정품 나스 벨벳 매트 스킨 틴트 SPF 30/PA+++ 체험 샘플 2ml ◆ 기간 2016년 2월 16일(화)~21일(일)
- ◆ 증정 매장 전국 백화점 나스 매장 ◆ 문의 02-6905-3747
- ※ 증정품은 한정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 각 매장별 1백 개 한정수량



select Beauty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와 바이레도, 비디비치 그리고 뷰티 셀렉트 슝 라페르바를 소개하며,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SI BEAUTY'에서 뽑은, 까다로운 뷰티 유저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열 가지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공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즈 클라-립 액티브 세럼 by 라페르바** 이름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이즈 클라-립은 의학 전문가, 국제 과학팀과 오랜 임상 실험을 거쳐 제품을 개발하는 차세대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불린다. 할라이트 배우 제사기 알라기 사용한다고 알려진 이 액티브 세럼은 이러한 실험 과정을 통해 개발한 멀티 항산화 세럼이다. 주름 개선에 뛰어나 늘어진 모공에 탄력을 주고 모공 수축 효과를 발휘해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사용하기도 좋다. 30ml 17만원.

비아레도 블랑쉬 핸드크림 촉촉한 보습 효과를 물론이지만 블랑쉬 향 때문에 제품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향수보다 쉽게 바아레도의 향을 접할 수 있기 때문. 또 향수와 함께 사용하면 향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어 블랑쉬 애호가들에게도 인기다. 휴대하기 편한 사이즈에 고급스러운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풍적으로도 좋다. 30ml 4만2천원.

내추라리체 다이아몬드 인스틸 by 라페르바 바르는 즉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광채 피부로 연출해준다 하여 다이아몬드 크림이란 별명이 붙었다. 할라이트 스킨 비온세와 마드나 등이 레드 카펫에 서기 전, 필수코팅 받는 스킨 케어 제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내추라리체의 독자적 기술인 바이오-에치 성분 '이르테아' 살나가 피부 재생을 돕고 독점 해양 성분으로 방아쇠를 눌러 주름을 완화하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갖춘 제품이다. 50ml 46만원.

비디비치 '빅 앤드 엑셀런스 틴트드' 프라이머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만큼, 립 마이클 사이에서 발색은 물론 지속까지 훌륭하게 소문이 났다. 틴트의 지속력과 상큼한 립스틱의 색감, 립글로스의 광택까지 갖춘 스카-인 원 제품으로, 덧바를수록 강한 발색력을 자랑하며 개인 취향에 맞게 다양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또 표면에 광택이 편안한 라운드형 틴터와 내용물이 골고루 묻어나 통치거나 밀려 없이 고르게 퍼진다. 5.5g 3만5천원.

비디비치 '루즈 엑셀런스 인스틸' 블랭킷 부드럽게 갈라지는 크리미한 텍스처가 특징인 루즈 엑셀런스 인스틸은 입술 윤도에 반응하는 컬러 젤 타입 제품으로 깊은 주름 사이사이까지 녹아들어 비단면의 입술 색처럼 보이도록 꼼꼼하게 채워준다. 디마스크 로즈, 이브닝 크림 로즈, 로즈미 에센셜 오일을 함유해 입술 위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 즉각적으로 볼륨 있고 부드럽게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3.5g 3만5천원.

산타 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로즈 '토너' 중 미수리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 제품. 사용 방법도 다양한데, 아침에 토너로 사용한 후 스킨케어 타입의 공방에 넣어 미스트처럼 활용하거나 저녁에 입욕제로 활용하면 마치 테라피를 받는 듯한 호사까지 만끽할 수 있다. 수 세기 동안 내려온 전통 증류 방식으로 만든 이 귀중한 토너는 피부에 촉촉한 보습감을 전하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킨다. 250ml 3만8천원.

오레 '시크너저 칸디다나 by 라페르바' 제-퍼 로페즈와 스페르티오한 슝 내로라하는 할라이트 스티들의 헤어 아티스트 오레베(Orbe)가 만든 헤어 케어 브랜드다. 샴푸계의 에르메스와 불리는 오레베는 라페르바에서 독점 수입하기 전부터 이미 발해만 뷰티 유저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였다. 마치 피부에 사용하는 모이스처라이저처럼 겨울철 건조해진 머릿결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모발의 영양을 물론 정전기를 방지해준다. 200ml 5만2천원.

오레 '시크너저 샴푸 by 라페르바' 향수병을 연상시키는 시크한 블랙 보틀 디자인으로 탄탄한 디자인을 가린 제품이다. 텍스처가 쫄쫄하고 라치한 이 제품은 풍부하고 탄력 넘치는 거품, 고급스러운 향, 모발에 윤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성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 풍성하고 빛나는 머릿결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250ml 4만7천원.

바이레도 '블랑쉬 향수' 남성들이 뽑은 내 여자친구가 뿌렸으면 하는 향으로 뽑힌 블랑쉬 향수는 깨끗한 코튼 시트 같은 향기로 일레드와 비아울렛, 네올리, 그리고 우드와 머스크로 이어진다. 순수한 여성이 연상되지만 의외로 향수 레이아웃을 즐기는 남성들이 베이스 향수로 많이 찾는다고. 일단 한번 향을 맡아보면 일본 이 향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50ml 18만5천원.

알기마아 빈 오브 아몬드 보디 오일 by 라페르바 립 모델 정윤주가 바른다고 해 알려진 알기마아는 스페인의 연금술을 계승한 이보르테라피 브랜드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사용한 산티의 성분인 '올리' 베이스에 올레오인 향을 더해 탄생시켰다. 실제로 올리는 피부 진정과 재생 효과를 갖춰 노화된 피부에 활기를 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매일 저녁 샤워 후 바르면 전체에 비르민 피부가 매끄러워질뿐 아니라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50ml 9만5천원. 문의 080-516-1616 에디터 **이재현**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 **듀크레이 아-피즈 샴푸** 탈민 화장 기능과 향신화 효과를 갖춘 토크메를 니코티네이트 성분, 그리고 세포의 함성은 물론 케라틴 생성을 촉진하는 비타민 복합체가 성분이 지친 피부와 가늘어진 모발을 강화해주는 샴푸. 두피의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나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 살리코 성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마지못용으로 활용하면 두피의 알레르기 반응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 200ml 2만5천원. 문의 1899-4802

엘비타 젤룰 나리시 샴푸 건조 모발에 최적화된 샴푸로 오렌지 플라센트 성분이 건조한 모발을 탄탄하게 해주고, 플라워 허니 영양을 공급해준다. 합성 계면활성제 대신 코코넛에서 추출한 천연 거품 인자를 사용해 모발이 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다. 제품의 99%가 천연 성분. 10%가 유가성 성분으로 프랑스 유가성 인증 기관인 에코시트의 인증까지 받아 신뢰를 배가시킨다. 200ml 2만원, 500ml 3만4천원. 문의 02-3014-2997

모로칸오일 트리트먼트 기준 100ml에서 125ml로 용량을 늘렸지만 가격은 기준과 동일한 이 제품은 오직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 모로코 남서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아라칸 오일을 주원료로 해 손상된 모발의 재생을 돕고 모발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하다. 무알코올 제품을 풍부한 향신화 물질과 자황산, 비타민, 단백질이 모발에 즉각적으로 영양을 공급해 탄력을 높이며 빠른 시간 내에 윤기와 활력을 더해준다. 125ml 6만8천원. 문의 1666-5125

룩시앙 아보미 스트레스스킬프 에센스 씻어내기나 닦아낼 필요가 없는 간편한 두피 케어 제품을 원한다면 이 에센스를 눈여겨보자. 로즈메리, 사이프러스, 카드노(구기자), 말랑유랑, 사디 등 다섯 가지 에센셜 오일 성분이 모근부터 영양을 공급해 손상된 헤어를 더욱 건강하고 탄력 넘치게 만들어준다. 미끈한 모발에 피가끼기 도포하고 굵은 나무 빗을 사용해 가볍게 자극하면 되는데, 무색의 허브 향으로 끈적거리지 않고, 광택 효과를 내 상쾌한 기분까지 동시에 전한다. 125ml 4만원. 문의 02-3014-2941

아베다 인버티 스킨프 리바이탈라이저 가늘어진 모발을 위해 아베다에서 재탄하는 맞춤형 솔루션. 3개월 사용 후 탈모 현상이 33% 감소한 임상 결과 덕에 탈모나 두피 트러블로 고민인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98% 자연 산물 활성 성분과 담고 있는데 특히 강화와 인삼, 아유르베딕 허브 추출물이 모근 주변의 두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젖은 두피나 마른 두피에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은 물론, 행구아셀 필요가 없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사용이 간편한 것 또한 큰 매력이다. 150ml 7만9천원. 문의 02-3440-2905

에방시엘 하이dra-센세이션 디 세럼 by 벨포트 에방시엘은 뷰티 멀티 스테이프로 오픈과 함께 국내에 처음 공식 수입된 프랑스 프리미엄 헤어 케어 브랜드로, 건조 모발, 가는 모발, 두피 등 아홉 가지 헤어 고민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평상시 두피가 민감하고 건조하며 건조해져 가렵거나 피마나 염색 시 두피가 가렵고 따가운 이들을 위해 아심 차제 내놓은 두피 전용 세럼이다. 두피의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은 물론 보호막을 형성해 민감한 두피에 즉각적으로 보습과 영양을 부여한다. 50ml 6만2천원. 문의 080-508-6631

ATS 파사지 리스톰리시 마스크 염색이나 파마, 열에 의한 스타일링 등으로 모발이 손상되고 약해지면 ATS 파사지 재생, 영양 리안인 리스톰리시 마스크를 모발 전체에 도포해 빌라 관리해줄 것. 참이끼, 플라크톤, 우룻가시, 스피클라나, 마린 콜라겐 등 다섯 가지 해양 생물 추출 성분이 모발 건강에 탁월한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며, 살리코를 배제해 알레르기나 인위적인 코팅이 아닌 모발 한 올 한 올 영양감을 채워 손상된 모발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250ml 3만원. 문의 02-545-2170 에디터 **권유진**

healing Hair

계절의 변화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려 모발을 푸석하게 하고, 나날이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콕콕 때운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 각종 염색과 파마로 머리칼이 우수수 떨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분과 영양이 가득한 스페셜 헤어 트리트먼트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SI BEAUTY'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 브랜드의 대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 **중점품** 이즈 클라-립 액티브 세럼 3.5ml + 비디비치 슝인 일루미네이션 5ml + 산타 마리아 노벨라 멜로그라노 향수 2ml + 바이레도 블랑쉬 향수 2ml ◆ **기간** 2016년 2월 5일(금)~15일(월)
- ◆ **중점 매장** 산타 마리아 노벨라도산 전문점, 신세계 본점 · 강남점 · 영등포점 · 경기점 · 부산 센텀시티점 · 비아레도(신세계 본점) · 강남점 · 부산 센텀시티점
- 라페르바(신세계 강남점, 본점) 뷰티 상담점, 미아분 뷰티 상담점 비디비치(신세계 본점) · 강남점 · 의정부점 · 경기점 · 부산 센텀시티점 ◆ **문의** 080-516-1616

※ 중점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선물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인 1회 선착순으로 중점됩니다.

editor's Pick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누구보다 빛날 신부를 위해 (스타일 조선일보) 기자들이 고심해 준비했다. 예비 신부의 비밀 병기가 되어줄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 메르 클렌징 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꼼꼼한 클렌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제품은 단 한 번의 클렌징으로 눈 화장을 포함한 메이크업과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준다. 부드러운 젤 타입이며 양이온화면 물로 제조해 피부의 산성화 수분까지 지켜준다. 200ml 12만원. 문의 02-3440-2775 *_by 에디터 이지연*

샤넬 르 블랑 라이트 크리에이터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 SPF 40/PA+++ '복숭아 메베라'는 신노아를 만들어낼 정도로 회사에서 단연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에게 새롭게 추가된 핑크 컬러 베이스, 노란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일등 공신. 가볍게 바를 때는 비비크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30ml 7만원. 문의 080-332-2700 *_by 에디터 배미진*

슈에무라 리고 슈프림 쉬어 핑크 케어 '신부의 인상을 사랑스럽게 물들이는 예쁜 코랄 핑크 색상의 핑크 케어. 세럼에 가까운 슈 레드 영료를 집중해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커버력은 높여, 지속성 높은 비비드 컬러를 연출한다. 또 색상이다 끝도, 실버 등 팔랑이 조절돼 인공적인 인공 표현이 가능하다. 5.4ml 3217천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이지연*

아쿠아 디 파르마 로사 노빌레 오 드 파퓸 '장미 비누를 한이름 만든 듯 풍부하게 파는 신선한 꽃향기'를 선사한다. 장미 향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무난하게 쓰기 좋을 만큼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취로, 베르가모트와 민들레, 페퍼의 특 쓰는 듯한 노트로 사치해 이탈리안 로즈, 릴리, 피오니, 비올렛의 상큼한 플로럴 향취가 이어져다가 마스크의 부드러운과 조화되어 마무리된다. 50ml 17만5천원. 문의 02-517-5218 *_by 아사스트 김수빈*

시슬리 에멀시옹 에콜로지오 에센스 로션 '비 오는 순간 허브 향기에 취하는 러시안 한 텍스처의 로션. 에센스와 로션을 합친 제품으로, 처음 출시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슬리의 베스트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킬 정도로 퀄리티가 뛰어나다. 크림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는 크림의 촉촉함을 2배 더 높일 수 있다. 125ml 23만 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배미진*

프래쉬 라이프 캔들 '천공의 공기'를 기본 좋은 향으로 채우고 싶다면 프래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라이프 캔들을 추천한다. 시트러스 플로럴 향으로, 특히 침실에 두기 좋다. 초를 켜지 않아도 방 안 가득 향이 퍼질 정도로 발향력이 우수하며, 한 번 피운 후에는 다음 날까지 기본 좋게 지속된다. 215g 8만6천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이지연*

결랑 골드 오가드 브라이트닝 세럼 '안티에이징 효과를 갖춘 골드 오가드와 탁월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발휘하는 화이트 오가드를 결합해 탄생시킨 세럼. 마치 실크 기운을 두른 듯 한결 부드럽게 정돈된 감촉과 로즈, 화이트 마스크가 어우러진 은 은한 향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사용감이 인상적이다. 드라미테이션 없던 매일 피부 톤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꾸준히 써보고 싶은 제품. 30ml 66만원. 문의 080-343-9500 *_by 아사스트 김수빈*

코스메 데코르테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 '워터 타입 에센스라고 하지만 고가의 에센스보다 훨씬 촉촉하고 수분감이 충분하게 느껴지는 제품. 비비크림이 갈수록 가나올 정도로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나다. 한투레 높은 초미립자 리포솜 캡슐이 즉각적인 효과를 선사하기 때문. 오일 프리, 파우더 프리라는 점도 마음에 든다. 170ml 12만5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이라퀼 수분 젤 슬리핑 맥 '결혼식을 앞두고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피부 관리를 원한다면 매일 밤, 피부 갈증이 수분을 공급해 숙면을 취한 듯 편안한 피부 톤을 선사하는 슬리핑 맥으로 홈 케어를 시작하자. 프렌치 로즈 추출물을 가득 함유해 쫄쫄하고 탱글탱글한 투명 젤 텍스처가 톤보이는 이 마스크 팩은 시원한 쿨링 효과가 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보다 편안한 상태로 되돌려 준다. 또 피부에 빈틈없이 수분을 채워주어 거친 피부결은 물론 알록달록한 피부 톤까지 개선한다. 75ml 8만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권유진*

골레트 보네 로세르 다글라라 15호 '자고로 신부의 피부에는 건강한 생기와 빛이 깃들어야 하는 법. 자연스러운 윤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이 하이리미팅 파우더로 본인의 피부가 반짝이는 듯 연출해볼 것. 밝은 오렌지와 피치,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피부에 따스한 활력을 더해준다. 얼굴 전체에 가볍게 쓱 터치하면 피부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반짝임을 더할 수 있다. 10g 13만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권유진*

입생로랑 루주 볼림에 사인 '원만한 립밤보다 더 부드럽게 입술에 녹아드는 엠블 텍스처가 돋보이는 립스틱. 볼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도 입술이 갈라지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 유지된다. 또 입술에 딱딱하게 두드러질 정도로 립스틱 본연의 선명한 컬러감이 표현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특히 우아한 로즈 핑크 톤의 49호 컬러는 신부의 인상을 받고 화사하게 실려줄 것. 4.5g 4만2천원. 문의 080-347-0089 *_by 에디터 권유진*

블리스 패블립스 파우더매틱 '건조하고 들뜬 각질이 눈에 띄는 입술은 아무리 컬러가 예쁜 립스틱을 발라도 소용없다. 먼저 슈가 립 스크럽을 입술 위에 얇게 도포한다. 1~2분이 지난 뒤 전용 다퍼를 이용해 부드럽게 마사지할 것. 입술위에 두세 번, 홈 케어만으로도 건조한 겨울철 입술 각질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다. 15ml 7만5천원. 문의 02-514-5167 *_by 에디터 이지연*



iconic Beauty

클라란스에는 꼭 기억해야 할 스테디셀러가 세 가지 있다. 아시아 여성들의 V라인을 책임지는 토탈 V 에센스와 스마트한 더블 세럼, 브랜드의 상징이 된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까지.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 3인이 체험한, 아이코닉 3종 세트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탄력 있는 페이스 라인을 위한 '토탈 V 에센스' 얼굴이 상하게 붓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에게 이 제품을 한 번쯤 추천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클라란스가 18년간 연구한 끝에 아시아 여성들의 기름한 얼굴 라인을 위해 선보인 에센스로, 그 이름만으로 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지금도 그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얼굴 선을 잡아주는 칸투어링이라는 개념을 사상에 최초로 도입해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제품이기도 하다. 신뜻한 제형으로 다른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많은 양을 발라도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다. 특히 비르자마자 얼굴에 착감기는 상쾌한 느낌의 텍스처는 발라도 발라도 더 비르고 심을 만큼 흡수력이 뛰어나다. 두통하게 느껴지는 이중 턱 라인을 잡아주는 데 가장 효과가 있어 V라인 에센스라는 애칭이 붙었지만 얼굴 전체 부기와 불살 차짐 같은 리프팅 관리에도 탁월하다. 촉촉한 텍스처가 빠르게 수분을 공급해 효과적으로 탄력을 개선해준다. 30ml 12만 원. 50ml 19만4천원. *_by 에디터 배미진*

2개의 안티에이징 세럼이 한 병에 '더블 세럼' 물기가 느껴질 만큼 촉촉하면서 마무리는 오일만큼 쉰듯 두드러운 텍스처에 비해 사용하기 시작한 클라란스 더블 세럼은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좁쌀 여드름을 잠재우고 거친 피부결을 매끄럽게 되돌려준 인생의 베스트 뷰티 아이템 중 하나다. 이는 물에 닿게 잘 지안한 수트처럼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기능을 탄탄히 갖춘 안티에이징 세럼으로, 그 핵심은 바로 더블 세럼만의 혁신적인 하이드라+리프팅 시스템이다. 세럼 용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키지가 2개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유수분에 각각 함유되어 있는 고유 성분은 완벽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분과 오일 텍스처로 분리되어 있다가 평평 시 피부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황금 비율로 섞여 나오는 원리다. 실제 손등에 평평했을 때 투명한 젤 타입 수분 텍스처와 황금 컬러의 오일이 하나의 입구에서 동시에 나오는데, 이를 문지르면 촉촉하게 스며들면서 신기하게도 피부 전체에 오일만 쉰듯 두드러지고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점이 인상적이다. 건조한 피부 속은 단비가 내리듯 수분으로 촉촉히 채워주고 수분이 메마르지 않도록 피부 안쪽에 부드러운 오일로 보호막을 쉰듯 말 그대로 '황금 비율'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것. 약 3개월간 꾸준히 사용해본 결과, 피부 밸런스가 무너져 생겼던 좁쌀 여드름이 사라졌으며 피부가 참말딱처럼 쫄쫄하고 탄력 있게 변화한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유수분 밸런스를 바로잡아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는 더블 세럼. 꾸준한 피부에 촉촉한 볼기가 되어줄 단 하나의 세럼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다. 30ml 12만원. *_by 에디터 권유진*

한 방울로 맞추는 피부 균형 '페이스 오일' 오일을 비르면 변들거리고 끈적일 거란 편견과 더불어, 한번 사용해 보았던 페이스 오일에 대해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오일 제품은 열선도 하지 않았다. 배우의 광는 피부를 기어다며 바른 오일이 피부에 닿자마자 알량 개기름으로 둔갑한 아찔한 순간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 하지만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피부 속 당김이 그 어느 크림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속은 썩고 다시 한 번 페이스 오일에 눈길을 돌렸다. 대신 이번에는 직접 제품 성분과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제품이 바로 클라란스의 '블루 오가드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이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오일 중 가장 안전하며, 피부 세포와의 친화력이 높아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 알려진 100% 식물 추출물로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신리가 갔다.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가볍게 닦아낸 후 손바닥에 2~3방울 떨어뜨려 열이 살짝 오를 정도로 비벼준 다음 볼을 중심으로 그곳이 감싸듯 발라주었는데, 가벼운 텍스처로 별다른 자극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었다. 오일이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다는 점이 놀라웠다. 촉촉함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1~2주간 꾸준히 사용해보니 보습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유수분 밸런스까지 되찾아주었다. 30ml 8만2천원. *_by 에디터 이지연* 문의 080-542-9052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클라란스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클라란스 매장을 방문해 고객 정보를 남기는 모든 독자분들께 100% 식물 추출물로 피부 균형을 완성하는 페이스 오일과 보다 피부에 보습과 탄력을 부여하는 토닉 오일 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 **중점품** 클라란스 페이스 오일 2ml & 토닉 오일 10ml 체험 샘플 ◆ **기간** 2016년 2월 3일(수)~14일(일)
◆ **중점매장** 클라란스 신세계백화점 본점·강남점, 현대백화점 본점·무역센터점·판교점,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 ◆ **문의** 080-542-9052
※ 중점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선착순으로 한정합니다. ※ 쿠폰 이미지는 중점품이 아닌 참고 이미지입니다.



fresh

일평 '스부'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 꼼꼼하게 피부 컨디션을 다져줘야 한다. 최상의 워딩 메이크업을 위한 피부주의 대일리 케어 라인.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슈가 로제 립 트리트먼트 4.3g 9만6천원, 슈가 립 트리트먼트 어드밴스드 테라피 4.3g 4만원, 블랙티 에이지-딜레이 크림 50ml 15만5천원, 블랙티 피핑 오버나이트 마스크 100ml 13만2천원, 소이 페이스 클렌저 150ml 5만7천원, 로즈 페이스 마스크 100ml 8만2천원 모두 **프리뷰** 총 51만2천원.



시름스럽게 빛나는 피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동안 피부다. 블랙 다이아몬드 트러플 추출물과 독자적인 리프팅 테크놀로지로 얼굴선을 살려주는 에스티 로더의 라-뉴트리브 세트.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스킵프림/리퀴-나싱 듀얼 인퓨전 25ml 52만원, 라-뉴트리브 울트라 레디언스 리퀴드 메이크업 SPF 15/PA+++ 30ml 13만원, 라-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이지 크림 50ml 52만원, 라-뉴트리브 얼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이지 크림 15ml 36만원 모두 **에스티 로더** 총 1백53만원.



신부에게 순백의 피부는 웨딩드레스만큼 필수적인 요소다. 밝은 인색을 원한다면 SK-II의 광채 케어 라인을 놓여겨볼 것.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셀루미네이션 마스크 인 로션 100ml 10만원, 오라클리어 CC 크림 30g 8만원, 페이스 트리트먼트 피퍼라 에센스 230ml 21만원, 셀루미네이션 딥 서지 EX 50g 15만원, 1분 살롱 피운데이션 9만원,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 30ml 17만원 모두 **SK-II** 총 80만원.



에스티 로더 케어 이후엔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결혼 전, 양가 어머니와 함께 에스테이셔너를 찾았더니, 클레드보 보메의 레디언스 트리오로 홈 케어를 하며 결혼식 전날까지 피부 컨디션을 유지하자.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라 크렘 50ml 1백만원, 르 세럼 40ml 35만2천원, 크림 드 콩크레 드 이오 15ml 15만2천원 모두 **클레드보 보메** 총 1백50만2천원.

special gift for Brides

부터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웨딩 세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대로 상대방의 취향과 필요를 섬세하게 읽어내는 안목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테일러 케어 라인에서부터 화이트닝 라인, 광채 라인, 안티에이징 라인 까지 양가 어머니와 예비 신부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8개 브랜드의 여덟 가지 다양한 구성을 모았다. 이 중 당신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결혼식 날은 양가 친지, 지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날인 만큼 양가 부모님들 또한 피부에 공을 들이기 마련. 광채 압출력 안티에이징 라인은 농축된 정미 오일 성분인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피부에 생기를 더해줄 것이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피피오 세컨드 스킨 마스크 16mlx6pcs 11만9천원, 압출력 수블라임 골든 글로우 메이크업 베이스(리미티드 에디션) 30ml 9만2천원, 압출력 프레셔스 오일 30ml 24만원, 압출력 프레셔스 셀 로즈 실크 크림 50ml 37만원 모두 **랑콤** 총 82만7천원.



가벼운 제형을 벗어나 진중한 케어를 하기 원하는 50~60대 여성은 물론 30대 예비 신부들에게 제안한다. 인색을 완화해 밝히고 나이의 흔적을 지우는 시슬리의 화이트닝 데이 & 나이트 케어 라인.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블랑 리프트닝 토닝 로션 200ml 15만5천원, 블랙 로즈 프레셔스 페이스 오일 25ml 25만원, 블랙 로즈 크림 마스크 60ml 16만5천원, 시슬리아 아이 앤 립 콘투어 크림 15ml 20만원, 에콜로직 에센셜 125ml 23만원, 수블라임 리보 50ml 80만원, 화이트 블랑 인텐시브 화이트닝 세럼 30g 37만원 모두 **시슬리** 총 2백17만원.



호르는 베일 아래로 드러나는 웅축한 피부의 얼굴선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얼굴 윤곽을 살리고 목과 얼굴의 라인도 리프팅되도록 돕는 라 메르 주름 윤곽 세트.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크림 드 라 메르 30ml 38만5천원, 트리트먼트 로션 150ml 18만원, 아이 컨센트레이트 15ml 24만5천원, 재구성 세럼 30ml 77만원 모두 **라 메르** 총 1백59만원.



클레드보 보메 080-564-7700
라 메르 02-3440-2775
랑콤 080-022-3332
시슬리 080-332-2700
시슬리 080-549-0216
에스티 로더 02-3440-2772
프레쉬 080-822-9500
SK-II 080-023-3333

heavenly Paradise

일생을 가슴에 새겨둘 특별한 하니문을 꿈꾸는 연인이나 예비 부부를 위한 여행지로 많은 이들이 몰디브를 '영순위로 꼽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환상의 섬 몰디브. 하나의 섬에 하나의 리조트가 자리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드문 환경을 갖춘 이 매혹의 섬에서 지난해 초 문을 연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남다른 안목을 갖춘 웨딩 전문가들이 직접 다녀와 추천하는 피놀루 빌라의 매력을 살펴본다.



1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과 투명한 바다를 품은 평온한 섬 몰디브의 떠오르는 명소인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 2-5 몰빌라 양식의 피놀루 빌라는 모든 빌라가 전용 테라스와 수영장을 갖춘 데다, 태양광을 활용하는 친환경 럭셔리 리조트다. 현대적인 분위기에 자연을 담은 초록색과 파란색,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오렌지색을 테마 색상으로 사용한 객실 디자인은 찬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6, 9 언젠드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음료와 칵테일, 맥주, 샴페인 등 각종 주류를 접할 수 있는 풀 바(pool bar). 7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피놀루 빌라가 위치한 가스피놀루 섬은 빼어나게 아름다운 석호로 유명하다. 8 밤 하늘을 배경으로 해변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별빛 상영관'은 오래도록 향수를 남겨줄 이색 체험이다.



“기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곳에 대해 항수병을 앓는다.” 카슨 매컬러스라는 미국 소설가는 여행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바다와 섬을 유달리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몰디브(Maldives)를 설렘의 대상으로 꼽는 이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는 이 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들도, 그리고 물론 이미 경험해봤던 이들도 품게 되는 노스텔지이다. 실제로 여름휴가철이면 세계 곳곳의 섬을 훑고 다니는 것을 취미로 삼는 유럽의 섬 마니아들도 이제껏 지구촌에서 겪어본 최상의 지상 낙원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가보고 싶은 이상향으로 몰디브를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스리랑카 남서부의 인도양에 자리 잡은 몰디브는 1천1백90여 개의 작은 산호섬으로 이뤄져 있다. 푸른빛이나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석호, 새하얀 백사장,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바닷물 등 그 매력이 무궁무진한데, ‘섬 하나에 리조트 하나’라는 흔치 않은 휴식 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하지만 몰디브는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추지 않고서는 이 섬 특유의 사랑스러운 고작함에 꼭 빠져지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돌만의 오붓한 시간이 느릿느릿하기를 원하는 연인들, 특히 신흥여행을 떠나는 커플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게 아닐까. 가장 까다롭다는 예비 부부들에게도 0순위 로망으로 손꼽히는 신흥 여행지 몰디브. 웨딩 컨설팅업체를 꾸리는 한 자매 경영인도 고객들의 소중한 하니문을 장식할 최적의 후보지로 몰디브를 선택했다. 제인마치 정재옥 대표, 정재인 이사는 지난해 초 몰디브에 문을 연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Club Med Finolhu Villas)에 다녀온 후 ‘세상과 분리된 꿈 같았다’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이 경험 풍부한 웨딩 플래너로서 자신 있게 추천한다는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의 매력은 무엇일까.

궁극의 럭셔리 휴양과 자연의 만남, 웨딩 전문가가 다녀온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
이제 겨우 돌을 맞이한 피놀루 빌라는 고요하고 평온하기 그지없는 몰디브의 특색과 클럽메드 고유의 장점을 접목한 리조트다. 몰디브 말레국제공항에서 스피드보트로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프라이빗 아일랜드 가스피놀루(Gasfinolhu) 섬에 자리하는데, 섬 전체를 리조트 고객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은 외부인의 방해받지 않고 여유로운 럭셔리 휴양을 만끽할 수 있다. 이처럼 ‘럭셔리 하니문’을 원하는 성인 커플만을 위한 조용하고 세련된 공간과 함께 여정에 따른 온갖 번거로움을 한 번에 해결해준다는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premium all-inclusive)’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항공권부터 시작해 공항과 리조트 간 교통편, 안락한 객실은 물론이고 음식, 음료, 각종 스포츠와 오락 활동까지 하나의 패키지 요금에 포함돼 한 번의 예약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챙길 게 많은 웨딩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웨딩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만큼 로맨틱하지 않잖아요. 자갈찬 격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올인원식’ 서비스는 그런 점에서 아주 편리하지요. 게다가

가 피놀루 빌라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럭셔리 리조트라는 장점 때문에 더 매력적이죠.” 제인마치 정 대표와 정 이사의 설명이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 30개의 오버워터 빌라와 하얀 모래 해변 위 22개의 비치 빌라로 구성된 피놀루 빌라는 모든 빌라가 전용 테라스와 수영장을 갖춘 럭셔리 풀빌라 양식의 리조트다. 또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 친화적 리조트이기도 하다. 몰디브의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건축 기술을 활용한 것은 물론이고, 3천8백54개의 태양광 패널이 리조트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철저한 친환경 기준 아래 설계됐다. 빌라 내에 설치된 MP3 도킹 스테이션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칵테일을 즐기노라면 예로 시크 파라다이스라는 표현을 내세우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오로지 새소리와 자연의 소리만 들릴 뿐인 조용한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것은 오랜만에, 아니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 돌아와서도 늘 얘기해요. 마치 꿈만 같은, 외부와 분리된 세계였다고요.”

철저한 맞춤형 서비스와 커플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셰프의 손맛
이렇듯 개개인 이 호접함을 뽐낼 누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데는 피놀루 빌라의 섬세한 맞춤형 서비스가 큰 몫을 담당한다. 그것도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다. 예컨대 이렇다. 고객들은 피놀루 빌라 전용 스피드보트를 타고 리조트에 도착한 뒤 별도의 리셉션 체크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빌라로 이동한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위해 대기하고 객실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 예약된 개인 빌라로 곧바로 이동하던 그곳에서 각 빌라를 전담하는 빌라 호스트(버틀러)가 환영 인사와 함께 체크인과 짐 정리를 돕는다. 고객의 스케줄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빌라에서 여유로운 오전을 즐기며 아침 식사를 희망할 경우, 조식 룸서비스가 고객이 지정한 시간에 맞춰 도착한다. ‘인기 만점인 애프터눈 티 서비스 역시 하루 1회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빌라에서 즐길 수 있다. 룸 클리닝 또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되기 때문에 늦잠을 자거나 편하게 낮잠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끊임없이 리필되는 빌라 내 미니 바의 냉음료와 컨시어지에서 무료로 렌탈 가능한 아이패드 서비스, 인빌라(in-villa) 신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낭만과 편리함이 아무리 넘쳐나도 식도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피놀루 빌라에서는 미식을 거리낌없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무제한 음료,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오픈 바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모두(MOTU) 레스토랑과 풀 바는 공간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밤하늘의 별을 연상시키는 수백 개의 둥근 조명으로 장식된 데다, 바닥의 일부가 유리로 돼 있어 발밑으로 지나다니는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을 구경할 수



있는 모두 레스토랑은 바로 앞에 바다와 해변이 펼쳐져 해 질 무렵이면 석양을 감상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도 있다. 전담 셰프진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유럽과 아시아 일품요리를 개발해 1일 3식을 코스식으로 선보인다. 파도가 넘실대는 듯한 지붕 디자인이 특색인 풀 바에서는 생생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하루 종일 언제든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음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후 6시부터는 잔으로 제공되는 샴페인을 훌쩍거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다 특별한 추억을 갈구한다면 프라이빗 디너* 서브스(이하* 추가요금 발생)를 염두에 둘 만하다.

무궁무진한 해양 스포츠의 천국, 지루함 없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의 시간을 누리는 자유도 하루 이틀 지나면 지루해진다’고 말하는 커플은 항상 존재한다. 피놀루 빌라에서는 그런 이들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바로 클럽메드가 자랑하는 ‘액티비티다. 더구나 몰디브는 “몰디브의 진정한 가치는 바닷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션 파라다이스’가 아닌가. 특히 피놀루 빌라가 위치한 가스피놀루 섬은 몰디브 내에서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석호가 있어 풍부한 해양 생태계와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클럽메드를 선택한다면 각각각색의 열대어와 진귀한 해양 생물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는 스노클링과 스쿠버다이빙*,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투명한 바다 위에서 즐기는 제트스키*와 수상스키*, 아쿠아 피트니스 등 이색 스포츠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특히 스쿠버다이빙은 초급부터 전문가 레벨까지 수준별 강습을 진행한다. 피놀루 빌라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빌라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클럽메드 카니 프라이머 리조트의 각종 액티비티까지 함께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피놀루 빌라 이용객들은 투명 카약, 세일링, 비치 발리볼, 패러세일링* 등 카니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다채로운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스포츠 전문 G.O(Gentle Organizer, 리조트 상주 직원에게 안전하게 무료 레슨까지 받을 수 있어 보다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실제로도 정식 자매는 이 혜택의 고마움을 강조했다. “사실 누구나 몰디브에 대한 환상을 갖고는 있지만 하니문으로 다녀온 커플 중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지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놀루 빌라에 묵으면 좀 더 활발하고 열정 가득한 카니 리조트의 활동도 결합할 수 있는 서비스 덕분에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낮에는 피놀루 빌라에서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면 저녁에는 드레스 코드에 맞춰 입고 카니 리조트에 가서 파티 등 신나는 나이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을 추천하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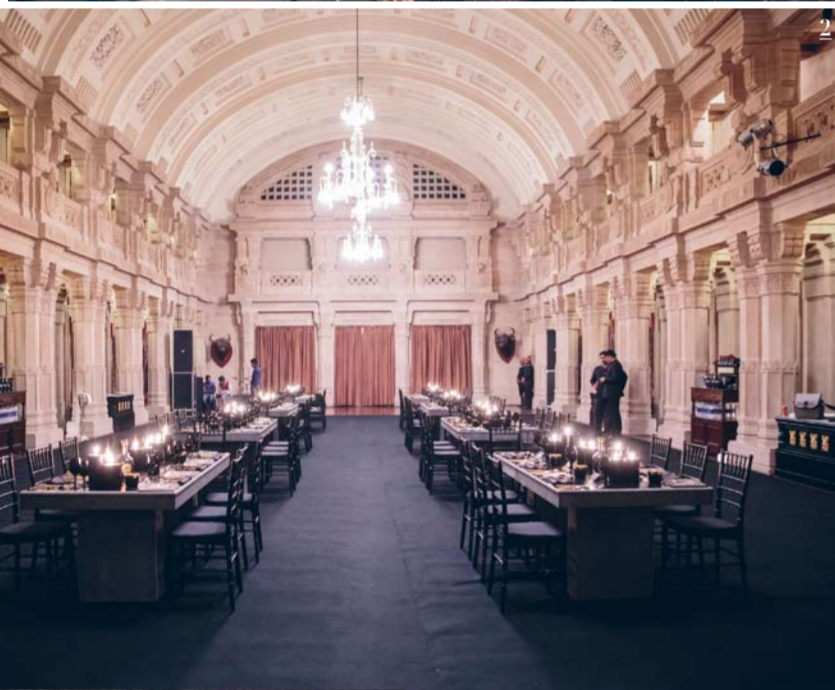
이 밖에도 피놀루 빌라에는 실내외를 아우르는 이색 프로그램이 넘쳐난다. 쿵잉 클래식(주 3회)와 댄스 강습(주 3회), 그리고 리조트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외부 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블루라운 같은 명승지를 탐방하는 항공 관광과 잠수함 해저 탐험, 프라이빗 크루즈, 랍스터 오찬을 제공하는 투어 등 그야말로 다채롭다. 또 몰디브가 지닌 자연의 매력을 심심살린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별빛 아래 영화 상영과 레스토랑에서 상어에게 먹이 주기를 품을 수 있다. 모두 레스토랑에서 체험 가능한 ‘상어 먹이 주기’는 점심시간에 한해 상어를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짜릿한 기회다. 맑고 투명한 바닷속을 헤엄치는 상어를 구경하고 직접 먹이도 줄 수 있는 이색 체험이다. 먹이를 줄 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고 별도의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잡는 것이 좋다. 어둠의 장막이 드리우면 고즈넉한 해변에 마련된 폭신한 소파나 바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별빛 상영관’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실제로 피놀루 빌라 고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보석처럼 쏟아지는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병풍 삼아 바에서 갓 튀겨낸 팝콘과 함께 칵테일을 훌쩍이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야간 해변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영화관으로 기억되면서 오래도록 향수를 자아내지 않을까. **에디터 고영민**



피놀루 빌라의 특별한 하니문 패키지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는 양력 항공권, 공항 픽업 서비스, 객실 등 출발 전 준비 사항부터 전 일정 제공은 뷔페 요리와 코스 요리, 스태 서비스, 오픈 바에서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각종 음료·주류, 그리고 60여 가지의 스포츠 강습·액티비티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클럽메드 피놀루 빌라에서는 2016년 5월 이후부터 몰디브 떠나는 두 가지 하니문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하니문 패키지’ 이용 시 인빌라(in-villa) 웰컴 서프라이즈로 데카페라선과 와인, 클럽메드 커플 티셔츠를 선물로 증정하며, 추가 혜택으로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예약 우선권과 피놀루 빌라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 한 장을 제공한다. 커플당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익스클루시브 하니문 패키지’는 인빌라 웰컴 서프라이즈로 롬 데카페라선과 샴페인, 클럽메드 커플 티셔츠를 선물로 제공하고, 추가 혜택으로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예약 우선권, 피놀루 빌라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 한 장, 인빌라 로맨틱 디너, 그리고 커플 스타 트리트먼트를 제공한다. 두 패키지 모두 객실 상황에 따라 열리 체크아웃 체크아웃 연장이 가능하다. 문의 02-3452-0123, www.clubmed.co.kr

blue-hued Inspirations

아무리 경계가 허물어지는 글로벌 시대라도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또 그렇기에 '융화'의 광경을 보고 느끼는 일은 꽤 짜릿하다.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로얄 살루트는 문화 예술과 스포츠를 융화를 위한 노력의 창구로 삼았다. '블루 시티'로 불리는 인도의 아름다운 도시 조드푸르(Jodhpur)에서 열린 동서양의 문화적 융합을 시도한 프라이빗 행사 '브리티시 폴로 데이'의 현장. 2박 3일의 여정 속에 펼쳐진 순도 높은 문화 콘텐츠는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방불케 했다.



인도는 어떤 양극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인도는 다문화적이고 다중심적인 콜라주다. 다양성의 바다. 인도라는 바다는 시시각각 형태색채로 변한다. 그 격랑의 너울 아래 수천 년의 시간이 축적된 문화라는 삼해수가 흐른다. <여왕의 사고> 중에서

인도를 가리켜 종종 '천의 얼굴을 지닌 나라'라고 부른다. 비록 빈곤 같은 문제도 안고 있기는 하지만 4대 문명 발생지 중 하나로 '삼해수'에 비유될 정도로 문화적 깊이가 깊은 데다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등이 공존하는 만큼 워낙 다면적인 매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 나라에는 매력적인 도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사진작가나 영상 전문가들의 애정도가 몹시 높은 곳이 있다. 문화 예술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서북부 라자스탄 주의 타르 사막에 자리 잡은 조드푸르다. 구시가지로 가면 '인디고 블루'로 벽을 칠한 가옥이 많아 온 마을이 파도가 넘실대는 듯도 하고, 푸르스름한 이불을 덮은 듯 보이기도 하는지라 '블루 시티'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왜 '파랑'일까? 사바 신의 상징이자 브라만 계급을 나타내는 색이라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히고 벌레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다. 아쟁거나 사막 속 푸른 신기루 같은 이 도시는 압도적인 영상미를 뽐내는 영화 <더 폴: 오디세와 환상의 문>과 <다크나이트 라이즈> 촬영지였고, 토종 영화로는 공유, 임수정 주연의 <김종욱 찾기>에 등장해 많은 이들의 눈을 황홀하게 했다. 또 인도를 80번 넘게 여행했다는 세계적인 포토 저널리스트 스티브 매커리가 무척이나 아낀다는 도시이기도 하다.

조드푸르가 자긍심을 품고 있는 볼거리가 두 군데 있는데, 125m 높이의 언덕에 서 있는 메헤랑가르 요새, 그리고 이 나라에서 건축된 마지막 궁전이라는 우마이드 바완 팰리스다. 이 명소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마하라자(인도에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뜻하는 단어)다. 라자스탄 주는 마하라자들이 여전히 세를 떨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 조드푸르의 마하라자 가문이 대가뭇과 기근에 시달리던 시기에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메헤랑가르를 대체하는 왕족의 보금자리로 아르데코 스타일로 새로 지은 성이 우마이드 바완이기 때문이다. 현 마하라자(The Maharaja Gaj Singh II)는 건물 일부를 호텔로 쓰고 있는 우마이드 바완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메헤랑가르 요새의 카리스마 넘치는 관리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왕실 위스키'로 통하는 브랜드 로얄 살루트(Royal Salute)가 '왕의 스포츠'라 불리는 폴로 경기를 후원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지로 공들여 물색 해낸 곳이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로얄 살루트가 개최한 '브리티시 폴로 데이(British Polo Day India)'. 2박 3일의 일정을 예술과 문화 요소로 수놓은 이 행사는 단순한 폴로 대회가 아니라 체험 경제의 우아한 정수가 느껴지는 작은 축제였다.

Day 1, Day 사막의 푸른 신기루, 금빛 위스키 향으로 물들다

첫째 날은 녹음 속에 붉은빛이 도드라지는 근사한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우마이드 바완 궁전의 아름다운 테라스에서 시작했다. 다양한 연신의 몰트 원액을 선보이는 '후크스 투디오', 프랑스 출신의 명성 높은 조향사이자 로얄 살루트의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로 활약하고 있는 바르나베 피용(Barnabé Fillion)이 주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브랜드에 새로



1 문화 예술 마케팅의 정점을 보여준 로얄 살루트의 행사가 열린 인도의 도시 조드푸르. 장벽 위에 솟은 메헤랑가르 요새에서 바라보면 마을 전체가 파란 물결처럼 느껴져 '블루 시티'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2, 4 영국 소설가 E. M.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에서 영감을 받아 예술적인 향연으로 엮어낸 만찬. 조드푸르 왕마하라자의 사유 거주지이자 호텔인 우마이드 바완 궁전에서 열렸다. 3, 5, 10 인도 3대 성으로 꼽히는 메헤랑가르 요새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적 사재에 흠뻑 빠진 각종 공연과 만찬, 패션쇼, 축식 육식 등이 열렸다. 6, 9 로얄 살루트 위스키와 각종 다국적 요리, 시 낭송과 공연이 어우러진 만찬에는 조드푸르의 마하라자 지이 싱 2세(기운데)를 비롯해 수보드 굽타 같은 인도의 유명 아티스트가 참석했다. 7 다양한 연신의 위스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후크스 투디오'라는 프로그램도 흥미를 선사했다. 8, 11 조드푸르 숭어학교에서 열린 '브리티시 폴로 데이'. 조드푸르를 팀과 자이푸르 문도타 포트 & 팰리스 팀이 대결을 펼쳤다.



운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로얄 살루트의 전문 마스터 블렌딩 팀과 함께 준비했다고. "위스키를 마실 때 여러분이 느끼는 95%의 맛은 후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코를 막으면 미각 경험이 얼마나 급격히 줄어드는지 알 수 있지요." 다섯 종류의 원액에서 풍기는 스모키 향, 말린 꽃, 서양배 등의 다채로운 향을 음미하며 위스키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게스트들에게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식물학과 분초학을 공부했다는 피용은 향을 만들고 느낄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런 기조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시간의 송고한 가치를 토대로 혁신을 추구하는 브랜드인 로얄 살루트와의 섬세한 작업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위스키 블렌딩은 아주 풍부하고 복잡한 예술이에요. 모든 캐스케에서 각각 다른 풍미와 향이 드러나잖아요. 특히 로얄 살루트처럼 최소 21년산 원액을 쓰는, 장인 정신이 깃든 프리미엄 위스키는 정말로 특별하죠." 피용과 로얄 살루트의 만남은 머지않아 흥미로운 결실을 탄생시킬 듯하다. 그는 로얄 살루트의 마스터 블렌딩 팀과 자연, 철학,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실험적인 블렌딩 기술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야생작'을 개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에게 후각의 희열을 주는 인도 여행자에게 특별히 뭐가 신선한 영감을 얻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날 밤 우마이드 바완 궁전에서 열린 독특한 만찬에서 얻을 수 있었다. 영국이 낳은 휴머니스트 E. M. 포스터의 소설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찬드라포르의 새들(The Birds of Chandrapore)'을 주제로 한 밤의 향연이었다.

Day 1, Night '인도로 가는 길, 밤을 예술로 수놓다

찬드라포르의 <인도로 가는 길>에 나오는 가상의 인도 도시 이름이다. 로얄 살루트의 첫날 밤 만찬은 바로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 이 도시에 사는 영국인과 인도인의 불가피한 갈등을 휴머니스트의 시선으로 다루며 반성과 화해의 제스처를 담은 소설 마지막 장을 모티브로 삼았다. 로얄 살루트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인 바딤 그리고리안(Vadim Grigorian)이 기획에 참여했다는 이 만찬은 동서양의 음식을 한데 버무린 요리는 물론이고 밤을 빛낸 공연 역시 '문화적 조화'를 추구한다는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창조됐다. 일단 디너가 준비된 홀 가운데 놓인 화강암 테이블은 <인도로 가는 길>에 나온 마라바 동굴을 표현한 것이며, 매뉴저차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힌두어 등 여러 언어의 시를 담아놓은 아름다운 소책자에 담겨 나왔다. 현대 시인 임하이 티와리, 미니어저 화가 마하비르 스와미 같은 인도의 저명한 아티스트와 장인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답게 '오라가' 남달랐다. 디너는 바르나베 피용이 <인도로 가는 길>에 헌사하는 각테일과 함께 시작했고, 그리스, 페르시아, 영국, 그리고 힌두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네 가지 코스 요리가 서빙됐다. 마지막은 인도 전통 무용인 카타크(Kathak)의 독보적 존재인 마나사 굽라이가 장식했다. "사실 저는 인도를 아마 15번은 넘게 왔을 거예요. 샌들우드, 제스민, 율리향 등 다채로운 향의 천국이라 조향사에게는 꿈의 장소죠. 그런데 이번 체험은 정말로 다채로운 문화의 향연이라는 점에서 섹달랐고,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피용의 말처럼, 이날 밤의 파티는 그야말로 다문화의 매력에 묘하게 응집된 예술 작품이라 할 만했다.

Day 2, Day 정통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와 스포츠의 만남

둘째 날 낮, 행사의 꽃인 폴로 경기가 조드푸르 폴로 & 숭어학교에서 열렸다. 로얄 살루트는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왕실 스포츠인 폴로와는 찰떡궁합을 뽐내는 브랜드다. 1953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을 위해 제조한 위스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여왕의 위스키'라고도 불리는 만큼 로얄 살루트와 폴로는 '정통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셈이다. 둘이 엮어내는 시너지가 남다른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2009년부터 로얄 살루트가 인도, 아르헨티나, 호주, 영국, 중국, 한국(제주) 등 15개 나라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은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폴로라는 종목 자체도 동서양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폴로는 흔히 서양 스포츠로 알려져 있지만 그 유래는 수세기 전 페르시아와 중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19세기에야 영국에서 현대적으로 부활한 종목이기 때문이다. 조드푸르는 역사적으로 폴로가 강한 도시다. 1889년 인도에 처음 폴로가 정착했을 때부터 인기가 높았는데, 현 마하라자인 지이 싱 2세도 자신의 스포츠 재단을 통해 2000년에 폴로 그라운드를 새로 만들었을 정도로 열렬한 폴로 지지자다. 이날 '브리티시 폴로 데이'에는 조드푸르 폴로 팀과 자이푸르 문도타 포트 & 팰리스 팀이 로얄 살루트 트로피를 놓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조드푸르의 땅에서 솟아나는 기운이 작용한 것일까. 막판 반격도 제법 거셴데 결국 조드푸르 팀이 승리를 챙겼다.

Day 2, Night 조드푸르의 자부심 메헤랑가르 요새에서 펼쳐진 향연

조드푸르의 마하라자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건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자스탄은 이 지역을 지배했던 전사 집단인 디키프트들의 땅이라는 뜻. 한때 인도 전역을 통일했던 막강한 무굴제국조차 라자스탄만큼은 무력으로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라키프트족 때문이었다고 하니 그 웅망함을 짐작할 수 있다. 마지막 밤을 문화적으로 수놓은 메헤랑가르 요새는 라키프트족의 본부였던 만큼, 조드푸르인들의 긍지와도 같은 곳이다. 유럽을 성(城)의 역사로 풀어낼 수 있다지만 '요새의 나라'인 인도 역시 만만치 않다. 인도 3대 성으로 불리는 메헤랑가르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의 성'이라는 뜻이다. 절벽 위에 늠름하게 솟은 이 유령 넘치는 요새에서 구시가지의 내려다볼 때 눈에 들어오는 광경이야말로 조드푸르가 '블루 시티'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준다. 푸르스름한 야경을 배경 삼아 직색 사암에 둘러싸인 메헤랑가르 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인도의 풍요로운 문화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산책로'였다. 색(色)의 나라답게 형태색채의 전통 의상을 입은 장병과 후회들이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현란한 몸짓으로 환영을 보내는가 하면, 미소를 가득 머금은 여인들이 발코니에서 탐스러운 붉은 꽃잎을 떨어뜨리며 '꽃비를 내리쬐었다. 이곳을 찾은 다국적 손님들을 배려한 마하라자의 궁지 어린 '선물'이었다. 다양한 인도 요리가 나온 마지막 만찬이 열린 옥상에는 꽤 따뜻한 바람이 불었지만 여흥에 취한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위스키를 홀짝이며 늦은 밤의 향연을 즐겼다. '여행이 무엇이란 그것은 꿈꾸고 기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다. '천의 얼굴'이 지닌 단 몇 조각의 편린일지라도 조드푸르의 낮과 밤은 분명 그런 기회로 가슴에 남을 것 같다. **SI** 에디터 고성연 인도 조드푸르 현지 취재

Naples meets the world

놀라운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유산을 지닌 나폴리. 오래도록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최고급 남성복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배출한 아름다운 고장의 가치를 알리는 이벤트가 지난 연말 나폴리 현지에서 열렸다. <스타일 조선타일>가 캄파니아(Campania)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폴리로 떠났다.



캄파니아, 이탈리아의 심장

아직 한국에서 이탈리아의 캄파니아 지역은 안듯 이름만 들어서는 다소 생소한 곳이다.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캄파니아(Campania) 주는 인구 약 8백80만 명으로,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주도는 나폴리다. 나폴리 바로 옆에 위치한 세계적인 럭셔리 관광지인 카프리 섬을 떠올리면 캄파니아의 대략적인 느낌을 가늠할 수 있다. 이필피 해안, 베수비오 산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데, 이와 더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봉제 기술과 가죽 염색, 완성품 제작까지, 'Made in Napoli'의 명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개최한 '나폴리 세계를 만나다-Naples Meets the World' 이벤트는 나폴리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중소기업 진흥 프로젝트인 'A Fashion Journey to Southern Italy'의 일환으로, 세계 패션의 리더인 이탈리아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는 성대한 이벤트였다. 전 세계에서 방문한 바이어들이 참석해 캄파니아 지역과 그 중심에 있는 나폴리 브랜드의 가치를 다시금 탐험하는 기회였던 것.

나폴리, 최고급 봉제 기술의 요람

이번 이벤트에서 앰배서더로 참여한 브랜드는 아마나 루비나치(Amina Rubinacci), 바르바(Barba), 체사레 아톨리니(Cesare Attolini), 피나모레(Finamore), 이사이아(Isaia), 키톤(Kiton), 마리넬라(Marinella), 포르톨라노(Portolano), 루소 디 카산드리노(Russo di Casandrino), 트라몬타노 나폴리(Tramontano Napoli)다. 나폴리 패션 산업의 리더로 인정받는 10개 업체가 이 박람회의 앰배서더로 활동하며 바이어들과 프레스를 맞은 것. 오보(Ovo) 성에서 개최한 프레젠테이션에는 남녀 의류는 물론 패션 액세서리, 가방, 슈즈 제작업체까지 60개 업체가 참여해 자신들의 컬렉션을 소개했는데, 대체로 나폴리의 패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한 것은 나폴리의 봉제 기술. 옷을 만드는 것이 생활의 일부이자 가장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 나폴리의 의류 산업은 캄파니아 지역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강렬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키톤으로 대표되는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나폴리 브랜드가 남성복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에 비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이러한 세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서는 나폴리의 상징인 오보 성 안에 판매 연계를 위한 바이어 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직접 공장을 방문할 기회까지 제공해 나폴리 패션 산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슈즈와 가죽 가방 분야에서도 나폴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최고급 남성용 맞춤 드레스 슈즈와 오랜 역사를 지닌 가죽 브랜드 역시 두각을 나타냈다. 각 브랜드 탐방을 넘어 나폴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느낄 수 있기에, 브랜드와 캄파니아 지역 정서의 유대감을 훨씬 더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해를 거듭하며 더욱 발전하고 있는 'Naples Meets the World' 이벤트 참여 업체와 더 자세한 정보는 naplesmeetsworld.ice.it 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문의 02-779-0811 에디터 배미진(나폴리 현지 취재)



1 바다를 끼고 요트 선착장이 늘어서 있는 나폴리의 풍경. 나폴리는 캄파니아 주의 주도이자 이탈리아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다. 2 유서 깊은 오보 성에서 개최한 패션 브랜드들의 프레젠테이션. 6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전 세계에서 1백50여 명의 바이어와 프레스가 참석했다. 3 이벤트 첫날 이번 이벤트의 앰배서더 업체들의 대표가 모여 나폴리의 가치를 대변하는 오보 성에서 환영회를 열었다. 4 전 세계 최정상 인사들의 타이로 유명한 마리넬라의 대표 사무라이오 마리넬라. 나폴리 브랜드의 자부심을 가득 품고 있다. 5 마리넬라의 타이는 모두 핸드메이드로 제작된다. 6 Naples Meets the World 이벤트는 나폴리 패션 브랜드의 가치와 캄파니아 지역의 자연,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가다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별들의 들판)로 걸어가는 길이다. 일생에 한 번쯤 걸어보고 싶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마다 20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에서 찾는다. 환상 속 그 길을 5일에 걸쳐 맛본 여기자의 첫 체험기.



누구나 가슴속에 환상 하나쯤은 갖고 있다. 결혼식에 대한 환상은 깨진 지 오래지만, 나에게도 아직 남은 환상이 있었다. 수평선까지 기다리게 누워 있는 길, 끝도 없는 그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하루 종일 묵묵히 걸어 나면, 남루한 속스에 도착해 몸을 누이는 것. 오늘도 몸을 누일 수 있다는 데 감사하면서 잠이 드는 것. 이것은 내가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적 이미지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구도자가 되어보리라 생각했다. 만약 산티아고를 걷게 된다면 손이 되었을 때일 거라고 여렘없이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2014년 가을, 나를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에 데려다주었다. 꿈이 이렇게나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다. 오랫동안 산발장 안에 놓이두었던 등산화를 꺼내고, 배낭도 챙기고, 카메라 상태도 살폈다. 헬스조선 비타투어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걷기 프로그램에 동행하기 위해서였다. 먹고, 입는 데 필요한 짐을 모두 메고 걸지 않도록, 뜨거운 물이 팔팔 나오는 호텔에서 편히 잤고,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가 동행한다! 커질 대로 커진 여행의 실험은 오버치커(수하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일 듯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걷는 길

도보 일정은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 지방, 사리아에서 시작됐다. 산티아고 순례길 중 프랑스길은 프랑스 작은 마을 생장 피에 드 포르에서 출발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있는 대성당에 이르는 길이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111.5km 떨어진 사리아는 나와 같은 단거리 순례객의 단골 출발지다. 안개가 자욱한 사리아는 종세 마을처럼 고풍스러웠고, 순례길에 대한 환상처럼 근사했다. 산티아고 순례길 위에는 '노란 화살표'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도가 없더라도, 노란 화살표만 잘 찾아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친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때문에, 담배판매, 표지석에 노란 화살표를 새겨 넣었다. 길치인 나도 눈만 크게 뜨면 되었다.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심미적으로도 노란 화살표는 훌륭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어떤 것은 타일였고, 어떤 것은 페인트였고, 어떤 것은 벽이었다. 화살표 위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에스파냐어도 있었고, 영어도 있었고, 중국어도 있었다. 길을 갈다 치면 노란 화살표를 보고, 다리에 힘 한번 주면 됐다.

단단한 그림자를 쫓아서

첫날에는 22.4km를 걸었는데, 이틀날에는 포르토타민에서 필라스 데 레이까지 무려 25km를 걸어야 했다. 짙은 안개가 걷혀서 끝도 없는 평원이 드러났다. 싱그러움 이슬을 머금은 채 반짝이는 초록의 땅으로 한껏 발을 내민 듯 싶었지만, 여독이 풀리지 않은 발은 눈을 걷는 듯 더웠다. 잠시 바르에 들러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이켜 주어야 조금 나아졌다. 시간이 갈수록 발은 더 빠르게 내리찍었고, 숨을 뱉는 도로는 그늘 한 조각 없었다. 등과 목에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물 한 병과 소형 카메라만 든 7kg이 10kg은 되는 듯했다. 목까지까지 가려면 말렸는데, 입바라김이 물러와 어느 순간부터 배드만 보고 걸었다. 바더에서는 지친 그림자가 걷고 있었다. 순례길은 사쪽을 향해 난 길에서 모든 순례자는 해를 등지고 걷게 된다. 아침이면 전날 피로만큼 갈게 늘어난 그림자가 앞에서 걸어가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그림자는 점점 작아져서 뒤로 물러난다. 보기 싫어도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걸어야 한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사실 하나 아니다. 여러 루트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랑스 생장부터 시작되는 프랑스길이다. 2 사리아에서 포르토타민까지 걷는 길에는 기둥을 일컫는 노란 해바라기가 지천이다. 3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된 '별의 십자가'는 해발 1,506m 높이 에 우뚝 서 있다. 수많은 순례객이 그 아래 조그맣거나 상상할 수 없는 신의 기둥을 만난다. 4 마을 생장이나 바르에 바르에 도착하면 크레덴(순례자 여정에 찍은 뒤 순례자 사무소에 제출하면 순례 완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5 순례자의 상징인 조끼를, 전설에 따르면 거대한 조끼가 야고보 성인의 유해를 가지고 추락하던 제자들의 파손을 도왔다고 한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그림자는 애처로웠다. 할 수만 있다면 할 것 같아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참나, 그림자 하나기 걸어왔다. "부엔 카미노(Buen Camino)"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나를 지나쳐가며 피란 눈동자의 순례자가 인사를 건넸다. '부엔 카미노는 순례 길하세요' 혹은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정도의 의미인, 산티아고 순례자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순례자는 자신의 머리 위로 한 뼘쯤 솟은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는 한 달 일정으로 걷고 있다고 했다. 그가 행운을 빌어주어사지 몰라도, 이후 걷는 데 익숙해졌다. 물에 자동으로 프로그래밍된 듯 발이 저절로 걷고 또 걸었다. 피곤하기보다는 상쾌했다. 몸을 쓸수록 마음은 조용해졌다. 감정이 침랑침랑 밀려왔다고 아내 가리언이었다. 낮에 늦춌까 되도록 걷는 것의 좋은 점은 또 있었다. 배가 배가 달지 않아 잠이 드는 마법이다. 내일 해야 할 일 생각해, 낮에 했던 실수를 반추하느라 뒤척이던 서울에서의 밤과 달랐다. 이곳에서는 걷고,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내일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매일매일 산티아고로 걷는 길

걷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흘은 마지막 날 일어났다. 전날 일정을 영해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200km와 130km로 나눠 각각 진행한다. 하루 평균 20km씩, 200km는 10일, 130km는 6일만 걸는다. 4성급 호텔에 머물며 짐은 숙소에서 맡겨두고 다니기 때문에 가벼운 배낭 하나만 메고 걷기에 집중할 수 있다. 주말 등산을 즐기는 정도의 체력이라면 무난히 소화할 수 있다. 올 4월부터 순례자 공용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200km는 순례길 시작되는 '생장 피에 드 포르'에서 출발해 '치유 의 생루르'를 방문하는 등 순례의 의미를 더했다.

은 발목에 손수건을 감아주었다. 한결 편안했다. 찬찬히 걸어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했다. 앞서 도착한 순례자들의 환희로 가득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산티아고 순례 여행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걷는 데 서둘렀고,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찾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산티아고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꼭 다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순례 여행 중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발에 물집도 잡히고, 몸도 무겁고, 지근 당장은 목까지까지 걷느라 같이 좋은지, 어떤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 한 달이 지났을 때 문득 산티아고가 생각날 거예요'라고. 여행이 끝난 지금,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마다 내 입에는 산티아고 길이 펼쳐진다. 글 김아솔(헬스조선 기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걷기'에 참여하려면?
 헬스조선 비타투어의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걷기'는 2013년부터 운영해온 인기 프로그램으로, 200km와 130km로 나눠 각각 진행한다. 하루 평균 20km씩, 200km는 10일, 130km는 6일만 걸는다. 4성급 호텔에 머물며 짐은 숙소에서 맡겨두고 다니기 때문에 가벼운 배낭 하나만 메고 걷기에 집중할 수 있다. 주말 등산을 즐기는 정도의 체력이라면 무난히 소화할 수 있다. 올 4월부터 순례자 공용 숙소인 알베르게에서 불편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200km는 순례길 시작되는 '생장 피에 드 포르'에서 출발해 '치유 의 생루르'를 방문하는 등 순례의 의미를 더했다.
일정 130km 4월 16~26일(9박 11일), 200km 4월 16일~5월 1일(14박 16일) **참가비** 130km 4만4500원, 200km 5만9500원(유료항공료, 가이드 경비 포함)
문의 1544-1984, www.vitalour.co.kr(헬스조선 비타투어)

SHOWROOM



아이패션 카를 워치 페어 아이패션은 벨란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캐주얼 워치 페어를 개최한다. 스위치 그룹의 시계 부티크인 아이패션에서 개최하는 이번 페어에서는 론진, 라도, 티소, 미도, 해리슨, 칼빈 클라인, 스위치의 인기 카를 시계를 만날 수 있다.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에 따라 시계 보관함, 무료 폴리스 카드 등 특별한 시은품과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02-551-1982

루이 비통 비행하러, 항해하러, 여행하러 전시 개최 루이 비통은 프랑스 파리의 미술관 그랑 팔레에서 (비행하러, 항해하러, 여행하러 - 루이 비통) 전시를 선보인다. 패션 전시의 대가로 알려진 클레어 리베리에 사이아르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루이 비통을 대중이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루이 비통을 만들어낸 루이 비통의 아들인 루이 비통을 대표하는 엔틱 트렁크부터 파리의 상징인 에펠 탑을 모티브로 한 패션 컬렉션까지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2월 21일까지 무료입장으로 개최된다. 문의 02-3432-1854

쌈시나이트 레드 뉴몬트 쌈시나이트 레드에는 비즈니스 캐주얼 라인인 백팩 뉴몬트를 출시한다. 감각적인 가방을 선보이는 쌈시나이트 레드의 신제품인 뉴몬트는 등근 모사리의 사각형으로 은은한 광택이 돋보이는 가죽 소재를 사용했으며, 블랙과 그레이 2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특히 2016 S/S 시즌 광고 모델로 활약한 배우 김민우와 함께 TV 광고, 홍보 등을 통해 뉴몬트만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문의 02-3288-3770

막스마라 2016 크루즈 컬렉션 막스마라에는 런던의 뉴본드 스트리트에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는 것을 기념하는 2016년 크루즈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 컬렉션은 낭스적인 우아함이 담긴 런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울 크래프트, 실크 조트 소재, 태슬이 달린 스트랩 벨트와 함께 케이크, 피자, 드레싱 가운을 포함해 이스트 런던의 감성을 담은 쇼츠와 레지네타일 스트라이프, 퍼 헤드 기어, 그리고 캔장된 기어과 빅토리아 파크에 만개한 꽃을 표현한 특별한 컬러의 프린트 등이 담겨 있다. 문의 02-3467-8326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삼성 Gear S2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리미티드 에디션 콜롬보는 삼성 전자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삼성 Gear S2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콜롬보의 감성과 삼성전자의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아이টে므로, 삼성 Gear S2 스마트 워치의 스트랩에 최상급 악어가죽을 사용해 제작했다. 블랙, 레드, 그린 컬러는 스킨 스타일로, 그레이 컬러는 더블 스트랩으로 출시하며, 오직 2백50점만 리미티드로 선보이니 서두를 것. 이번 에디션은 콜롬보의 말라노 플래그십 스토어와 국제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스토어 tessabit.com과 farfelch.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70-7130-9200

구찌 실비 구찌는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요소를 담은 새로운 잇 백 '실비'를 선보인다. 백 상단에는 구찌의 상징인 모지 소재 웹 스트라이프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위에는 독특한 체인 장식이 달려 있다. 부드러운 오소와 구조적인 세이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것이 특징. 솔더 스트랩은 웹 스트라이프를 적용한 그로그링 버전과 깔끔한 클린 가죽 스트랩 2가지로 구성되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연출 가능하다. 그린, 레드, 화이트, 블랙, 블루 등 5가지 컬러로 출시된다. 문의 1577-1921

말포 로렌 RL 시그니처 백 말포 로렌은 2016년 S/S 시즌을 맞아 RL 시그니처 백을 선보인다. 레트로 클래식 느낌을 풍기는 RL 시그니처 백은 새롭게 디자인한 RL 로고를 돋보이는 것이 특징. 모노컬러, 버건디, 골드 등 컬러 선택의 폭이 넓으며, 다양한 소재와 크기,



클립메드 해피 모먼트 캠페인 클립메드는 행복한 여행의 순간을 공유하는 '해피 모먼트 캠페인'을 공개한다. 클립메드를 방문한 고객들이 행복했던 후기를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사진 업로드가 가능한 온라인 갤러리를 열어 캠페인 기간 동안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베스트 포토를 선정해 숙박권을 제공하는 포도 콘테스트 이벤트와 클립메드 리조트 중 방문하고 싶은 곳의 사진을 본인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인원이 일정 수에 이를 때마다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2-3452-0123

랜드로버 코리아 디스커버리 랜드로버 코리아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지난해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베스트셀링 카의 인기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뛰어난 전후 주행 성능과 실용성이 어우러져 나타나지 효과를 발휘하는 프리미엄 SUV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50%가량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15년 누적 판매 2천2백28대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약 55%의 성장을 이룬 뛰어난 사랑을 받고 있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는 세울 강한 전장점을 포함해 전국 랜드로버 전시장에서 시승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80-898-8800

버버리 럭셔리 버버리는 런던에서 열린 2016년 패션 리갈리아 컬렉션에서 선보인 액세서리 '럭셔리'를 소개한다. 럭셔리는 20세기 초 버버리 밀리터리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볍고 편안한 휴대성과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춘 기능이 돋보이는 아이টে일이다. 앞 포켓 중앙에 골드 컬러의 글자를 새길 수 있는 모노그래밍 서비스를 제공하며, 블랙과 레드 컬러의 스몰 사이즈와 블랙 컬러의 라지 사이즈로 구성된다. 이번 시즌 캔버스 그린, 네이비, 버건디 레드 컬러의 미디엄 사이즈도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매장하고 온라인 스토어(burberry.com)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2-3485-6536

엘보 일루전 프레스 백 엘보는 고급스러운 컬러 대비가 돋보이는 '일루전 프레스 백'을 소개한다. 2016년 S/S 남성 컬렉션은 피망(Piment), 링(Lin), 느와(Noir) 등 새로운 컬러를 사용해 다양한 컬러 콤비네이션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일루전 프레스 백은 느와 컬러의 보드에 아이보리 컬러의 부드러운 라인을 트라임해 우아하면서도 품격 있는 매력을 선사한다. 또 패션 카프와 악어가죽처럼 상반되는 소재의 텍스처를 사용해 엘보만의 고급스러움이 돋보인다. 문의 02-3449-5916

LIFESTYLE

JEWEL

스와치 텐더 프레젠티드 스위치는 벨란타인데이를 맞아 사랑을 상징하는 스페셜 워치 텐더 프레젠티드를 선보인다. 다이얼 내부가 보이는 스킨레톤 디자인의 시계로, 내부 엘리먼트는 핑크, 골드, 그리고 레드 하트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랩 뒷면에는 'Handle with Care'라는 문구를 새겨 연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 특별하게 하트 패턴의 패키지에 담아 판매하며, 전국 스위치 주요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6-9401

타사키 라벨로 타사키는 다가오는 워킹 시즌을 맞아 부드러운 곡선의 꽃잎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의 라벨로를 제안한다. 이탈리아어로 큰 꽃잎을 뜻하는 라벨로는 유려하고 여성스러운 라인이 돋보이며 이상적인 밸런스로 제작한 곡선의 폭과 두께가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타사키만의 특허 기술로 탄생한 사쿠라 골드 컬러와 플래티넘 2가지 버전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461-5558

그라프 하트 세이프 그라프는 벨란타인데이를 기념해 사랑의 상징인 하트 세이프를 완벽하게 재탄생한 주얼리를 제안한다. 프랑스 고문헌 (로망 드 라 피아르)의 절제적인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하트 모티브로 제작했으며, 웅장한 폭포를 담은 네크리스, 섬세한 레이스의 핀던트, 솔리테어 링 등 다이아몬드, 루비, 그리고 사파이어를 사용한 다채로운 주얼리를 선보인다. 문의 02-2256-6810

타파니 빅토리아 컬렉션 타파니는 별을 모티브로 재탄생시킨 빅토리아 컬렉션을 선보인다. 1998년에 첫선을 보인 타파니 빅토리아는 1889년 피리안 국립박물관에서 공개한 다이아몬드 코르사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타파니의 디자인 디렉터인 프란체스카 에피타이로프가 새롭게 해석한 뉴 빅토리아는 밤하늘의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별을 형상화한 주얼리로, 라운드와 페어 세트 다이아몬드를 플래티넘에 정교하게 세팅했다. 이번 컬렉션은 타파니 매



오메가 글로브마스터 오메가는 기계식 시계의 인증 방식인 메타스 인증을 가진 최초의 타임피스 글로브마스터를 출시한다. 이 모델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최초의 제품으로, 정확성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1952년 컨스태레이션 모델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코닉한 파이-팬 다이얼과 플루티드 베젤을 적용했다. 동 향대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통해 오메가 코-엑셀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8901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49-5917

몽블랑 몽블랑 M 몽블랑은 우아한 디자인과 기능이 돋보이는 필기구 '몽블랑 M'을 선보인다. 디자인이 더 뉴 스타일과 합체된 재탄생 몽블랑 M은 그의 특색인 부드럽게 흐르는 순수한 유 기적 형태의 바이오모피즘과 몽블랑의 아이코닉 화이트 스타 엠블럼을 포함한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캡과 배럴에 자석을 사용했으며, 'MONTBLANC'을 새긴 루테튬 도금의 앞부분이 무게 균형을 잡아주어 그림자 없이 편안하다. 또 몽블랑 역사상 최초로 제도와 드로잉용 파인라이너 펜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2-2118-6053

라페르바 페인트겐 라페르바는 빠르고 쉽게 네일을 연출할 수 있는 네일 스프레이 페인트겐을 선보인다. 스타일 아이콘 일렉트릭 창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페인트겐은 세심한 작업 없이 손쉽게 네일 케어가 가능한 제품으로, 베이스 코트를 바른 후 페인트겐을 손등에 문질러 20초 후에 씻어내면 완벽한 네일이 완성된다. 실버와 핑크 2가지 컬러로 구성되며, 라페르바에서 독점 판매한다. 문의 02-3479-1688

프레쉬 코코아 바디 엑스폴리언트 프레쉬는 피부를 매끄럽게 가꾸주는 코코아 빈을 사용한 신제품 '코코아 바디 엑스폴리언트'를 출시한다. 초콜릿의 달콤한 향과 발췌점 부드러운 텍스처를 담아낸 보디 스크럼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카카오 겔질 기구, 영양을 공급하는 카카오 시드 버터, 피부 보호 효과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 함유의 카카오 추출물이 들어 있어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 080-822-9500

사벨 블루 드 사벨 웨이브 인 스타일 사벨은 남성성을 위한 세이빙 제품 '블루 드 사벨 웨이브 인 스타일'을 선보인다. 완벽한 면도를 도와주는 두 제품은 세련된 패키지와 아로마-우디 계열의 강렬한 향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블루 드 사벨 웨이브 크림'은 빈투 명 텍스처로 거품이 수렴을 가리지 않아 좀 더 세밀한 세이빙이 가능하며, '블루 드 사벨 하이드레이팅 애프터 셰이빙 젼'은 물처럼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즉각적으로 스며들어 자극을 가리우고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을 선사한다. 문의 080-332-2700

코스메 데코르테 피토티온 퍼펙션 코스메 데코르테는 피뫼팅을 케어해주는 걸 에센스 피토티온 퍼펙션을 선보인다. 풍부한 영양이 담긴 부시토 추출물과 허브 콤플렉스가 유수분 불균형을 해소해 피부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피토티온 리안 에센스다. 수분 부족을 보완하고 민감한 눈을 완화해 주는 모공과 가칠어진 피뫼팅을 매끄럽게 가꾸어주어 완벽한 피부 표현을 돕는다. 코스메 데코르테 백화점 매장하고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문의 080-568-3111

클라린스 클라린스 맨 베스트셀러 듀오 클라린스 클라린스 맨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구성된 남성 선물 세트, '클라린스 맨 베스트셀러 듀오'를 선보인다.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워터 타입의 토너 '에프터 셰이브 케어'와 이차와 수분 로션 '수퍼 모이스처 젼'로 구성되어, 2가지 여행용 제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기존 판매가에서 40% 이상 할인된 가격대로 출시되며, 2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백화점 클라린스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80-542-9052

존 바버토스 블루 존 바버토스는 아티산의 후속작인 향수 블루를 선보인다. 따뜻한 햇빛

FASHION

BEAUTY